



2014
공공기관 협업
우수사례집

협업(Collaboration), 그 성공의 길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국장 조봉환

협업(Collaboration), 참 매력적인 단어이다. 특히 음악 경연 프로그램에서 보는 ‘콜라보’는 색다르다.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아티스트와의 공동작업. 기대 이상이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 공공기관에서의 협업, 야누스적이다. 조그만 관심과 의지로 전혀 다른 결과를 낼 수 있다. 그러나 어렵다. 실제 대단히 어렵다. 원래 안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될 때도 있다. 인간 본성상 말이다.

협업의 요체는 뭘까. 2013년 6월 정부 3.0 비전 선포식에서 대통령께서 언급한 사안을 보자.

“최근, 감사원과 경찰청, 건강보험공단이 기관 간에 정보 공유를 했더니, 그동안 찾지 못했던 실종자 369명을 찾고 그 중 144명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협업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사례이다. 한편 국민 입장에서 보면 이런 기본적인 것이 왜 지금까지 안 되었는지 생각할 것이다, 인터넷 강국에서. 스스로 먼저 반성해 본다.

협업과제 업무를 맡으면서 느끼는 가장 중요한 점은 ‘관심’이다. 기관 간 칸막이 제거의 협업은 어찌 보면 틈새시장인 것이다. 그래서 ‘관심’은 더 중요하다. 기관장의 ‘관심’이 있어야 하고 직원들의 ‘관심’과 ‘양보’가 있어야 한다. 내 권한을 내려 놓을 자세가 필요하다.

공공기관 협업 활성화를 위해 기관으로부터 과제를 제출받는다. 경영평가에서 가점제도 운영하고 있다. 첫 해보다 둘째 해에 관심도가 조금 더 높아졌다. 첫 해에는 정보공유 포털 구축, 자원공동 활용 등 단순 협업이 많았다.

이어서 One-Stop서비스 제공 확산, 행정효율 고도화 등으로 다양화되었다. 이 책에 수록된 ‘4대 사회보험 채납사업장 자격정지 시스템 구축’, ‘스포츠강좌이용권 수급자격 원스톱 조회서비스’가 그 사례일 것이다. 현재 400여개 과제를 제출하지만 실효성 있는 과제는 많지 않다. 경영평가에서의 가점 기대 이상이 있어야 한다.

최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마무리되고 있다. 혁신도시마다 유사한 분야 15개 기관들이 이전하고 있다. 이전하는 지역사회에도 적극 기여해야 한다. 서로 아이디어를 합쳐 지역사회와 윈윈하는 전략을 짜 내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도 협업은 필요하다. 언론의 관심도 필요하다. 협업 우수과제에 대한 보도자료도 배포하였다. 결과 확산 차원이다. 그러나 일간지는 받질 않는다. 일방적 정부 홍보라는 측면이다. 하지만 결과를 만들어 가는 노력에 대한 이해가 아쉽다.

공공기관 협업을 2년 동안 담당하면서 느낀 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국민들은 정치개혁, 국민 관심사 개혁 등 굵직한 변화를 원할 것입니다. 협업이 관심 끌기 어렵고, 노력 대비 결과가 미미해 보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그마하지만 촘촘한 노력에 국민들은 마음속으로부터의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협업 노력을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협업, 협력 그리고 협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이원희

산업화 시대의 급속한 생산성 증대는 분업과 전문화이었다. 업무를 작게 나누고, 각자는 자신의 주어진 역할만 하면 된다는 논리이다. 1910년대 테일러리즘(Taylorism)으로 대표되는 ‘시간과 동작 통제’ 기법이 이러한 맥락에 있었다. 그러나 현대의 복잡화된 네트워크 사회에서는 생산성이 전략적 제휴(Strategic alliance)에 의해 좌우된다. 조직의 규모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긴밀한 연계 협력 체계를 조성하는 것이 조직의 생명력을 키우는 방법이 되었다.

지구상에서 살아남을 마지막 생명체는 가장 덩치가 작은 쥐가 될 것이라고 한다. 덩치가 작기 때문에 외부 환경에서 충격이 오면 온 몸이 적응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 가장 덩치가 컸던 공룡은 이미 사라졌다. 그래서 현대 조직 관리의 방향은 덩치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조직 관리의 단위를 쪼개어 작게 하는 것이다. 관료제 이후에 등장하는 탈관료제 모형인 팀제, 매트릭스, agency의 방향은 조직을 작게 나누고 관계의 긴밀도를 높이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316개 공공기관 전체를 생태계적 관점에서 유기체적으로 활동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업무 분업을 통해 발전해 온 공공기관들이 상호 협력하여 유기적으로 활동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음새 없는(seamless) 매끄러운 서비스를 기대할 것이다. 소위 one stop service이다. 한 군데에서만 신청을 하면 국가 기관이 협조하여 다른 서비스들이 연계하여 해결되도록 해야지, 소비자가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신청을 여러 번 하게 하는 것은 IT 강국의 위상에 맞지 않다. 공공기관의 숫자가 늘어날수록 이러한 공공기관의 기능을 생태계적 관점에서 보고,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키는 노력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기관 간의 협업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협업의 관점을 강조하기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협동으로 공공기관의 우수사례를 공모하고 이를 널리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많은 기관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중 우수사례로 지정된 기관은 의미 있는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첫째, 단순 교류와 협업은 다르다. 일회의 교류는 파급효과도 약하고, 성과도 미흡하다. 소비자 입장에서 성과가 측정되고 관리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비슷한 맥락으로 일상적인 업무인데 갑자기 협업이라는 이름을 달고 홍보하는 모습도 극복되어야 한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지 못한다. 본래 당연히 해야 할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이다.

셋째, 감동적인 것은 혼자 힘으로 하지 못할 업무를 협력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학자금 부정 수급의 통제나 복지 관련 수급자 관리를 위해 정보화를 추진하는 기관과 협력하여 비용도 절감하고 전달체계의 효율화를 기한 경우이다. 정보의 DB를 활용하여 의사결정과정의 platform을 설계하여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집행 과정에서 gateway를 설계하여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사례이었다.

넷째, 매우 흥미로운 것은 동일한 업무를 각자 수행하면서 기준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 이번의 협업 과제 추진과정에서 발견되었다는 점이다. 협업의 출발은 협의이고, 그것은 상대를 이해하는 협조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협업 과제의 발굴 노력은 공모심사가 끝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국민의 관점에서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과제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이 국민의 기업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겨울의 마지막 자락에서 공공정책국, 공공기관연구센터, 사계(斯界)의 전문가,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모여 협업 우수사례 선정을 위해 토론하고 고민하는 것 자체가 신선하고 흥미로운 협업의 추억이었다.

협업과제의 의미와 과제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부사장 한수희

2014년도 공공기관의 협업과제 심사에 참여하여 공공기관의 협업과제 추진 현황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이번 정부 초기부터 맞춤형 국민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3.0, 융합 등을 강조하며 부처간, 공공기관 간의 협업을 추진해 왔다.

처음 2013년 협업과제 평가에 참여하여 공공기관들의 협업사례를 접하였을 때는 협업의 본질을 벗어난 느낌이 많이 들었다. 이후 2년 동안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들의 노력으로 금번 과제들은 많은 진전이 있었다.

우선 공공기관들이 협업을 통해 국민들에게 주는 서비스 가치를 높이려는 과제선정 및 추진과정들이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하고 싶다.

공공기관들이 혁신도시로 이전을 하면서 같은 지역에 있는 기관들끼리 협업체계를 구성한 것도 발전된 모습이었으며, 같은 서비스유형끼리의 협업을 통하여 서비스 품질을 강화하고, 이업종끼리 융합을 통하여 새로운 서비스 가치를 만든 일도 좋은 협업사례였다. 또한, 실무자들 중심에서 기관장이나 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등 보다 성숙된 협업문화가 형성되었다. 다만, 아직은 가시적인 성과가 많지가 않아 국민들 입장에서 체감되지 못하는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협업의 의미는 국민이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공공기관들이 생산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높아져 가는 국민의 기대수준에 맞추기 위해 공공기관들이 공공서비스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중복된 기능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다. 또한 공공기관들의 혁신도시 이전에 따라 거리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생길 가능성이 많아졌다.

높아져가는 국민들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기대를 현재 상태에서 지속한다면 아마도 지불해야 할 서비스비용이 대폭 증가될 것이다.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기관들의 중복된 기능을 통합하여 서비스기능을 강화하거나, 이업종의 서비스를 융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시키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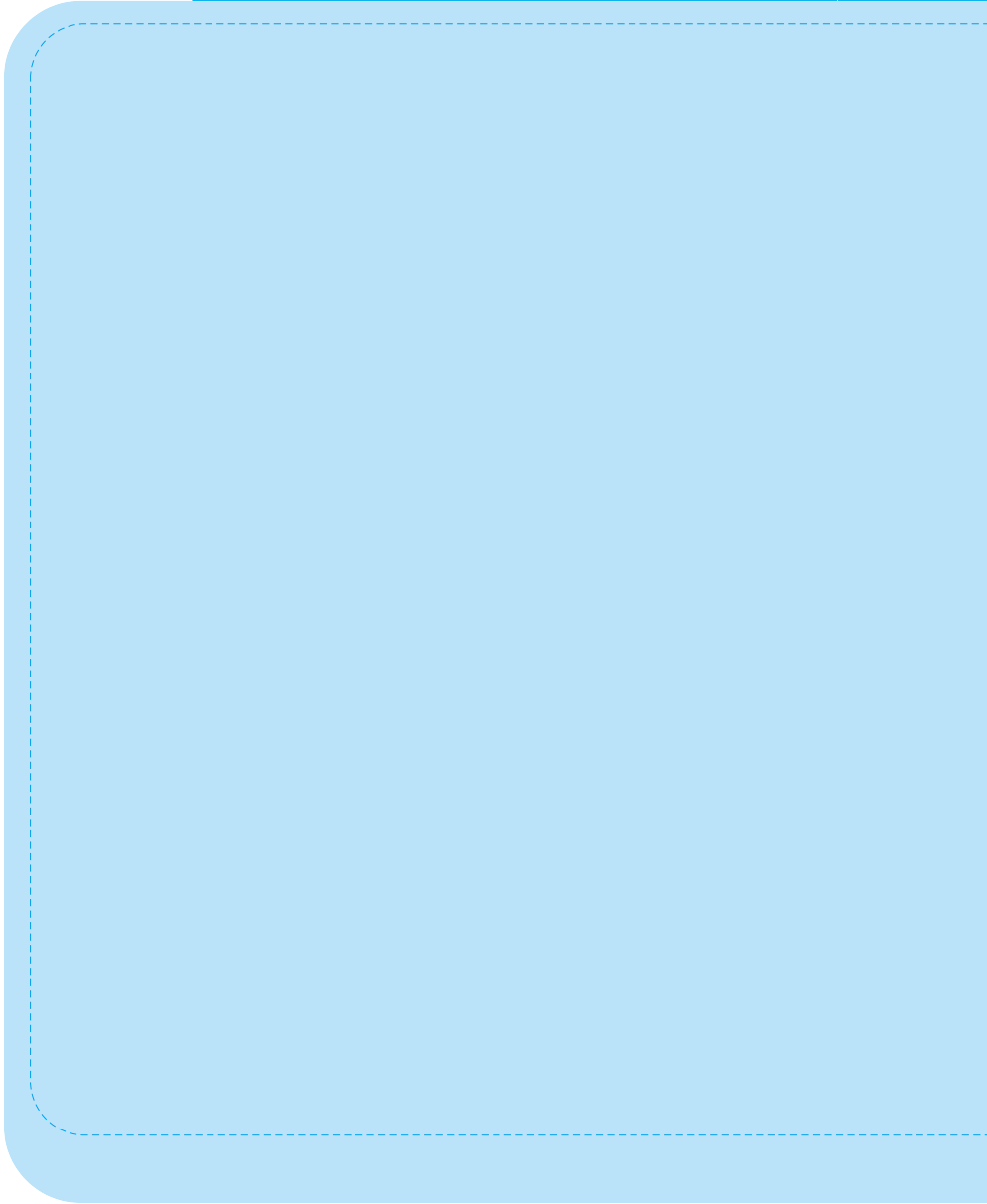
협업과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초기단계인 협업과제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 협업의 본질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실행성과가 국민들에게 가시적으로 체험될 수 있는지, 비용이 많이 들지 않고 연 단위로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사업의 지속성이 있는지 등을 평가하여 핵심과제에 대해 집중하여 성과를 만들어내는 체계가 필요하다. 또한 기관장들의 관심도에 따라 추진 성과의 차이가 클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실행과정에서 협업기관의 기관장들이 참여하는 모니터링 체계 마련도 중요하다.

미래의 변화에 공공기관들의 변화를 통한 대응은 필수조건이라고 보여지며, 변화수단으로써 협업을 통한 국민서비스 가치 제고 및 생산성 향상으로 신뢰받고 사랑받는 공공기관이 구현되길 기대하여 본다.

CONTENTS

1. 4대 사회보험 체납사업장 자격정리 시스템 구축_국민건강보험공단	1
2. 스포츠강좌이용권 공급자격 원스톱 조회서비스 도입_국민체육진흥공단	7
3. 친수공간을 활용한 관광 및 문화레저 활성화_한국수자원공사	13
4. 발전분야 중소기업 에너지진단 서비스 제공_에너지관리공단	25
5. 중소기업에 대한 국가 R&D과제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체계 구축_기술보증기금	35
6. 지역중소기업 사업기반 마련을 위한 지방이전 공공기관 간 협력모델 구축_중소기업진흥공단	49
7. 찾아가는 벤처기업 주식업무 교육·컨설팅_한국예탁결제원	57
8. 유망 콘텐츠기업, 생존을 넘어 성공을 꿈꾸다!_중소기업진흥공단	65
9. 사물인터넷(IoT)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추진사업 연계_한국인터넷진흥원	73
10. 내수·수출초보기업 수출지원 융·복합화_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81
11. 희망사다리장학생과 우수중소기업 간 맞춤형 구인·구직 서비스 제공_한국장학재단	89
12. 의료관광 전문인력 고용 활성화를 위한 인력매칭 시스템 구축_한국보건산업진흥원	99
13.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국악공연_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07
14. 산업단지 미활용에너지 공동이용 확대 및 에너지쉐어링 확산_에너지관리공단 ·	113
15. 민간주거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자금보증 프로그램 마련_한국시설안전공단 ..	121
16. 학자금 지원 부정수급 사례방지를 위한 소득·재산 조사시스템 구축_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129
17. 안전한 전통시장 만들기_한국시설안전공단	137
18. 승강기 안전부품 인증업무 협업 강화_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151
19. 가스터빈 정비예비품 공동운영을 통한 원가 절감_한국남부발전(주)	155

국민건강보험공단



01

4대 사회보험 체납사업장 자격정리 시스템 구축

4대 사회보험 체납사업장 자격정리 시스템 구축

요 약

□ 2011년 4대 사회보험 징수 통합

- 보험료 징수는 건강보험에서, 자격·부과는 각 공단에서 담당하여 동일한 사업장이 보험별로 자격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사례 발생
- 사업장 폐업으로 건강보험은 탈퇴처리(고지서 발송 중단), 연금 및 고용·산재는 가입상태로 관리(폐업사업장에 보험료를 부과)하여 비용 및 행정력 낭비

□ 각 공단 간 쌍방향 실시간 자료교환 시스템 구축으로 상호 자격 자료 일치 추진

- 불필요한 (독촉)고지서 발송 비용 연간 약 1억 2,800만원 절감 및 납부 독려, 체납처분 등의 행정력 낭비 방지
- 불필요한 고지서·독촉 안내문 발송 및 납부독려 등에 따른 국민불편 해소

■ 황당한 국민연금 고지서를 받은 A씨의 사연

제주에 사는 A씨는 얼마 전, 4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운영하던 농장(사업장) 앞으로 국민연금 46개월분 1,614만원이 체납되었으니 보험료를 납부하라는 황당한 고지서를 받았다.

사업장에서 탈퇴신고를 할 때 건강보험은 탈퇴신고를 하였으나 다른 사회보험(연금·고용·산재)은 신고를 하지 않거나 혹은 건강보험에는 직권 탈퇴 처리가 되어 있으나 타 보험에는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일까?

2011년 1월부터 4대 사회보험 징수 통합이 시행됨에 따라 공단별로 사업장(가입자)에 발송하던 고지서 네 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한 장으로 한번에 발송되어 각각의 고지서 수령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행정비용도 절감할 수 있어 대국민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4대 사회보험의 징수부문만 통합된 상태에서 각 공단 사업장 가입요건이 상이하고, 사업장에서 탈퇴신고를 할 때 어느 한 보험만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 4대 사회보험 징수 통합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체계 구축

이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게 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부터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과 협력하여 대량자료의 적기 처리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4대 사회보험 체납사업장 자격정리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게 되었다.



‘4대 사회보험 체납사업장 자격정리 시스템’이란 징수 추진 과정에서 각 공단별 보험 가입 정보가 서로 다른 사업장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각 공단(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 전용 전산망을 통해 자격확인을 요청한다. 이를 요청받은 각 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업장 정보를 확인 후 사업장 정보를 정리하고 회신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 국민은 편하게! 업무는 효율적으로!

4대 사회보험 체납사업장 자격정리 자료교환 시스템 구축을 통해 사업장의 착오로 신고된 사업장 정보를 수작업으로 처리되던 부분을 전산화하여 대용량 자료의 처리, 자료선정 시점의 차이로 인한 부정확성 감소, 불필요한 행정비용의 절감 등의 성과가 기대된다. 부수적으로 공용 전자문서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고 전용 전산망을 통해 자료 교환이 이루어져 개인정보보호

에서도 진일보한 성과를 낼 수 있게 되었다.

공단은 2014년 12월에 이 시스템을 통해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과 자료를 교환하여 전국의 9,290개소의 폐업한 사업장을 탈퇴처리하였다.

이 시스템으로 인해 연간 (독촉)고지서 발송 비용만 약 1억 2,800만원이 절감될 수 있음은 물론 비용 외에도 체납처분 및 고지서 발송 등의 업무가 절감됨으로써 부가적인 행정낭비 방지 등 간접적인 비용 절감효과도 기대된다.

또한 국민 불편이 해소되는 효과도 있다. A씨는 B영농조합법인의 대표자이다. 아버지가 운영하던 농장을 물려받았으나 더 이상 농장을 운영하지 않아 국세청에 폐업신고만 해놓은 상태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직권으로 탈퇴처리를 하여 건강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았으나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는 탈퇴처리가 되지 않아 국민연금 46개월, 1,614만원, 고용보험 45개월, 61만원, 산재보험 42개월, 50만원의 체납이 발생한 상태였다. 존재하지 않는 사업장에 독촉 고지서 등이 나가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자격정리 자료교환 시스템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측에 자료 확인 요청을 하였고 각 공단에서 확인 후 탈퇴처리를 하여, 착오로 부과된 체납 보험료를 신속하게 소멸 처리할 수 있었다. 모든 4대 사회보험공단에 탈퇴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탈퇴처리 정보 공유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 향후 발전 방안

이 시스템을 통해 앞으로는 자료 확인 유형을 확대할 예정이다. 사업장 폐업에 따른 탈퇴처리뿐 아니라 사업장의 대표자 변경 등의 신고를 한 개 공단에만 신고하고 다른 공단에는 신고하지 않아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통합은 징수분야에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험별 가입자의 자격관리 업무는 각 공단에 그대로 있으므로 사업장에서 신고한 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현재도 4대 사회보험을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절차와 규정이 정비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업장 담당자가 실수로 신고를 잘못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렇듯 사업장의 사용자 정보가 다르게 되면, 보험료 징수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선 지사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납부의무자 정보 불일치 자료를 추가로 교환하는 방향으로 이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앞으로의 방향을 논의 중에 있다. 정보 불일치 자료 교환을 통한 정리로 4대 사회보험 징수 통합의 취지를 살리고 업무는 효율적으로 처리하면서 국민들에게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단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4대 사회보험 기관 합동 업무회의





02

스포츠강좌이용권 수급자격 원스톱 조회서비스 도입

스포츠강좌이용권 수급자격 원스톱 조회서비스 도입

요 약

- 신속·효율적인 자격검증 체계 구축을 통한 국민편익 향상
 - [문제점]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시, 수급자 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 절차가 복잡하여 카드발급까지 장시간 소요
 - [협업을 통한 불편해소] 체육공단과 보건복지정보개발원 DB 연계
 - 서비스 대기시간 단축을 위한 시스템 실시간 연계
 - 수급증명, 가족관계 확인 등 증빙서류 제출 제로화
 - 수시로 변동되는 자격정보 실시간 반영
 - [협업결과] 수혜자 편의성 향상, 업무효율성 향상, 재정투명성 향상

■ 기다리고 기다려도 대답 없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충북 제천에 사는 박모 씨는 기초생활수급비로 혼자 장애를 가진 삼남매를 키우며 생활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다른 아이들처럼 배우고 싶다는 미술·음악·스포츠 등 학원에 보내줄 여력이 없었다. 특히, 겨울방학이면 나가 놀 곳도 없어 늘 집에만 있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박모 씨는 우연히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저소득층 유·청소년에게 태권도 등 스포츠강좌의 수강료를 지원해 주는 ‘스포츠강좌이용권(스포츠바우처)’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집에만 있는 아이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겠다는 생각에 서둘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하였다. 마음을 졸이며 기다리는데 며칠이 지나서 시청 공무원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수급자격 확인을 위해 장애아동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챙겨서 시청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네? 별도의 서류를 발급받아서 시청에 제출해야 한다고요?”

“네,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확인이 되어야 스포츠강좌이용권을 발급받을 수 있어요.”

박모 씨는 장애를 가진 아이 세 명을 데리고 여기저기 관공서를 찾아다닐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한숨이 나온다.

■ 7일 이상 걸리던 수혜자격 검증을 공공기관 협업으로 추가서류 없이 신청 즉시 확인 가능

그동안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자의 불편사항인 증빙서류 제출은 공단의 신청정보와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가 실시간으로 연동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였다. 이로 인해 수혜자격 확인에 약 7일 이상이 소요되었고 결국 서비스 제공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 특히, 생업에 종사하거나 박모

씨처럼 장애아동을 키우고 있는 부모들에게는 관공서를 찾아가는 시간을 내는 것조차 쉽지 않아 서비스를 포기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손을 잡았다. 두 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함으로써 빠르고 간편하게 수급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원스톱(One-Stop) 수급자격 조회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 협업을 통한 국민불편 해소



하지만, 두 기관의 정보를 연계하는 과정이 당초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았다. 개인정보보호, 중앙행정망 연계에 따른 비용 문제, 시스템 안정성 우려 등 여러가지 어려움이 발생했지만, 스포츠강좌이용권을 통해 꿈과 희망을 키울 아이들을 생각하며 협업기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수차례 협의해 나

갔다. 그리고, 마침내 12월 공단-보건복지부-행정자치부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연계되어 '수급자격 스포츠강좌이용권 조회서비스'가 개시되었다.

이를 통해 당초 기대했던 수혜자격 실시간 확인뿐만 아니라 수혜자의 자격변동 정보도 즉시 확인이 가능해져 지자체 공무원은 행정업무에 따른 부담을 많이 덜게 되었고, 부적정 수급으로 인한 복지예산 누수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되었다.

▼ 협업의 효과

구 분	주 요 내 용
편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스톱(One-Stop) 자격검증 서비스 실현 추가서류 발급 및 제출의 번거로움 NO! 서비스 대기시간 20일 단축
효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신청자 민원 18% 감소 업무처리 효율화 공무원 만족도 95점
투명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적격자 서비스 부정수령 가능성 원천 차단 수혜자격 변동내역 즉시 확인으로 복지예산 누수 방지
지역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4년 동기 대비(1월) 서비스 사용액 350% 상승 전년 대비 이용가능 체육시설 15%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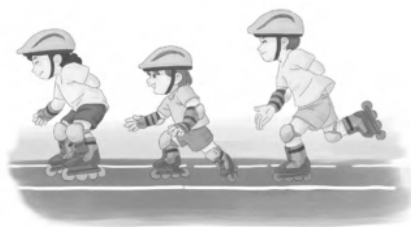
■ 더 많은 아이들에게 스포츠를 통한 꿈과 희망을...

이제 박모 씨는 증빙서류 발급·제출 때문에 한숨 쉬지 않아도 된다. 원스톱 수급자격 조회 서비스가 도입되어 과거 7일 정도 걸리던 자격검증이 이제는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모 씨는 이제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서 바로 본인과 자녀의 수급자격을 조회할 수 있게 되었다. 덕분에 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시기도 빨라졌다. 작년에는 2월이 지나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이용할 수 있었는데 올해는 겨울방학이 시작되는 1월부터 인라인 스케이트 등 아이들이 좋아하는 스포츠강좌를 수강할 수 있게 되었다.

박모 씨는 최근 국민체육진흥공단에 감사의 인사를 보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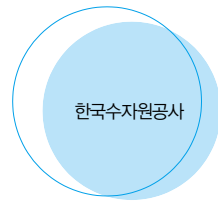
“장애를 핑계로, 춥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하던 아이들에게 스포츠강좌를 수강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올해는 실시간 자격검증 서비스를 통해 시청에 방문하지 않고도 클릭 한번으로 신속하게 자격 확인이 되어서 좋았습니다. 빨라진 절차 덕분에 1월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올해 둘째가 LA 스페셜 올림픽에 국가대표로 참가하는데 빠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덕분에 동계훈련비 걱정을 덜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많은 아이들이 더 큰 희망을 꿈꿀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함께 합니다!

* 본 그림은 아이들을 위해 실제 인물사진을 삽화로 재구성하였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강좌이용권 수급자격 원스톱 조회서비스는 박모 씨의 사례와 같이 체육활동을 하고 싶은 더 많은 아이들에게 스포츠를 통해 꿈과 희망을 줄 수 있게 되었다.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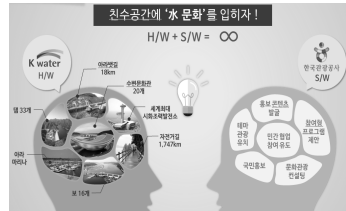
친수공간을 활용한 관광 및 문화레저 활성화

친수공간을 활용한 관광 및 문화레저 활성화

요 약

□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관광공사 및 51개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업체가 참여하여 전국 친수공간에 ‘水문화’ 확산

- **[협업]** 지자체는 친수공간 규제개혁 및 문화행사 발굴, 공공기관은 관광지원 공유 및 관광 콘텐츠 공동 개발, 지역 문화단체는 정부지원사업 공동 개발, 민간기업은 관광레저 프로그램 참여 및 레저문화 확산 등의 업무 담당



- **[성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관광공사 및 51개 지자체, 민간기업 등이 참여한 포괄적 협업으로 33개 댐, 20개 수변문화관, 아라뱃길, 시화호



등의 다양한 수변 인프라에 새로운 물의 가치를 담은 ‘水 문화’ 확산 - 신개념 야외체험학습 아웃도어에듀케이션, 시화호 융합형 글로벌 관광 벨트 ‘시화나래’, 서해5도와 아라뱃길을 잇는 문화관광복합센터,

지역특색의 119개 문화·관광·레저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친수공간에 새로운 물의 가치 확산

- **[효과]** 친수공간 관광·문화·레저 활성화로 방문객 9,600천명, 지역경제 파급효과 약 3,000억원, 고객만족도 1.5배 증가 등의 성과 창출

중3 아들이 ‘제주도 단체수학여행’ 안내장을 가져왔다. 학부모 A씨는 덜컥 겁이 났다. 학창시절 친구들과의 특별한 추억 쌓기에 도움이 될 줄 믿으면서도, 지난해 세월호의 비극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마음이 불편하고 무거웠다. 학부모 모임에서 들은 미국의 야외체험학습 프로그램 얘기가 기억났다. ‘우리에게 왜 그런 좋은 교육레저 프로그램이 없지?’

“Outdoor Education”은 이런 걱정을 더는 새로운 방안을 알려준다. “Outdoor Education”은 ‘요트세일링, 캠핑, 자전거’ 등의 풍부한 교육레저 인프라를 활용한 선진국형 교육레저 프로그램으로, K-water와 한국관광공사가 아라뱃길에서 수변공간 문화레저 활성화 프로젝트로 함께 추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다.

지난해(2014년) 두 차례의 시범운영이 있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이 프로그램을 얼마나 반기고 또 마음에 들어 하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금년에는 교육청과 인근 중고등학교의 협조를 얻어서 정규 학과수업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K-water의 “Outdoor Education”은 21세기 한국형 체험학습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한다.

■ 수변공간 친수가치에 대한 국민적 요구 증대

댐을 건설, 관리하고 수돗물을 판매하는 K-water가 왜? 관광과 문화, 레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을까요?

소득이 늘어나면서 국민들은 삶의 질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고,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나들이 가는 모습이 일상의 풍경으로 익숙해지면서 여가를 즐기는 장소로 수변공간의 활용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 나날이 커져갔습니다.

불거리, 즐길거리에 목말라하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혁신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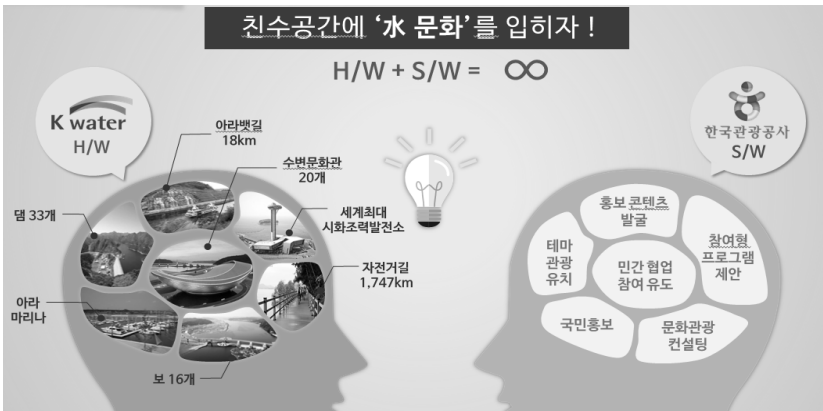


“수변공간에 水문화를 입히자!”

전국에 33개의 댐과 16개의 보를 비롯한 풍부한 수변 인프라를 가지고 있지만 관광이나 문화, 레저사업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K-water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분야 국내 유일의 전문 공기업인 한국관광공사와 손을 맞잡았습니다.

‘친수공간에 水문화를 입히자!’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시너지를 창출할 K-water의 하드웨어와 한국관광공사의 소프트웨어의 행복한 융합이 시작 된 것입니다.



1:1 협업에서 포괄적 협업으로 진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추진할 다양한 水문화 활성 프로그램들은 여러 이해 관계자들의 긴밀한 협조 없이는 추진하기 힘든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K-water와 한국관광공사의 1:1 협업은 자연스럽게 51개 지자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포괄적 협업으로 진화하게 되었습니다.

지자체는 친수공간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문화행사를 발굴했고, 민간기업은 관광레저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영에 참여했으며, 코레일 관광개발과 같은 공공기관은 관광자원을 공유하고 관광상품을 공동 개발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지역 문화예술단체도 정부지원사업을 공동개발하고 지역별 테마행사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 인식의 벽을 깨고 ‘水문화’ 밭그림을 그린다.

협업에 참여하는 각 주체별로 그 수만큼이나 다양한 이해관계가 존재하다 보니 인식의 벽을 허무는 것이 이번 협업 프로젝트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애로사항	극복과정	극복결과
 <p>K-water 직원들의 문화관광 인식 부족 (업무 부담 가중)</p>	<p>내부직원 공감대 형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water CEO의 대국민 서비스 경영선언 ('14.1) ✓ 관광공사 - 지자체 - 민간 참여 토론회 ('14년, 6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water 직원 인식전환, 능동적 업무추진 ✓ 자발적 지역사회 협업 콘텐츠 발굴 · 시행 (MOU 26회 체결)
<p>민간기업</p> <p>수변공간 규제 완화 필요</p>	<p>지자체 · 민간 참여 규제개혁 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개혁 T/F 운영('14.4), 내부규제 우선 개선 ✓ 외부규제는 정부의 민포합동 규제개선 추진단 협의 ·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개정 ('14.12, 하천내 휴게음식점, 레저시설 허용)
<p>방문객</p> <p>볼거리 · 즐길거리 편의시설 미흡</p>	<p>'水 문화' 확산 운동 전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 70명 외 대학생 · 주부 서포터즈 400명 ✓ 설문조사, 인터뷰 → 고객 니즈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의시설 개선 ✓ 범용지원 ✓ 버스노선 신설  <p>담 경관개선</p>
<p>지역사회</p> <p>일회성 이벤트화 우려</p>	<p>지역과 끊임없는 소통 노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문위원회(5개 거점 42명 지역전문가 참여) ✓ 네이밍위원회(12개 기관), 정책협의회(4개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 공공기관 · NGO가 공감하는 '水문화' 콘텐츠 성공 추진 * 4개 Killer Contents

K-water는 CEO를 중심으로 내부의 변화의지를 먼저 일깨워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면서 정부, 지자체와의 규제개혁 논의를 통해 하천점용허가 세부 기준을 개정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대학생, 주부 서포터즈를 통해서도 水문화 확산 운동을 전개해 나갔으며, 지역과는 끊임없이 소통함으로써 지자체, 공공기관, NGO가 모두 공감하는 水문화 콘텐츠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水문화의 밭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 水문화 확산을 위한 Killer Contents를 발굴하다.

K-water와 한국관광공사, 51개의 참여기관이 함께 협업하여 수변 인프라 각각의 특성을 살린 창조(크리에이션), 융합(컨버전시), 유통(브릿지)이라는 水문화 3대 키워드를 통해서 4개의 킬러콘텐츠를 발굴하였습니다.

‘水 문화’ 3대 Keywords 4개 Killer Contents 발굴



■ Killer Contents가 만들어낸 新개념 水문화 확산

1. (창조) 선진국형 체험학습프로그램 “Outdoor Edu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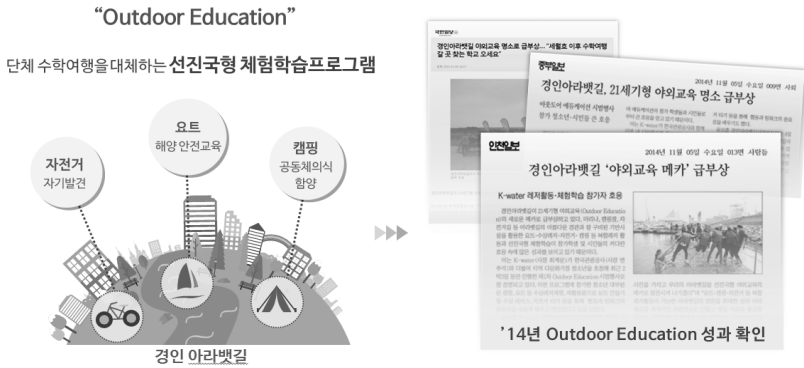
첫번째, 킬러 콘텐츠는 ‘아웃도어에듀케이션’입니다.

경인아라뱃길에 조성된 해양레저 인프라를 활용해서 K-water, 한국관광공사, 경기요트협회, 5개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국내 최초 복합 레저형 체험 학습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세월호 참사 이후 기존 단체 수학여행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안전교육이 강화된 선진국형 체험학습 프로그램입니다.

2014년에는 사회공헌과 연계해서 다문화가정, 소외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하였으며, 예상대로 참여 청소년들의 반응은 아주 뜨거웠습니다.

이를 계기로 2015년에는 교육부 및 지역 중, 고등학교와 협력하여 기존 수학 여행을 대체하는 정규과정으로 편성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창조) 지역 사회와 공동 개발한 水문화 확산 프로그램 “테마가 있는 水문화 이야기”

두번째 킬러 콘텐츠는 지역사회와 함께 하였습니다.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5개의 자문단을 운영하면서 분야별 42명의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각 지역에 조성되어 있는 친수 인프라를 활용해 지역별 특색과 다양한 체육, 문화, 관광활동을 연결함으로써 테마가 있는 ‘水문화 이야기’를 발굴하였습니다.

두번째 킬러 콘텐츠를 통해 교육부 지원으로 진행된 창의 과학 체험교실 등 정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23개의 정부지원사업을 이끌어냈고, 강정 고령보에서 열린 현대 미술제와 같이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90개의 문화행사와 지역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아라문화축제 등 각 지역 친수공간의 특색을 살린 지역테마 관광상품을 개발 운영하였습니다.

<p>정부지원사업 (23개)</p>	 <p>창의과학 체험교실(교육부)</p>	 <p>자전거 안전교실(행자부)</p>	 <p>요트아카데미(해수부)</p>
<p>유관기관 연계행사 (90개)</p>	 <p>가야금 재능인재 양성(고령군)</p>	 <p>강정 현대미술제(달성군)</p>	 <p>아라 풀길 조성(교육기관)</p>
<p>지역테마 관광상품 (6개)</p>	 <p>아라문화축제(아라벳길)</p>	 <p>수상레저(안동댐)</p>	 <p>오토캠핑(김천 보항댐)</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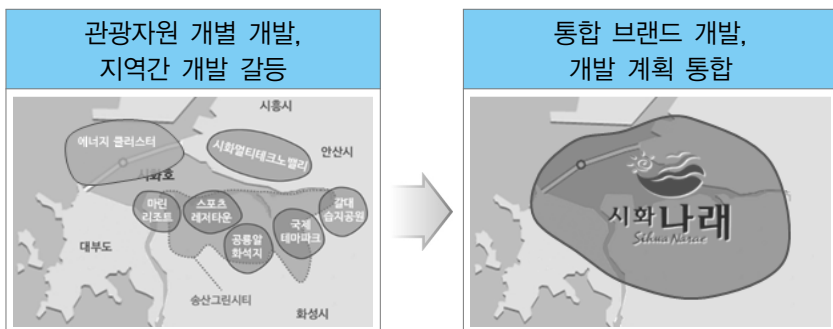
3. (융합) 시화호 관광자원을 융합한 통합형 관광 브랜드 “시화나래”

세번째 킬러 콘텐츠는 ‘시화호 글로벌 통합 브랜드化’입니다.

시화호는 과거 환경오염의 대명사로 불리던 오명을 벗고 환경복원의 상징으로 다시 태어난 대한민국 대표 수변자원입니다.

최근에는 시화멀티테크노밸리, 송산그린시티 등 수변도시와 신재생에너지의 대표명소로 자리잡은 세계 최대규모의 조력발전소, 갈대습지공원, 국제테마파크 등 시화호를 둘러싼 다양한 산업 및 관광 자원들이 개발되고 있지만 융합의 시너지를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시화호라는 거대한 수변자원을 세계적인 친수, 해양레저 관광 벨트로 만들기 위해 K-water를 중심으로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 12개 그룹이 참여하여 시화호 글로벌 통합 브랜드인 ‘시화나래’를 선포하고 지역의 관광자원을 묶어 융합형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K-water는 시화나래를 지역협력의 대표 사례로 관리해서 시화호가 세계 최고의 친수관광 및 문화레저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역 및 기관 간의 협업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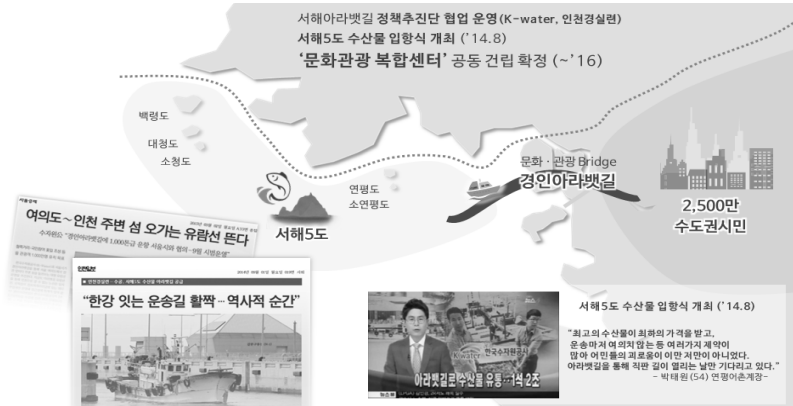
4. (유통) 서해도서와 2,500만 수도권 시민을 연결해 주는 “서해·아라뱃길 문화관광 복합센터”

마지막 킬러 콘텐츠는 ‘서해5도와 아라뱃길을 잇는 문화관광 복합센터’입니다.

북의 도발과 중국의 불법조업으로 안보에서나 판로개척 면에서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는 서해 5도와 수도권 접근성이 높은 아라뱃길의 인프라를 접목시켜 풍부한 수산, 관광자원과 2,500만 수도권 수요층을 연결해 주는 대표적인 지역 살리기형 문화관광 프로젝트입니다.

서해 5도의 경제를 살리고 수도권 시민들에게는 질 좋은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K-water는 인천시, 옹진군, 인천경실련 등과 함께 지난해 8월 아라뱃길을 통해 서해 5도 수산물을 김포터미널로 들여와 판매하는 ‘서해5도 수산물 입학식’을 개최하여 서해 5도 어민들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현재 2016년 개장을 목표로 ‘서해5도 문화관광 복합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문화관광의 메카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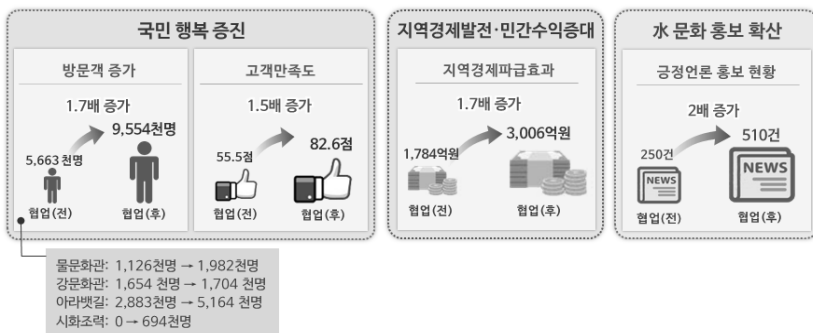


협업을 통한 사고의 발상 전환으로 소중한 성과를 거두다.

K-water와 한국관광공사, 51개 참여기관들은 이번 협업을 통해서 사고의 전환을 이루고 소중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춘 콘텐츠 개발을 통해 다양한 수문화 활성 프로그램은 운영함으로써 협업 전과 대비하여 방문객이 1.7배 증가하였으며 고객만족도는 1.5배 높아졌습니다.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협업 전과 대비 약 1,222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러한 노력과 성과는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긍정적으로 보도되어 국민들에게 수변공간의 문화적 가치를 알리는 단초를 마련하였습니다.



■ 끊임없이 도전하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K-water는 새로운 시도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지역테마 글로벌 관광상품의 개발을 확대하고 교육레저 프로그램의 확산에 매진하면서 지역 명소화 사업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중단 없는 노력을 통해서 연간 방문객 2,000만명, 지역경제 파급 효과 6,000억원, 수변공간에 해외관광객 400만명 유치라는 새로운 목표를 향해 도전하겠습니다.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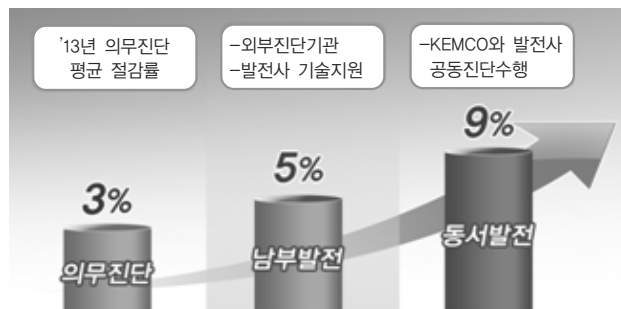
발전분야 중소기업 에너지진단 서비스 제공

발전분야 중소기업 에너지진단 서비스 제공

요 약

□ 에너지관리공단과 발전사의 전문성을 융합한 맞춤형 진단서비스 제공

- 발전분야 중소기업 에너지 이용 효율 개선을 통한 경쟁력 제고
 - 연간 약 8억원 에너지 비용 절감
 - 발전 중소 협력사 160억원의 매출 증가 효과
 - 전 사업장으로 확대시 133억원의 에너지 비용 절감
- 발전분야에 특화된 에너지 효율화 전문인력 육성으로 지속가능한 지원 체계 구축
-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동반성장 기반구축으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강화
 - 투자활성화를 위한 자금지원 및 지역 내 ESCO 업체 연계
- 협업기관 간 보유기술을 융합한 맞춤형 진단으로 시너지효과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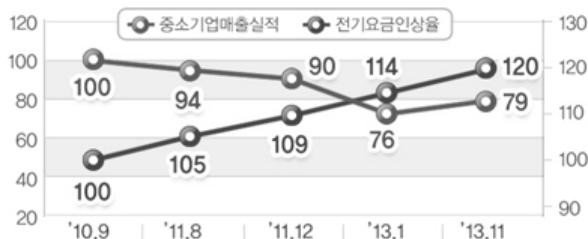


■ ‘내 줌 살리도!’— 연이은 전기요금 인상에 중소기업들 울상

동서발전에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협력업체를 운영 중인 A씨는 요즘 고민이 부쩍 늘었다. 금속·철강업계가 불황과 실적 부진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데다 설상가상 그동안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책정됐던 전기요금마저 큰 폭으로 오르기 시작하여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몇 년간 여러 차례 요금인상으로 당분간 추가 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A씨의 회사는 생산설비의 특성상 전력을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어 한숨은 늘어만 간다.

발전사 협력업체는 단조, 가공, 열처리 등의 금속 제조업이 대부분이며 에너지 비용이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대표적인 업종이다. 매출액의 평균 10% 최대 30% 이상을 에너지 비용이 차지하고 있다.

▼ 매출감소, 전기요금 상승으로 중소기업 이중고



[출처] 한국은행, 중소기업매출실적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매출은 감소하고 생산원가까지 높아지다 보니 회사의 경영난은 갈수록 악화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런 절망적인 여건 속에서 A씨가 직원들과 함께 고심 끝에 찾아낸 해결책은 바로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이는 것이었다. 원재료 값과 전기요금은 정해져 있으므로 설비의 이용효율을 높이고, 운전 방법을 개선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A씨는 진단 전문기관에 컨설팅을 의뢰하자니 비용이 부담되고 스스로 해결하자니 전문인력도 없어 막막할 따름이었다.

그렇게 발만 동동 구르고 있던 와중에 때마침 동서발전에서 중소협력사 간의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였고 A씨는 동서발전측에 애로사항과 함께 에너지 절감방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였다. 동서발전은 발전분야의 전문기술도 보유하고 있고 협력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의지가 충만하였다. 하지만 전문적인 진단기법과 노하우가 필요한 에너지진단 분야에는 취약하여 에너지관리공단에 협조를 요청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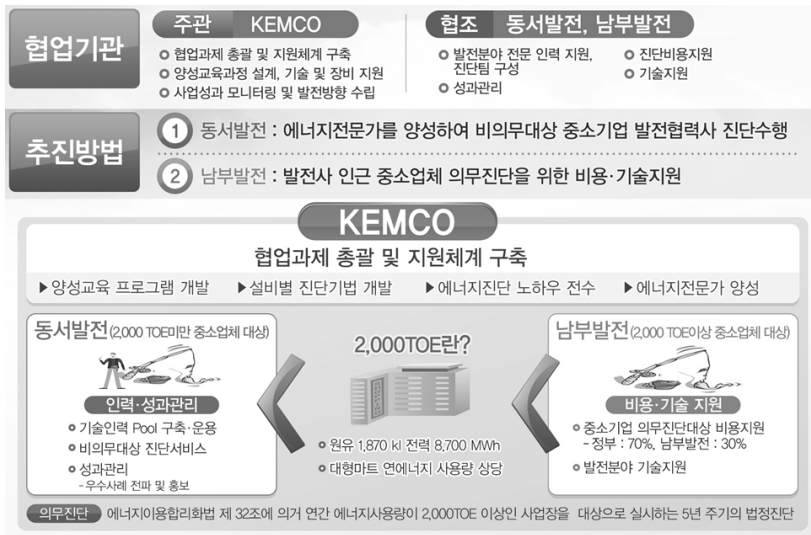
■ 가뜰이나 힘든데 진단비용까지! 중소기업 살 길이 막막하네~

남부발전 인근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B씨의 회사는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2,000toe 이상인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으로 5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한다.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과 에너지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에너지진단이 필요하긴 하지만 계속되는 전기요금 인상과 매출부진으로 경영난이 계속되는 상태에서 진단비용은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다. B씨는 고심 끝에 남부발전에서 주최하는 경영진과의 소통의 자리에서 회사의 애로사항을 이야기하였고 남부발전은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에너지관리공단(KEMCO)을 찾아 갔다.

■ 발전사 중소기업 고충해결을 위한 어벤져스 출범!

양 발전사로부터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접한 에너지관리공단(KEMCO)은 흔쾌히 발전사와 머리를 맞대고 모두가 윈윈(win-win)하는 상생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에너지관리공단은 30년 이상 축적된 에너지진단 노하우(know-how)를 보유한 에너지 전문가이고 발전사는 발전기술의 정보, 인력 및 자금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양 기관의 강점을 살리면 보다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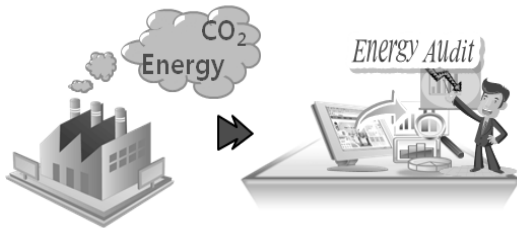


남부발전과는 의무진단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단비용과 기술지원을 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진단비용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에너지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진단비용 보조금 70%에 남부발전측에서 나머지 30%를 지원하여 진단비용 부담을 말끔히 해소했다. 이와 더불어 진단 전문기관의 에너지 진단시 에너지관리공단 전문가와 남부발전 기술전문가를 지원하여 사업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동서발전과는 보다 적극적인 지원방식을 채택하기로 했다. 동서발전 협력중소기업 중 에너지진단 의무화 대상 사업장이 아닌 2,000toe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진단을 실시해 주기로 했다. 에너지관리공단이 동서발전 기술인력을 진단 전문인력으로 양성해 주고, 양성된 동서발전 진단인력이 협력

업체 진단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고기를 잡아 주기보다는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줌으로써 향후 지속발전 가능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협력사업을 설계했다.

■ ‘제5의 에너지’ 발굴은 에너지 진단으로~



미국의 시사 잡지 ‘TIME’은 불, 석유, 원자력, 신재생에너지에 이어 ‘에너지 절약’을 제5의 에너지로 꼽은 바 있다.

에너지 절약은 전체 에너지의 96%를 수입할 정도로 에너지 자립도가 매우 낮은 우리나라가 경제·환경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며, 그 길로 가는 통로는 에너지진단이다.

발전사와 협력중소기업 지속적 상생 협력 체계 구축

에너지진단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KEMCO는 발전사 협력업체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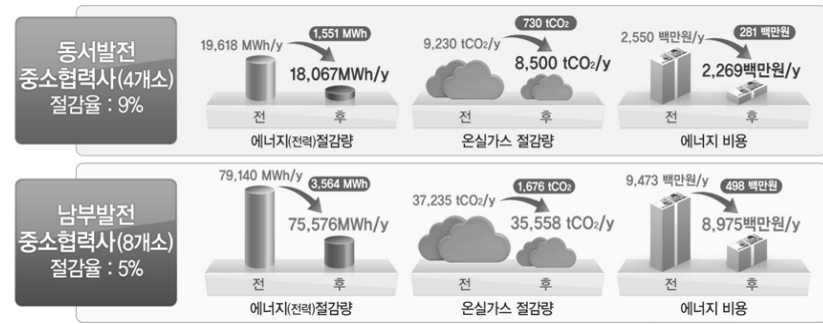
자체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발전사 내부 전문가들에게 진단기술을 전수하고 발전사 전문가와 공동으로 진단을 수행하는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단 전문가를 양성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에너지 이용 효율을 개선할 수 있도록 설비별 진단기법도 개발하였다. 위와 같은 체계적 지원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발전사는 자체 진단역량을 배양하여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에 기술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보다 많은 중소기업에 그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공공기관 손잡으니 웃음 꽃이 활짝 핀 중소기업

에너지진단 서비스를 통해 중소기업은 에너지 이용 효율을 개선하여 생산 원가를 절감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12개 중소기업에 대해 에너지진단을 실시한 결과 5천만원의 비용 지원을 통해 연간 약 8억원의 절감방안을 발굴하였다. 200개 업체로 확대시 연간 133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 순이익이 5%라고 가정했을 경우, 8억원의 에너지 비용 절감은 160억원의 매출이 증대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다.

또한 에너지 5,114 MWh와 2,406 tCO₂의 온실가스를 절감할 수 있게 되어 국가적으로도 에너지 및 온실가스 절감에 기여한 바가 크다.

에너지관리공단의 진단 노하우와 발전사의 발전분야 전문성이 융합되어 나타난 결과이며 양 기관의 장점을 살려 시너지를 창출한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함께 가자~ 중소기업과 상생(相生)협력문화 조성되다

금번 사업으로 발전사와 중소기업 간에는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발전사와 중소기업 간에 소통창구가 마련되었으며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에 기술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협업 전	협업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감소, 전력요금 증가의 이종고로 인한 경영여건 악화 ● 에너지이용효율 개선을 위한 기술인력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전분야 중소기업에 특화된 설비별 진단기법 개발 및 우수사례 발굴 ● 발전사의 자체 진단능력 향상을 통해 지속적인 지원으로 발전사-중소협력사간 상생발전모델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전사와 중소기업간 소통창구 부재로 중소기업 애로사항 해결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전사와 중소기업간 효율개선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속적 소통창구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통을 통한 상생협력문화 조성
<p>“발전분야 뿌리산업 위기”</p>	<p>“발전산업의 동반성장”</p>

에너지관리공단은 발전사 기술전문가의 진단역량을 업그레이드(Up-grade)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기술지원 및 교육을 실시할 것이다. 또한 개선방안이 실제로 이행될 수 있도록 자금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기술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 에너지관리공단과 동서발전, 남부발전 협업

중소기업 에너지진단

협업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p>KEMCO</p> <p>에너지 전문가 에너지절감 노하우 풍부</p> <p><small>※ 35년간 약 2,700여개 사업장 진단 경험</small></p>	<p>발전사</p> <p>발전분야 전문 인력 및 중소협력사 지원예산 보유</p>
--	---

“기업성장을 위해 기술개발이 필요하세요?
이젠, 국가 R&D 성과물의 이전으로
해결하세요”

05

중소기업에 대한 국가
R&D과제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체계 구축

“국가 R&D를 통해 생성된 기술정보와 중소기업들의 기술수요정보의 매칭을 통해 국가 R&D 성과를 확산하고 기술중소기업의 성장을 견인합니다.”

* 기술이전·사업화 포털사이트(Tech-Bridge) : tb.kibo.or.kr

• 제품개발을 추진하다 기술적 난관에 부딪힌 R사

디지털 도어락을 만드는 R사 대표 K씨는 깊은 시름에 잠겼다.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경쟁업체들, 치열한 시장상황, 갈수록 악화되는 영업실적...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했다.

스마트 시대, 모바일 기술을 접목한 신제품을 개발한다면 승산이 있지 않을까? 곧바로 제품개발에 착수했다. 무선 모듈을 장착하고 스마트폰으로 제어가 가능한 어플리케이션도 개발했다. 제품은 성공적이었다.

그런데, 엉뚱한 곳에서 난관에 봉착했다. 다양한 전자부품과 기능을 장착하다 보니 전력 소모량이 생각보다 컸다. 기존의 배터리로는 감당이 어려운 상황... 타개책이 필요했다. 무선충전기술이 대안으로 제시되었지만 내부 역량도 부족하고 딱 맞는 기술을 찾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다.

• 국가 R&D 성과의 이전을 통해 해결하고 성장기로,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이다. 기술보증기금의 ‘테크브릿지(KTMS)’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R사 대표 K씨는 기술보증기금의 ‘테크브릿지’를 통해 어렵지 않게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원하던 기술을 찾을 수 있었다.

또한,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기술이전과 동시에 기술도입 비용과 사업화 자금으로 총 3억 7,200만원을 원스톱(One-Stop)으로 지원받았다.

R사는 제품이 출시되는 2015년에만 20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5년간 약 200억원의 추가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기술, 개방형 혁신의 시대가 도래하다

과거 고도성장기에는 기업 내부의 기술만으로도 시장에서 인정받는 우수한 성능의 제품 개발이 가능했지만, 짧아진 제품의 수명, 기술의 빠른 발전

속도로 과거의 폐쇄형 혁신으로는 기업성장의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외부 기술과 내부기술이 융합되어 발전하는 ‘개방형 혁신’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중소기업도 예외가 아닙니다. “개방형 혁신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도 금융 위주의 정책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은 기술금융 및 기술평가에서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으로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역할과 서비스가 무엇인지 고민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정책의 방향, 기보의 축적된 노하우와 장점, 중소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요구사항 분석을 통해 기보는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R&D의 성과에 주목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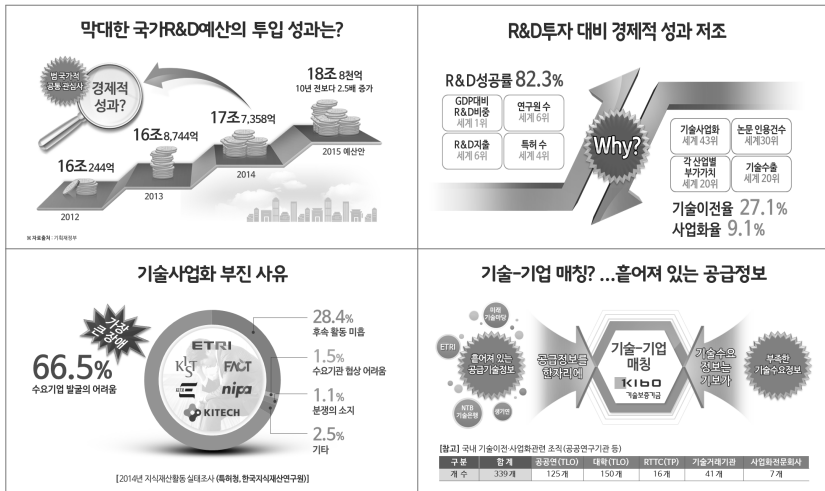
우수한 기술의 도입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여 기업 발전에 드라마틱한 추진력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또 현재 국가 경제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고용 불안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가 R&D 성과물의 사업화 연계는 중소기업의 R&D 역량을 향상시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 국가 R&D 현황과 기술이전·사업화 현실

’15년 국가 R&D 예산은 18조 8천억원으로,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여 10년 전보다 2.5배나 증가하였습니다. 이런 R&D 투자를 통해, R&D 성공률 82.3%, GDP 대비 R&D 비중 세계 1위, 연구원 수 세계 6위, R&D 지출 세계 6위, 특허 수 세계 4위라는 수치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 R&D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실은 기술이전을 27.1%, 사업화율 9.1%로 국가 R&D 성과물의 활용도가 미미한 수준입니다.

특히청에서 대학, 연구소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가 부진한 원인을 조사한 결과 66.5%가 ‘기술수요기업 발굴이 어려움’이라고 응답하였습니다.

기술공급자는 개발기술의 상품·서비스화 등 시장 활용 가능성에 대한 정보와 이해가 부족한 반면, 기술수요자는 필요 기술의 존재 유무와 확보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것입니다.



■ 협업을 통해 기술거래시장에 새로운 시도를 하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 대학, 연구소 등에 흩어져 있는 공급기술정보를 한자리에 모으고, 기보는 부족한 기술수요정보를 조사하여 이를 통합·제공할 수 있는 포털 사이트를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기보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과학기술 정보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특허정보원, 전자통신연구원 등이 함께 모여서 협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기술수요정보, ‘기술보증기금’이라서 가능합니다.

조사된 바와 같이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활성화는 기술수요기업 발굴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 최적화된 기관이 기보입니다. 다음은 기보이기에 가능한 네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 국내 벤처·이노비즈 기업들을 비롯한 대부분의 기술혁신기업들은 기보의 고객으로, 기보는 기술수요를 찾는 데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둘째, 기보는 전국에 52개 영업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1년에 1번 이상 고객들이 우리 기보의 영업점을 방문하게 되고 기술금융과 기술평가의 전문가인 기보 직원들이 기업에 필요한 기술을 자연스럽게 조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기술사업화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기보만의 특화된 전담조직, 즉, 기술융합센터를 서울과 대전에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술융합센터는 영업점에서 조사된 기술수요정보에 대한 기술이전 가능성을 검토하고 기술의 스펙이나 성능 등에 대해 까다롭게 평가하는 등 2차 조사를 진행하며 이런 과정을 통과한 정보만이 기술수요정보로 등록됩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4개 기술융합센터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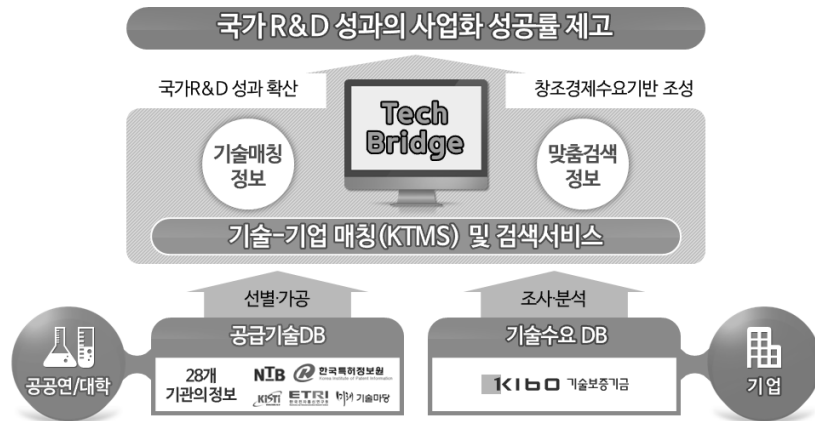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기보는 기술이전부터 기술금융까지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위한 모든 업무를 원스톱(One-Stop)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국내 유일한 기관입니다.

■ 기술사업화 전용 오픈 IT 플랫폼을 구축하다

여러 기관의 공급기술정보를 한 곳으로 모으고 기보에서 수집한 기술수요정보를 하나로 모아서 효과적으로 기업과 기술을 매칭할 수 있도록 구성된 포털 사이트가 필요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기술이전·사업화는 단순한 공급기술 DB 제공, 온라인 거래 플랫폼 구축·제공 등 공급자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기술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직접 온라인에서 검색을 하거나 대학, 연구소 등을 개별적으로 찾아가 수많은 기술 중에서 필요한 기술을 찾기 위해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일부 찾더라도 ‘내가 필요로 하는 기술이 맞는지?’ ‘담당자가 누구인지?’ 등 상당히 불편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기보와 공공기관이 협업한 결과 전용 IT 플랫폼인 「Tech-Bridge」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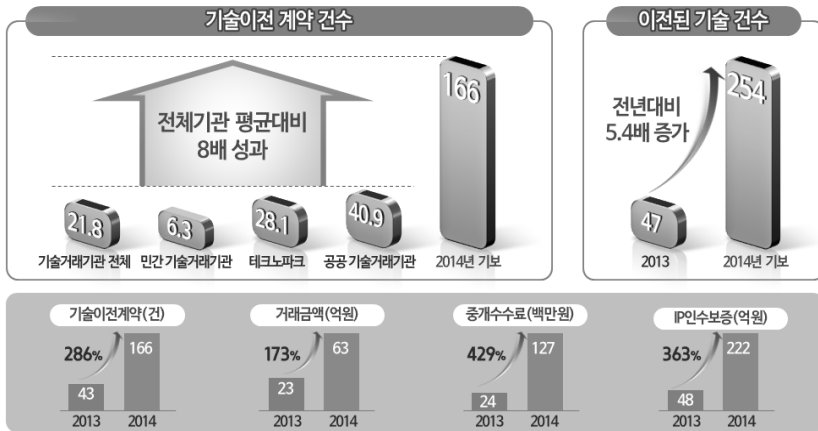


포털 사이트 Tech-Bridge에는 공급기술 DB·수요기술 DB와 더불어 이로서로 매칭시킬 수 있는 매칭시스템 KTMS(KIBO Technology Matching System)를 탑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이전에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기술탐색 시간을 기존 2주 이상에서 즉시 매칭이 가능하도록 획기적으로 단축하였습니다.

또한, 기술이전 설명회, 기술금융 지원정보, 기술이전 성사정보 등 기술이전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술이전부터 사업화를 위한 기술금융 제공까지 완전한 원스톱(One-stop) 지원체계가 구축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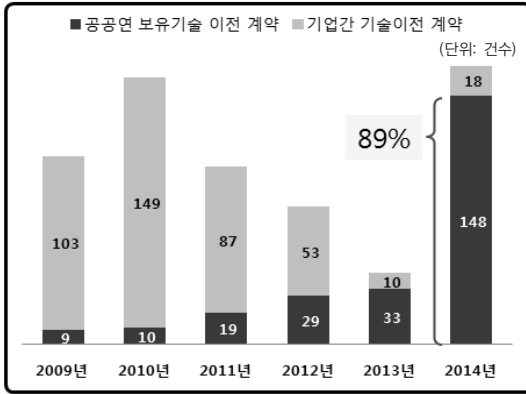
■ 협업의 효과, 기술이전 및 사업화 성과로 빛을 발하다

기보는 2014년, 166건의 기술이전 계약을 통해 254개의 기술을 이전하였습니다. 이는 전국 기술거래기관 평균(계약기준 21.8건)과 비교했을 때 약 8배의 성과이며, 기보 자체적으로는 2013년도와 대비하여 기술계약건수는 약 3.9배, 이전된 기술건수로는 약 5.4배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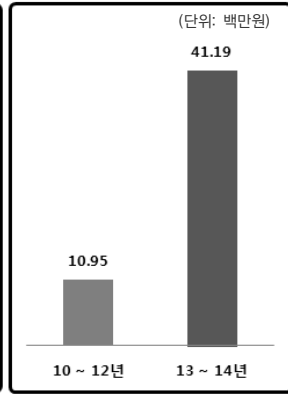


또한, 기술이전 성과의 질적 수준도 향상되었습니다. 대학, 연구소 등 공연구기관 보유기술의 이전계약이 전체의 89.2%를 차지하고, 최근 2개년 기술이전 평균 거래금액이 4,100만원으로 과거 대비 약 4배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우수기술에 대한 기술이전 증가로 분석되며, 거래되는 기술의 질적 수준이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 공공연구기관 보유기술 거래의 증가



▼ 평균 거래금액의 증가



그리고 KTMS 시스템의 우수성은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2014년 11월 「기보 Tech-Bridge를 활용한 해외 기술이전 및 사업화 업무 협약」을 UN 산하기구인 세계지적재산기구(WIPO)와 체결하였고, 시범사업으로 폐수처리기술분야의 기술이전을 추진하기로 하여 2015년 4월 필리핀에서 기술이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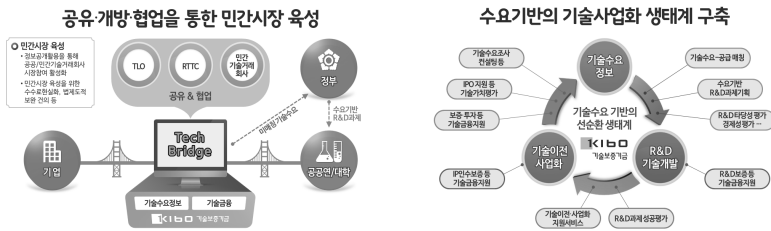
현재, 대상 기업 발굴 및 Tech-Bridge 기술검색을 통해 11개 기업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진출 방안을 논의 중에 있고, 국내 민간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기술거래시장의 동반성장을 꿈꾸다

이번 협업의 최대 성과는 Tech-Bridge가 기보만을 위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 포털 사이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술수요 DB, 공급기술 DB, 기술-기업 매칭시스템(KTMS) 등은 연구소 기술이전 조직, 테크노파크, 민간 기술거래 회사들에 개방·공유하고 협업을 통해 민간 기술거래 시장을 육성, 발전시켜 함께 성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기술이전이 되지 않은 기술수요는 정부를 통해 공공연구소와 대학 등에 제공해서 수요기반의 R&D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개발된 국가 R&D 기술이 곧바로 수요기업으로 이전되어 사업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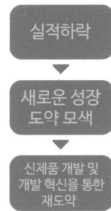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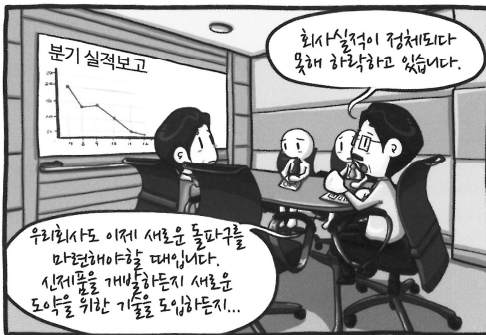
저기에 더해서 우리 기보가 갖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접목해 기술수요기반의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려고 합니다. 기보가 만든 기술수요정보를 바탕으로 수요기반의 R&D 과제를 기획하고, 시장에서 원하는 기술을 개발하며,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추진하여 성공한 기업들이 또다시 국가 R&D 기술을 찾도록 만드는 ‘수요기반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이번 과제의 최종 목표입니다.



앞으로도 경제발전을 위한 기보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며, 국가 R&D 성과의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하여 창업 기회를 확대하고 좋은 일자리도 창출함으로써 민·관이 동반성장하는 모습으로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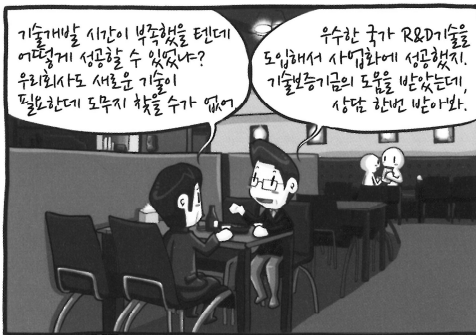


얼마 전 있었던 실적회의에서 따가운 지적을 받았던 신도전씨는 최근 5개년 회사 실적표를 보며 근심에 쌓였습니다.





그 후 신도전씨는 해결책을 찾기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회사에 필요한 기술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창업에 성공한 친구의 말을 들은 신도전씨는 다음날 기술보증기금(기술융합센터)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IP인수보증이란?
 지식재산(IP)의 사업화를 위하여, 매매, 실시권 허락 등의 방법으로 지식재산(IP)의 인수를 추진중인 기업을 지원 하는 보증

대전융합센터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41 3층
 Tel. 042 610-2280

서울융합센터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매현로 16 하이브랜드 리빙관 11층
 Tel. 02-2155-3652

※ 15년 부산, 대구 융합센터 신설예정



KTMS는 연구소 및 대학이 개발한 공급 기술과 새로운 기술을 찾는 기업의 수요 기술을 매칭시켜 최적의 후보군을 추천하는 시스템으로, 단 몇 초만에 수 만건의 공급 기술중에 원하는 기술을 찾아줍니다. 그리고, 기술보증기금은 기술이전 중개뿐 아니라 기술이전에 따른 이전, R&D 및 양산 등 단계별 소요자금을 ONE-STOP으로 지원하여 기술도입에 필요한 자금문제도 해결 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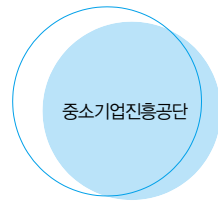
기술보증기금을 방문하고 다음날
신도전씨는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기쁜마음에 힘차게 말했습니다.

그 후 협의를 거쳐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기술이전이 성사되고 단계별로 이전자금,
개발자금, 양산화자금을 적기에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몇 년 뒤 기술의 사업화가
성공하여 회사 매출실적이 점점 오르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림 by 건덕스토리.

기보의 업무안내.
기보는 보증지원, 기술평가,
창업지원/벤처.이노비즈인증 및
기술이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06

지역중소기업 사업기반 마련을 위한 지방이전 공공기관 간 협력모델 구축

지역중소기업 사업기반 마련을 위한 지방이전 공공기관 간 협력모델 구축

요 약

- **진주로 이전한 중소기업진흥공단·LH공사가 중소기업 지원에 협력하다.**
 - [중진공] 정책자금, 컨설팅, 수출마케팅 등 중소기업 지원에 핵심역량을 갖추고 있는 중진공
 - LH공사가 조성하는 LH산단에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 LH공사가 추진하는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성공기업에 대한 후속자금 지원
 - LH공사 관련사에 대해 진단을 통한 자금 지원, 수출마케팅 등 다양한 정책 지원
 - [LH공사] LH산단 입주 중소기업이 중진공 정책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진공에 토지분양대금에 대한 ‘채권양도승낙’
 - LH공사의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성공기업이 기술사업화 및 양산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위해 중진공에 추천

“중소기업 진흥을 통한 국민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중소기업진흥공단
행복한 삶의 터전을 창조하는 초일류 토지주택서비스를 제공하는 LH공사
두 기관이 하나되어 중소기업 애로 해결에 앞장서겠습니다.”

■ 협업의 필요성

1. 문제제기

대구지역의 중소기업 A사는 LH공사 산업단지 입주를 계획하고 산단 토지분양시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정책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중진공을 방문하였다.

기존에 중진공 정책자금을 활용해 오던 A사는 매입할 토지를 담보로 대출할 계획이므로 대출이 수월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대출이 어렵다는 의외의 답변을 듣게 되었다.

이유는 토지대금이 지원되더라도 토지소유권이 기업체로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므로 중진공이 담보설정을 할 수 없다는 데 있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LH공사가 ‘토지분양대금 반환청구 협약’을 중진공에 해주어야 하는데, A사의 사례를 계기로 중진공과 LH공사는 중소기업의 이러한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14. 6월 MOU를 체결함에 따라 LH산단에 입주하려는 중소기업이 토지분양을 받을 때 아무런 문제 없이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2. 협업체계 구축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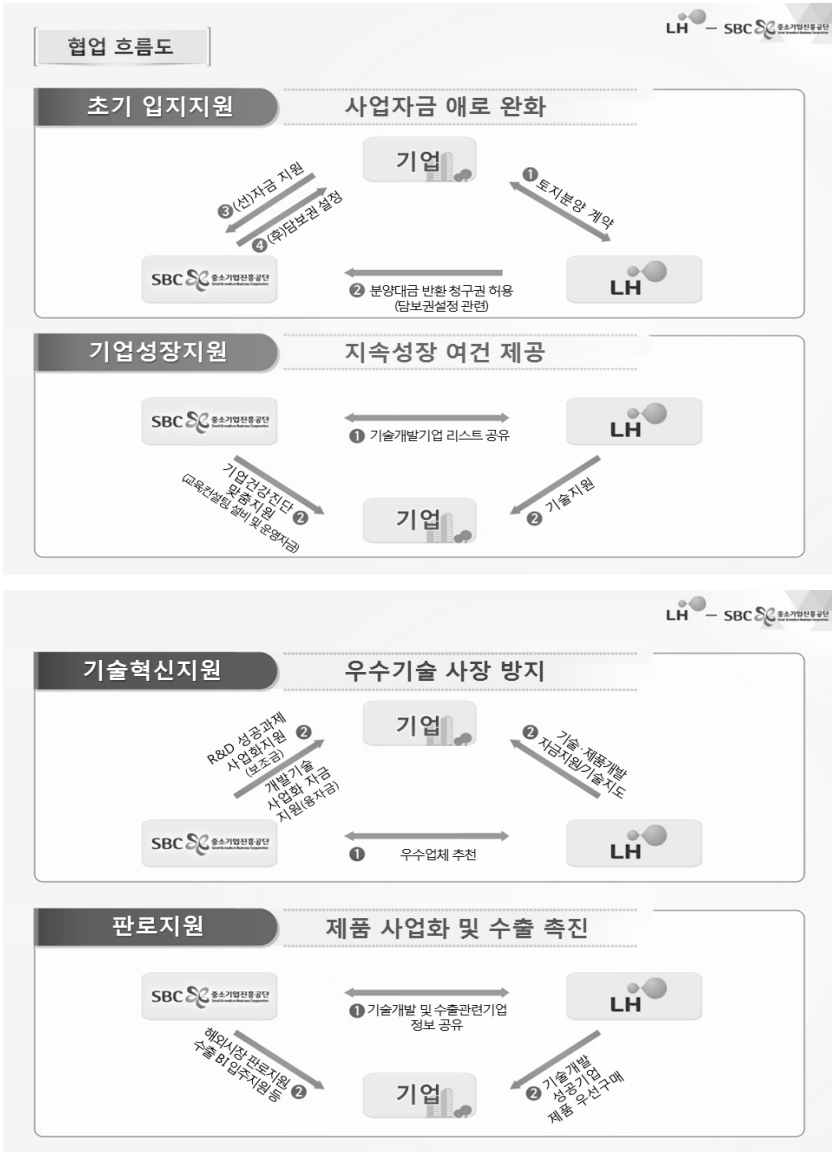
토지분양자금 지원에 애로를 겪던 한 중소기업의 문제해결을 계기로 '14년 3월부터 양 기관은 여러차례의 실무회의와 정보교류를 거쳐 양기관이 갖고 있던 사업 중 '중소기업지원'이라는 공통분모를 찾았고 이후 보다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함께 모색하게 되었다.

그 결과, LH산단 입주희망기업에 대한 입지 지원(자금)은 물론, 양 기관이 각각 추진하고 있는 기술개발관련 사업을 개발단계에 따라 서로 유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협력기로 하였다. 또한 LH와 중진공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판로 지원을 통해서 중진공의 고객사 그리고 LH의 관련사들이 참여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DB 공유 및 사업정보 제공 등의 협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3. 단계별 협업내용

중소기업 지원에 핵심역량이 있는 중진공과 달리 토지와 주택 공급을 위해 설립된 LH는 기업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이외에는 협업의 공통분모를 찾기 어려워 보였다. 그러나 협업준비 과정을 통해 다양한 중소기업과 관련된 LH의 다양한 사업을 알게 되어 협력의 폭도 점차 확대되어 기업의 성장 단계별 지원도 구현이 가능하게 되었다.

사업 초기, 사업장을 마련하는 1단계 '사업기반 지원' 단계를 통해 기업이 LH산단에 입주하고 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2단계 '기업 성장 지원' 단계에서는 지속성장이 가능하도록 교육, 컨설팅, 운영자금, 기술 지원 등 소프트웨어적인 지원을 강화하였다. 3단계 '기술혁신 지원' 단계에서는 양 기관의 기술개발 단계별 지원을 활용토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스스로 기술개발을 통한 성장의 발판을 마련토록 하였다. 최종 4단계 '판로 지원' 단계에서는 기술개발제품의 우선구매, 국내외 시장개척 및 판로 지원을 통해 사업 영역의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기술개발관련 사업의 경우, LH의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서 초기 기술개발 단계에서 지원을 받고, 다음 단계로 중진공의 기술사업화 사업에서 샘플 제작을 지원받도록 하였다. 이후, 중진공의 개발기술사업화 용자를

통해 제품의 양산이 가능하므로 협업을 통해 개발→샘플→양산의 단계별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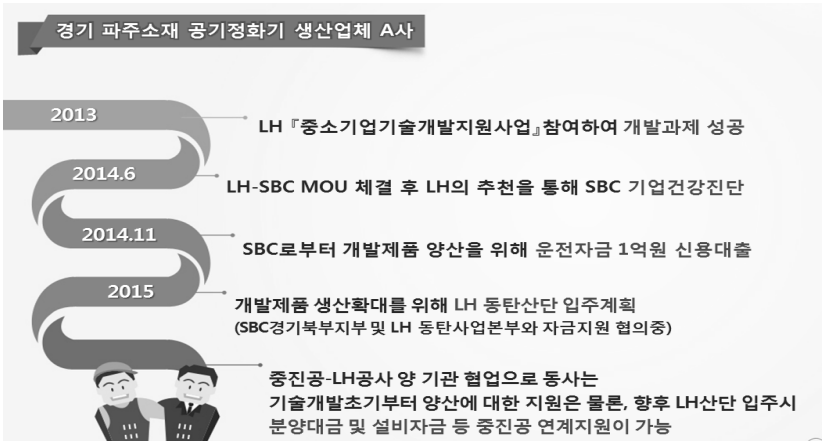
협업과제 주요성과

2014년 6월 20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양 기관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우선, 협업의 발단이 된 LH산단 입주희망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실시하여 9개 기업 112억원을 지원승인하였다. 그리고, LH의 기술개발사업화 사업에서 성공한 기술로 평가된 기업 2개사에 대해 3억원(개발기술사업화자금) 등을 지원하였다.

R&D와 관련하여, 양 기관의 사업을 안내하고 기업체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양 기관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업체에 안내하여 서로의 사업에 관련업체의 참여를 지원하였다.

그 외에도 양 기관이 공동으로 사업설명회를 실시하고 교류함으로써 양 기관의 직원들이 상대 기관의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효과도 큰 소득이었다.

▼ 우수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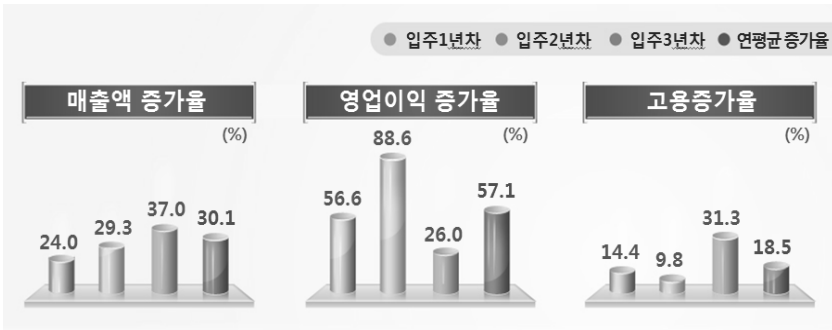
■ 향후 계획 및 기대효과

2014년에 초기 사업으로 실시하였던 초기입지 지원, 기업성장 지원, 기술 혁신 지원 및 판로 지원을 보다 확대하여 협업의 효과를 높여갈 계획이다.

전년도 LH산단에 입주한 9개 업체를 대상으로 산단입주 후 3년간 예상되는 매출, 이익, 고용의 증대효과를 설문해 본 결과, 매출은 30.1%, 영업이익은 57.1%, 고용은 18.5%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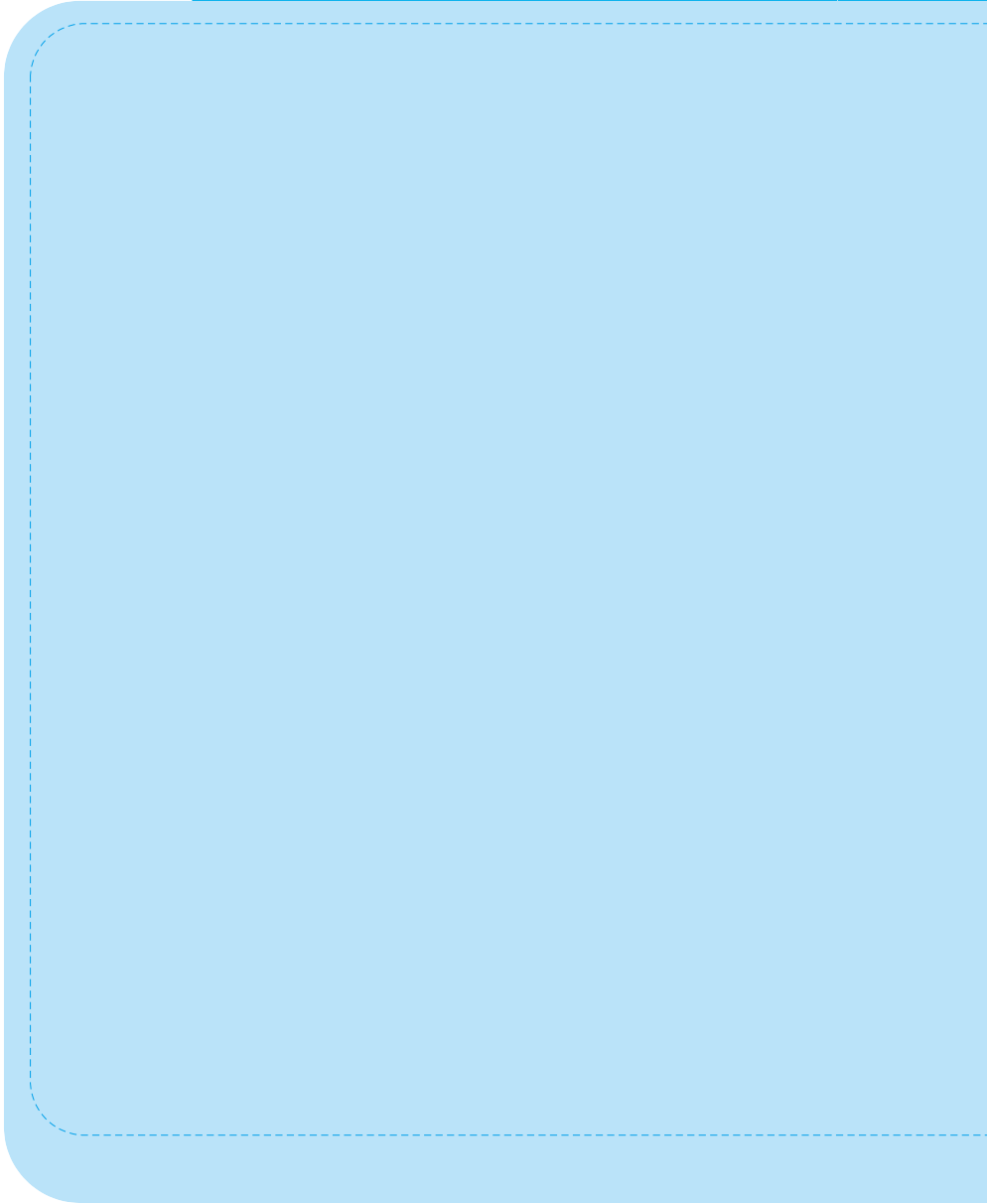
입주기업들의 자가 예상치이므로 객관성, 정확성은 다소 미흡하나, 창업 초기업체 또는 생산확대가 임박한 성장성이 크게 기대되는 업체이므로 입주기업들의 높은 성장 및 고용증가는 추세적으로 적정하다고 볼 수 있고 정책목적성 측면에서도 효과가 크게 기대된다.

▼ 산단단지 입주기업 지원



소개한 바와 같이 협업을 통해,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진공과 NH는 천리길 '진주'에서 만나 하나가 되었다.

한국예탁결제원



07

찾아가는 벤처기업 주식업무
교육·컨설팅

찾아가는 벤처기업 주식업무 교육·컨설팅

요 약

- 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조달에 대한 해법을 찾아가는 서비스로 제공
 - [벤처기업 자금조달 지원] 벤처기업에 직접금융 이용을 통한 자금조달 방법에 대하여 순회교육·컨설팅을 협업기관과 연계 실시
 - [장외거래시장 활성화] 비상장 벤처기업 통일규격 주권발행 및 예탁(계좌대체 이용)을 통한 장외주식거래 활성화 및 투자자금 회수 간접 지원



“한국예탁결제원, 기술보증기금,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벤처기업의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을 도와드리겠습니다.”

■ 협업의 필요성

“벤처기업 경영에 가장 힘든 부분은 운영자금의 조달입니다...
정책지원금만으로는 부족해요”

2013년말 중소기업청과 벤처기업협회가 발간한 『2013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에 따르면 벤처기업의 가장 큰 경영애로사항은 “자금조달·운용 등 자금관리가 어렵다(75.4%)”였다.

한편, 벤처기업의 신규자금 조달은 대부분 정부 정책지원금(53.3%)과 은행 등 일반금융(17.4%)에 편중되어 간접금융 의존도가 극히 심한 편이다. 주식발행을 통한 직접금융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이에 관한 정보와 절차, 방법 등에 대해서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잘 모르는 것이 현실이다.

“회사에 자금이 필요하여 주식 발행을 하려 하는데...
어디서, 어떻게 하는 걸까요?”

부산·구미지역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위치한 벤처기업 대표이사 A씨는 근래 늘어나는 주문에도 불구하고 고민거리가 생겼다. 생산라인을 증대하여야 하는데 이에 필요한 추가자금이 기술보증기금 등이 지원하는 정책자금으로는 모자랐기 때문이다.

때마침 벤처캐피탈회사에서 기업의 성장성을 보고 투자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A씨는 급한 불을 끌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벤처캐피탈회사는 출자를 통해 받을 주식은 위·변조 식별이 가능하고, 실물주식을 보유

하기보다는 상장회사 주식처럼 증권회사 계좌에 맡길 수도 있고 자금 회수를 위해 계좌대체를 통한 주식거래가 가능한 통일규격주권*으로 발행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 통일규격주권(Uniform Stock Certificate) : 유가증권의 위조, 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정한 바에 의거하여 지질, 규격, 도안, 색상, 인쇄방법 등이 통일되어 발행된 주권(출처 : New 경제용어사전, 미래와 경영)

A씨는 새로운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통일규격주권을 발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식거래로 인한 주주 변동에 따라 주주관리업무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협업의 구축

“한국예탁결제원, 기술보증기금,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벤처기업의 직접금융 이용 방법을 도와드릴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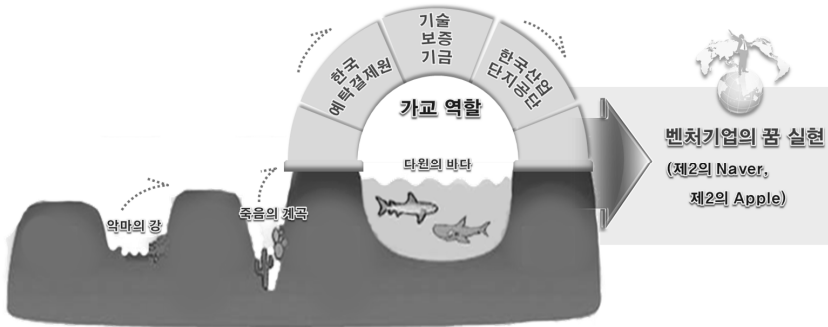
하지만, 다행히도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입주해 있던 A씨의 기업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새로이 개설한 교육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프로그램을 통해 주식사무 전문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통일규격주권 발행 등 주식사무 전반에 관한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받게 된 것이다.

A씨는 이후 한국예탁결제원의 도움을 통해 적시에 통일규격주권을 발행하여 벤처캐피탈회사로부터 출자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현재는 코스닥시장 상장을 준비 중에 있다.

벤처기업은 연구·개발을 하는 초기 단계에서도 자금을 필요로 하지만 매출이 늘어나 기업이 성장하는 단계에서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자금투자가 필요하다.

위 사례와 같이, 한국예탁결제원, 기술보증기금,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서로 협력하여 벤처기업이 직접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벤처기업이 성공의 꿈을 실현하는 데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 공공기관 협업을 통한 벤처기업 성공 지원



협업의 성과

“협업을 통한 찾아가는 서비스로 효과 증대... 멀리 가지 않고 회사 근처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어 좋아요”

한국예탁결제원은 그간 본원 및 지원에서 주식회사에 대한 주식사무 교육·컨설팅을 실시해 왔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기술보증기금, 한국산업단지공단 등과 협업을 통해 벤처기업에 대하여 직접금융 이용 지원을 위한 교육·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전국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입주한 4만 8천여 개사와 기술보증기금이 보증하는 4만개 이상의 기업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범위와 대상을 확대하였다. 또한 협업을 통해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각 지역의 산업단지공단 지부나 벤처기업들이 자주 이용하는 관공서 또는 벤처기업 소재지역 인근의 찾기 쉬운 콘퍼런스 홀에서 개최함으로써 벤처

기업의 교육 참여를 위한 방문 및 시간상의 불편을 해소하였다.

그간 한국예탁결제원은 개별적으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에서 개최한 교육 이외에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함께 경기지역, 경북지역 소재 벤처기업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기술보증기금과 협업으로 부여에서 개최한 ‘도약기업 CEO 전문강좌’를 포함, 총 5회에 걸친 협업 순회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를 통하여 다수의 벤처기업이 한국예탁결제원의 추가적인 컨설팅을 받아 통일규격주권을 발행하였고, 이에 따라 증권계좌를 통한 계좌대체방식으로 해당 기업의 주식거래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일부 기업은 현재 코스닥 상장과 K-OTC* 등록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한국예탁결제원은 이러한 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식사무 대행수수료를 감면해 줌으로써 벤처기업의 부담을 완화하여 주었다.

* K-OTC 시장은 비상장주식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설·운영하는 제도화·조직화된 장외시장이다. K-OTC는 한국시장외시장(Korea Over-The Counter)의 약칭이다(출처 : 한국금융투자협회 K-OTC 홈페이지).

	코스닥	코넥스	계좌대체가능	합계
회사 수	9개사	3개사	49개사	61개사
수수료 감면액	17,3백만원	1,7백만원	26,6백만원	45,6백만원

“계좌대체를 통한 주식 장외거래 활성화... 벤처기업 주식에 투자하는 주주도 편리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통일규격주권을 발행하게 되면 주권의 위변조 식별이 용이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주주는 안심하고 주식에 투자할 수 있다. 또한 상장회사와 마찬가지로 비상장 벤처기업 주식도 실물주권 없이 증권계좌로 주식 이체가 가능하여 주식 거래도 편리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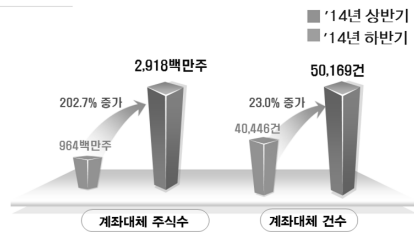
벤처기업으로는 회사에 대한 이미지와 신뢰도가 상승하고 주주관리가 투명해지며, 이를 통해 벤처기업의 주식이 활발하게 거래될 수 있으며, 주식의 가격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쳐 벤처기업과 투자자 모두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비상장 주식의 장외거래 활성화는 향후 비상장 회사의 상장 교두보를 확보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 계좌대체를 통한 장외거래 활성화
: 상반기 대비 200%이상 증가
→ 자금회수 간접지원

	'14년 상반기	'14년 하반기	증감율
주식수	964백만주	2,918백만주	202.7% ↑
건 수	40,776	50,169	23.0% ↑

❖ 계좌대체 : 증권사의 이동사유 발생시 실물의 이동 없이 계좌부상 대체의 기재를 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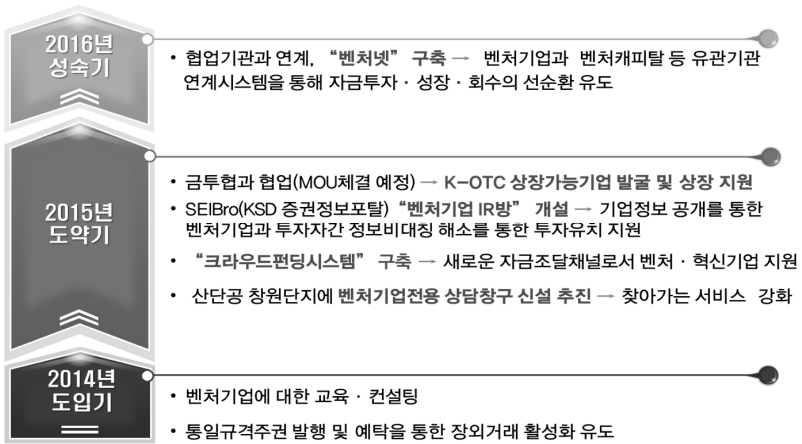


“모두에게 도움을 주는 찾아가는 서비스... 앞으로도 벤처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 기술보증기금, 한국산업단지공단은 협업을 통해 찾아가는 주식업무 관련 교육·컨설팅을 실시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직접금융 이용을 지원하여 자금조달 부담을 덜 수 있었다. 벤처주식 투자자에게는 거래의 안정성과 편의성을 제공하였으며, 금융시장에서는 비상장 주식의 장외거래가 활성화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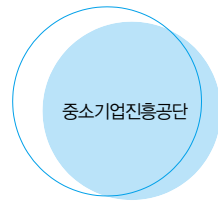
또한 금번 상호협력 프로그램으로 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자본시장 발전 및 창조경제를 구현하려는 정부정책에 일조한다는 자부심과 함께, 간접금융과 직접금융을 포함하는 종합적 자금조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었다.

한편, 한국예탁결제원과 협업기관은 교육·컨설팅 프로그램 외에 한 단계 더 나아가 금년에는 벤처기업의 투자자대상홍보활동(IR)을 지원하는 한편 K-OTC 상장가능기업 발굴 및 상장 지원을 추진하고, 크라우드 펀딩(Croud Funding) 시스템을 구축하여 벤처기업의 소액공모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향후 벤처기업과 벤처캐피탈 및 증권 유관기관을 연계하는 시스템(벤처넷)을 구축하여 벤처자금의 투자·성장·회수의 선순환 유도를 촉진시키는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 KSD 벤처기업 금융지원 시스템 발전 모델





08

**유망 콘텐츠기업,
생존을 넘어 성공을 꿈꾸다!**

유망 콘텐츠기업, 생존을 넘어 성공을 꿈꾸다!

요 약

□ 콘텐츠가 유망하면 영세기업도 제작 초기부터 사업화까지 금융 지원 가능

- [콘진원] 유망 콘텐츠의 발굴·추천 및 평가 지원을 통해 콘텐츠 분야 지원 노하우 제공
- [중진공] 발굴된 콘텐츠의 사업화를 위한 자금 지원 및 민간VC의 후속 투자 지원체계 마련
 - 지원 콘텐츠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를 통해 프로젝트의 성공률 제고



■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면서 신청했어요”

LP가 좋아 모인 음반사 대표들이 만든 A사는 ‘쌈짓돈’을 모아 한국의 명반을 LP로 제작해 판매하기 시작했다. 판매 규모가 크지도 않고, LP가 과연 팔릴까라는 의문도 잠시, 디지털 음원시장 속에서 소장가치가 높은 LP를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다. 추가적인 자금조달을 통해 더 많은 저작인접권을 확보하고 싶었지만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기업의 재무건전성 위주의 평가를 실시하고 있어 자금 지원을 받기란 쉽지 않았다. 과연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LP를 제작하는 일이 가능하기는 한 것인가?

회사 설립 후 2년간 모든 것을 쏟아 부어 개발한 4D 아케이드 게임기(시제품)가 해외 전문 전시회에서 호평을 받아서 기뻐던 B사. 하지만 양산 자금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려웠다. 그간 매출도 없이 제품 개발에만 매달리다 보니 재무건전성이나 신용도가 나빠져서 대출이나 투자 모두 신청조차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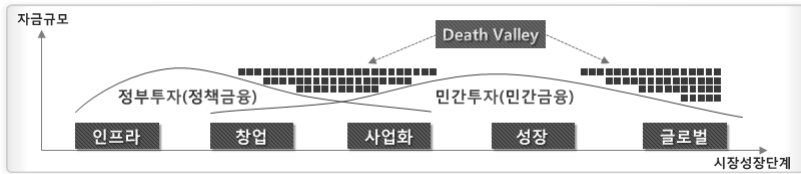
■ Death Valley 단계의 콘텐츠기업에 사업화 자금 지원 절실

K-pop 등 신한류의 확산에 힘입어 콘텐츠산업의 글로벌 진출과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콘텐츠기업의 대부분이 ‘10-10-10 구조’의 영세기업으로 정책자금의 수혜가 어려운 실정이다.

* 10-10-10 구조 : 자본금 10억원 이하, 매출 10억원 이하, 종업원 10인 이하

기존에는 시제품 개발이 끝난 콘텐츠기업이 정책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의 재무건전성 평가를 거쳐야만 했었다. 물론 민간은행 및 정책금융 기관은 다양하지만 콘텐츠산업의 리스크와 기업의 영세성으로 콘텐츠기업의 자금조달이 쉽지만은 않았다.

이러한 기업들 대부분이 'Death Valley' 단계의 기업으로 콘텐츠 개발시 기획 초기 단계나 사업화 직전에 활용 가능한 재원을 거의 소진하게 된다. 그 결과 재무건전성과 신용도가 열악할 수밖에 없어 현행 금융지원제도(기업금융) 수혜가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계속 되는 것이다.



콘텐츠의 사업성은 있으나 정책자금의 수혜를 받기 어려운 기업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과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이 손을 잡았다.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콘진원이 시제품 개발 자금 등을 지원하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경우 중진공의 신규 금융상품인 '프로젝트금융형 대출'을 통해 사업화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연계 지원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 유망 프로젝트를 위한 협업체계 구축

콘진원은 장르별 제작지원사업을 통해 시제품 개발에 성공한 유망 프로젝트 중 사업화 자금 지원을 필요로 하는 프로젝트를 중진공에 추천한다. 추천을 받은 중진공은 콘진원의 장르 전문가 및 민간VC(Venture Capital) 심사역과 공동심사를 거쳐 자금을 지원하고, 심사에 참여한 민간VC가 사업성 검토 후 연계 투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원스톱(One-stop)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유망 프로젝트를 개발중이던 A사도 중진공과 콘진원의 협업과정에 참여하게 되었다.



게임개발사인 A사는 개발을 완료하고 게임 론칭 단계에 이르러 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던 중 시제품 개발시 지원을 받았던 콘진원의 추천을 통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신규 금융상품인 '프로젝트금융형 대출'을 통해 8억원을 지원받아 보다 안정적인 여건에서 게임 개발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자금 지원 3개월 만에 싱가포르의 S사와 10만달러의 계약을 시작으로 일본, 대만, 중국 등 동남아 4개국 출시를 앞두고 총 50만달러의 선급

수령을 이미 완료한 상태이다. 향후 5년간 국내외 출시를 통해 약 77억원의 누적 매출을 예상하고 있다.

■ 단계별 지원 체계를 통한 프로젝트의 성공률 제고



이로써 중진공과 콘텐츠원은 유망한 콘텐츠의 사업화 및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협업 전에는 콘텐츠원에서 개별적으로 시제품 개발을 지원하였으나 이후 사장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이 어려웠다. 그러나 협업 후에는 시제품 개발 후 사장되는 유망 콘텐츠 사업화

가 가능하도록 연계지원이 가능해졌다.

이뿐 아니라, 민간VC 풀(Pool) 구축을 통해 후속 금융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프로젝트가 최종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윈스톱 연계 지원체계가 마련됐다. 유관기관의 협업을 통해 지원받은 프로젝트의 경우 이미 검증된 프로젝트로 후속투자 및 판로개척에도 시너지 효과가 있으리라는 판단 때문이다.

■ 협업을 통한 기업성장 및 고용창출

이러한 협업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자금 지원 전 콘텐츠 기업의 매출규모는 모두 10억원 미만으로 열악한 실정이었지만, 향후 3년 이내에는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하여 지원 기업 대부분이 10-10-10 구조에서 탈피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콘텐츠 업종의 특성상 사업화가 본격화되면서 높은 고용창출 효과 또한 전망된다.

* 연평균 0.8명/억원, 정책자금 평균 0.285명/억원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이번 협업의 성과를 지원기업의 매출액 증가 및 고용창출 효과는 물론 지원이 미비했던 콘텐츠 분야의 지원 확대를 위한 연계 지원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더 큰 성과가 있다고 평가하며, 이를 계기로 협업기관 확대 및 종합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추가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협업 우수 사례

“이제 나와 직원들은 ‘생존’을 넘어선 ‘성공’을 꿈꾸고 있습니다.”

맥스온소프트(주)는 '02년 설립하여, 다양한 장르의 온라인게임, 모바일게임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로서 '07년도부터 3D온라인게임 '아스다스토리'로 북미, 대만 및 홍콩, 마카오, 일본, 러시아, 브라질, 중동 및 아프리카 19개국에서 해외 서비스를 하고 있다. '14년부터는 모바일 게임 '영웅을 만나다'를 개발하여 넷마블과 함께 카카오톡을 통해 한국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소게임 업체로 발빠르게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여 해외 서비스를 하고 있었지만, 회사는 글로벌 유저(user)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유대감을 갖는 글로벌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수 없었고 퍼블리셔(Publisher)와 제휴를 통해 서비스를 해오고 있었다. 그러나 모바일게임 시장이 열리면서 글로벌 시장 유저들에게 SNS를 통해 글로벌 마케팅이 가능해지고, 클라우드(Cloud) 서비스로 초기 인프라 비용이 절감되는 등 중소기업이 직접 글로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시장이 열리게 되었다.

이에 맥스온소프트는 모바일게임 '9CROWN'을 개발하면서, '13년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차세대게임제작지원사업'으로 개발비를 지원받고 '14년 '글로벌서비스운영지원사업'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직접 서비스할 수 있는 인프라를 지원받는다. 그러나 글로벌 시장에서 마케팅 비용이 부족해 글로벌 사업화를 실현하기 어려운 현실이었다. 이 때,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프로젝트금융형 대출' 사업으로 서비스 단계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마케팅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받게 되어 맥스온소프트는 글로벌 시장에서 사업화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9크라운'은 '14년 12월 폴란드 등에서 소프트 론칭을 하고 '15년 3월 호주, 뉴질랜드, 인도, 필리핀 등에서 유료화 론칭을 시작으로, 4월에 중동 및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그리고 단계적으로 시장을 확대하여 북미, 유럽 등까지 서비스를 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프로젝트금융형 대출'은 게임 개발을 완료하고, 글로벌 사업화의 벽에 막힌 현실에서 글로벌 사업화의 꿈을 이루게 해주었다. 이 사업이야말로 글로벌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여준 가장 현실적인 사업이었다.



09

사물인터넷(IoT)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추진사업 연계

사물인터넷(IoT)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추진사업 연계

요 약

□ 주요 내용

- 창조경제의 핵심인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정책 시행**
 - 참여기관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 주요 성과 및 사례

- **[기술혁신]** 국내 최초 IoT 스타트업 16개를 발굴하여 기술 및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자금, 환경(open lab 등), 멘토링 등 집중 지원
- **[판로개척]** 45개 국내 우수 중소기업과 국내외 대기업과의 파트너십 체결을 통한 투자유치 및 동반 글로벌 진출 지원
- **[인재육성]** 예비창업자·재직자 50명 및 사물인터넷에 관심 있는 일반인 479명을 대상으로 IoT 선도기업의 전문가를 활용하여 현장 교육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요 약

사례 IoT 기반의 재난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여 창업을 준비하던 A씨는 「IoT혁신센터」를 방문하여 창업소양·기술개발·판로개척에 대한 고민을 원스톱으로 해결하게 되었다. 센터의 전문 교육 및 멘토링을 받은 후 A씨가 개발 중이던 서비스는 상용화를 거쳐 국내 시장에서 호평을 받기 시작했고, 센터가 보유한 대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약 7천만원 규모의 해외수출 성과를 거두었다. 해외 판로개척을 위해 센터 주관의 글로벌 로드쇼에 참여하여 현지 기업과 업무협약을 맺는 등 국내외 사업 진출에 성공했다.

■ 사물인터넷(IoT), 글로벌 그리고 파트너십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떠오른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은 그간 산재한 온·오프라인의 기술을 집약적으로 융합하여 초연결사회로 진입하는 시발점이 되었다. 사물인터넷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감안할 때 국가 차원의 사물인터넷 산업 육성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과제가 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독보적인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와 창의력 있는 우수한 인재, 나아가 창조경제 정책을 국가 시책으로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시장에서 아직 이렇다 할 사물인터넷 분야의 선도기업이 부재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반해 세계 각국 및 유수의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IoT를 통한 혁신 전략과 주도권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다.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사물인터넷 분야의 전략적 접근을 통해 국내외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핵심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 세계 각 나라 및 기업의 IoT 대응 전략

<p>파괴적 기술/경제혁신 도구 </p> <p>2025년까지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혁신적인 파괴적 기술 중의 하나로 사물 인터넷을 선정, 기술로드맵 수립 (2008)</p>	<p>액션플랜 수립/추진 </p> <p>사람·사물과의 연결을 대비한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사물인터넷 14대 액션플랜 수립 (2009년) → 추진 (2010년~)</p>	<p>感知中國 </p> <p>사물간 인터넷을 국가 5대 신동력 산업으로 선정 (2009년) → 시범도시 추진 (2010년~)</p>
<p>Open Interconnect Consortium </p> <p>삼성전자, 아트멜, 브로드컴, 델, 인텔 등이 참여, IoT 표준 기술에 기반을 둔 공동 운영체제 규정 및 개발 오픈소스 공개추진</p>	<p>Thread Group </p> <p>구글, 삼성전자, ARM 등이 참여, Thing마다 상이한 프로토콜 해결 및 안전하고 효율적인 제품 개발에 주력</p>	<p>Allseen Alliance </p> <p>시스코, LG, 하이얼, 필립 등이 참여, 상호연결가능한 Things와 앱 확산을 추진하고 오픈소스인 AllJoyn 배포</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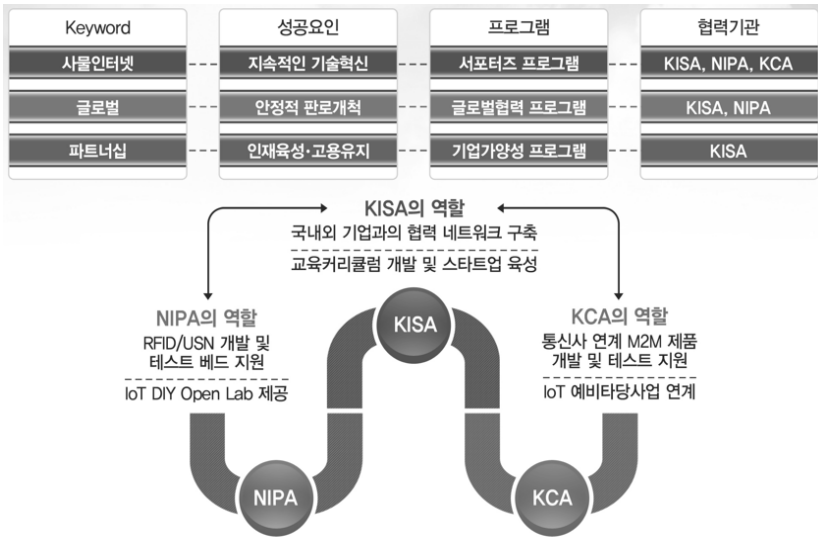
사물인터넷 분야는 기존 산업과 달리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보다는 소형 플레이어(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접근이 보다 용이한 측면이 있다. 소형 플레이어들은 상대적으로 사물인터넷이 소비자에게 줄 수 있는 가치를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기반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다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오랫동안 유지해 온 탓에 소형 플레이어가 기술과 자금력을 가진 탄탄한 강소기업으로 나아가기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전 세계 강소기업의 약 48%를 가지고 있는 독일이 유럽 경제위기에 도 세계 경제의 주역으로 무역수지 흑자 세계 1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보유한 중소기업들이 세계 시장의 리더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GDP가 1조 4,495억달러로 세계 13위임에도 불구하고 강소기업(히든챔피언) 수는 23개로 전 세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처럼 국가 경제가 유지되는 데는 소형 플레이어들이 고유의 특성을 제대로 발휘하도록 생태계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직시하고, 사물인터넷 분야의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전략적 정책을 수립하게 되었다. 중소기업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기술 혁신 ▲안정적 판로개척 ▲인재발굴과 고용유지 3가지 요인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IoT혁신센터)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방

송통신전파진흥원 3개 기관과 협력하여 「사물인터넷(IoT) 글로벌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만들어 IoT 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을 시작했다.

▼ 「사물인터넷(IoT) 글로벌 파트너십 프로그램」 추진 전략



협력을 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각 기관이 보유한 강점을 분석하고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기관별 역할 정립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소형 플레이어를 대상으로 기술혁신·판로개척·인재발굴의 3가지 지원 요소를 충족시키기 위해 참여 주체가 주도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역할을 아래와 같이 도출했다.

파트너십 기반의 사물인터넷 시장 생태계 조성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3가지 요소 중 첫 번째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위해 3개 기관이 함께 IoT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스타트업이 가진 창의적인 기술 및 서비스를 사업화 단계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개발 자금 및 환경

(open lab), 멘토링 등 각 기관이 보유한 자원을 집중 지원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총 16개의 스타트업이 초기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시제품 제작까지 발전할 수 있었고, 이들 중 ‘스마트 블록’을 개발한 스타트업 ‘프레도’의 경우, IoT혁신센터를 통해 글로벌 기업 인텔(Intel)과 기술개발 및 제품 생산, 홍보, 해외진출 지원 등을 위한 협력 계약을 성사시키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 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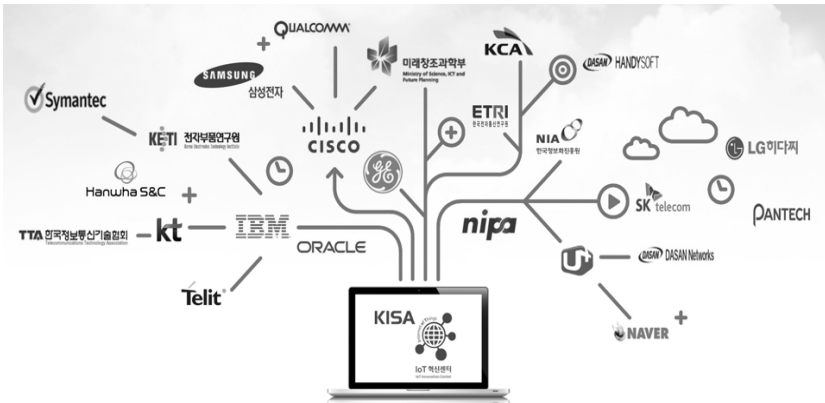
* 스타트업(Start-Up) : 설립한 지 오래되지 않은 신생 벤처기업(출처 : 환경 경제용어사전)

두 번째로 ‘안정적 판로개척’을 위해 45개의 국내 우수 중소기업과 국내외 대기업 간의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투자유치 및 동반 글로벌 진출을 지원했다. 글로벌 시장에서 중소기업들의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된 ‘스마트 시티 엑스포 2014(Smart City Expo 2014)’ 전시회에 국내 우수 중소기업 참가를 지원하여 11건의 업무협약 투자의향서(LoI) 1건, 업무협약(MoU) 10건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스페인 현지 로드쇼에 참여했던 중소기업 ‘어비팩토리’는 스페인 현지 기업 IT GLAS와의 MoU를 통해 웨어러블 디바이스(Wearable Device)를 기반으로 이용자의 건강상태를 체크하는 헬스케어 서비스를 공동 개발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의 ‘인재육성 및 고용유지’를 위해 예비 창업자 및 재직자를 대상으로 IoT 선도기업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사물인터넷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했다. 실직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 커리큘럼을 구성하기 위해 사전 조사를 거쳐 교과목을 도출했고, 교육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여 수강토록 하는 유연성을 두어 재직자들도 퇴근 후 시간을 활용해 우수한 스타트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정형화된 교육만으로는 급변하는 IoT 기술과 시장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하에 정기 세미나 및 자유 토론회 등 다양한 형식을 가미한 교육과정을 구성·운영하여 수혜자로 하여금 높은 호응도를 이끌어냈다.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협력과제를 수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이견 조정 및 객관적 이행상황 점검 등을 위해 국내외 IoT 분야 27개의 대기업과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IoT 글로벌 민·관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협력을 통해 진행되는 과제의 추진 경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정부 및 민간 분야별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등 협력과제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일조했다.

▼ IoT 글로벌 민·관 협의체 구성



3개 기관의 협력을 통해 조성된 사물인터넷 산업 생태계가 앞으로 보다 유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IoT혁신센터를 중심으로 한 파트너십 기반의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의 구성원을 확대하고, 대중소기업의 상호간 협력을 통한 기술 개발 및 판로개척, 인력양성이 선순환 구조를 띠고 운영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 해외마케팅·수출금융 유관기관이 뭉쳐
내수·수출초보기업을 해외마케팅과
수출자금의 어려움을 한번에 해결해
드립니다 ”

10

내수·수출초보기업
수출지원 융·복합화

내수·수출초보기업 수출지원 융·복합화

요 약

□ 내수·수출초보기업의 수출 전·후 금융애로, 유관기관과 협업으로 해소

- 내수·수출초보기업의 수출 전·후 금융애로 해소를 통한 수출기업화 성장 지원
 - 내수·수출초보기업이 수출 전후에 겪는 보험·금융 관련 애로를 유관 기관과의 융·복합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수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수출금융 유관기관 간 칸막이 제거
 - 수출금융 유관기관 간 칸막이 제거를 통해 해외마케팅, 수출금융을 융복합 지원하는 수출 완결형 토탈 서비스 구현
 - * 협력체계 구축 6개 기관 공동 MOU 체결('14.9.30, aT센터)
 - * 수출 완결형 토탈 서비스 구현 (KOTRA 해외마케팅 + 유관기관 수출금융)

요약

- 내수·수출초보기업의 수출자금 이용 문턱을 낮추고, 신속한 금융제공을 통한 애로 해소



- 사례**
- P사: 시장의 갑작스러운 사고와 하청업체의 선지불 요구로 수출계약 불이행 위기에 직면하였으나 지원사업의 신속한 자금 대출로 해결
 - H사: 바이어의 갑작스러운 시제품 생산 요구에 관련 자금 부족의 어려움을 지원사업으로 해결. 이를 통해 수출 재개에 성공.

“어? 얼마 전까지는 수출금융이 필요하면 금융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심사기간도 길었는데 이제 KOTRA에 신청을 하면 한 번에 일사천리로 해결해 주니 너무 편리하네요!”

이것은 바로 기획재정부가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협업과제로 선정한 ‘내수 및 수출초보기업 수출지원 융복합화’ 사업의 효과다. 내수 및 수출초보기업들은 어렵게 수출계약을 체결하고도 자금 조달의 어려움으로 수출을 포기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 이는 내수 및 수출초보기업 대다수가 수출실적이 없다 보니 수출금융 심사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제때에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수출금융을 이용하려고 하면 많은 서류준비와 장기간의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KOTRA는 무역보험공사, 기업은행 등 수출금융기관과 협력

을 시도했다. 이들 금융기관들도 현장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국정과제인 내수 및 수출초보기업의 수출기업화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금융 애로를 해결하는 데 뜻을 모았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외환은행 등 타 금융기관들도 동참했다.

이를 통해 기존의 여신 관행을 벗어나 신청서류를 간소화하고 심사기간을 단축하여 수출계약서만 있으면 신속히 자금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수출 보증료 할인 및 수출금융 금리 우대, 담보요건 등을 완화하는 혜택을 제공하는 ‘민관 협업 수출 완결형 토탈 서비스’ 체계를 구축했다.

▼ 민관 협업 수출 완결형 토탈 서비스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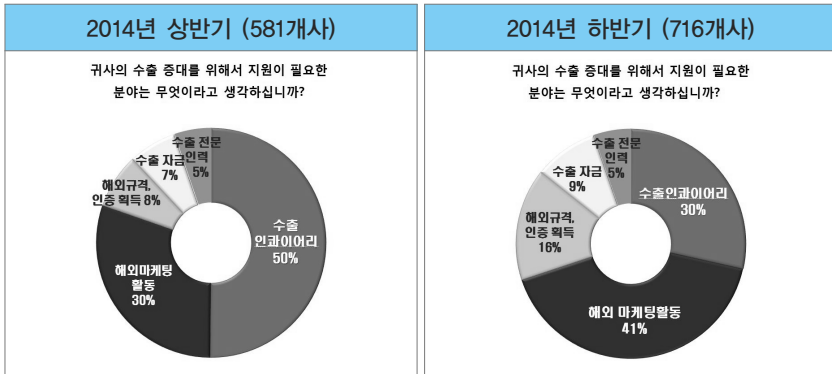


■ “내수·수출초보기업의 해외진출 주요 장애요인으로 해외마케팅 이후 수출금융이 크게 작용”

정부는 ‘2020 무역 2조달러 달성, 세계 무역 5강’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17년까지 수출기업 수 10만개 창출 목표를 설정했다. 이에 수출진흥기관인 KOTRA에서는 기존 수출기업의 수출실적 확대 및 내수 및 수출초보기업의 수출기업화를 핵심과제로 설정했다. 이렇게 시작된 ‘수출

첫걸음 지원사업’은 내수 및 수출초보기업과 퇴직한 무역전문인력 중심의 수출전문위원(PM)을 ‘멘토·멘티’로 지정, 무역실무에서 수출계약, 이행까지 1년간 1:1 밀착 지원하는 맞춤형 사업으로 설계하였다.

▼ 내수·수출초보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 '13년, '14년 수출 첫걸음 지원사업 참여기업 대상, 수출 애로사항 설문조사 2회 ('14.2월, 9월) 실시 결과, 수출자금 애로(7%, 9%) 응답

■ “어렵게 바이어와 수출계약은 했는데, 생산자금이 부족해요, 계약 이행을 도와주세요”

그러나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출금융 및 보험과 관련된 애로사항이 파악되었다. 일부 기업들이 KOTRA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수출계약을 앞두고 제품 생산 등에 소요되는 자금 부족으로 수출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였고, 높은 수출금융 금리와 수출보험 비용부담에 대한 애로를 표명했다. 이에 KOTRA는 유관기관과의 융·복합화, 맞춤형 지원으로 내수·수출초보기업이 수출 전후에 겪는 보험·금융 관련 애로를 해소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반년 간의 준비를 거쳐 금융기관별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창구까지 전달되도록 여신 시스템을 구축, 참여기관과 공동 MOU를 체결하고 내수 및 수출초보기업에 본격적인 수출금융을 지원하였다.

▼ 1차 KOTRA-무역보험공사 MOU(7,30)



▼ 2차 6개기관 공동 MOU(9,30)



■ “기관 간 칸막이 제거를 통해 수출자금 이용 문턱을 낮추고, 신속한 무담보 신용 금융지원 달성”

유관기관 간 협업을 통해 먼저 신청절차를 간소화했다. 수출금융이 필요한 내수기업은 KOTRA 한 곳에서 여러 개의 수출금융 지원사업을 한번에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기존 여신 관행과 차별화하여 신청서류를 간소화하고 심사기간을 대폭 단축하여 수출계약서만 있으면 신속히 자금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의 협력을 이끌어 냈다. 이는 기관 간 업무협약에 의한 칸막이 제거의 효과로 이용 문턱을 낮추고, 신속하게 관련 금융을 제공하여 수출 성과 및 만족도 증대의 효과도 가져왔다. 지원을 시작한 2개월여 만에 28개사가 55억원의 수출자금을 대출받았고 동 자금을 활용하여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출계약을 무사히 이행할 수 있었다.

▼ 협업 효과



〈수출기업화 협업 지원 성공 사례〉

(사례1) 영화관 4D 의자를 생산하는 F사는 KOTRA 수출첫걸음사업에 참여하여 2014년 11월에 20만달러의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외주 납품업체가 선지불을 요구하며 생산을 거부하여 수출계약 불이행의 위기를 맞았다. KOTRA는 협업기관에 도움을 요청해 무역보험공사에서 수출계약서를 근거로 수출신용보증서 발급 및 기업은행이 5천만원을 긴급 대출하여 제작 및 선적을 완료하였다. 모든 일정이 기관간 협조로 신청 4일 만에 완료되어 무사히 수출계약을 이행 할 수 있었다.

(사례2) 디스플레이 전문기업인 H사는 바이어 오더가 끊겨 수출이 중단되었으나 KOTRA 지원을 통해 네덜란드 및 베트남 바이어를 발굴하여 샘플 주문을 받았다. 바이어가 요구한 스펙에 맞추기 위해 신제품 개발자금을 신청하여 무역보험공사의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기업은행으로부터 1억원을 대출받아 신제품 개발을 마칠 수 있었고 바이어는 제품 테스트가 완료되는 금년 상반기에 최종 계약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사례 1) P사 필리핀 바이어와 계약 체결



(사례 2) H사 본사 바이어 방문 상담



“더 많은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참여기관 유치, 지원체계 구축 및 지원서비스 확정 등으로 실질적인 지원 기간은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유관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기업들의 호응으로 사업목표로 설정한 지원 기업 수(목표 200개사, 실적 312개사), 수출금융 금액(목표 40억원, 실적 55억원) 등을 초과달성했다. 그러나 이행사항 점검과정에서 다소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금융기관 특성상 연말 기관별

업무과다로 인해 신청기업과의 접촉의 한계성 및 정책과 창구와의 괴리감 등이 그것이었다. 이에 2015년에는 지원사업 내실화를 위해 연초 대상 기업의 조기 확정을 통해 연중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참여기관 확대를 통해 고객 접촉의 한계성 문제를 해결하고, 협력 금융기관의 협조를 구해 인센티브 제도 등을 시행하여 정책과 창구의 괴리감 해소에도 노력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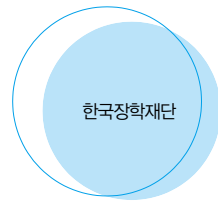
▼ 2015년 사업 발전 방향

**내수 및 수출 초보 기업 수출기업화를 통해
무역 2조 달러 조기 달성 · 수출기업 10만개 육성**

지원사업 내실화	참여기관 확대	홍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초 대상기업 조기확정, 연중 지원시스템 구축 ● 정책과 창구와의 괴리감 최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기관 확대를 통한 기업 편익 증대 ● 수출입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협의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기업 공동 발굴 및 성공사례 공유 ● 연중 지원사업 설명회를 통한 관련 사업 홍보, 전파

(해외마케팅 강화) 내수기업 2,400개사 대상 7개기관 23개 사업 협업 연계 지원

KOTRA는 ‘수출지원 융복합화 프로그램’을 통해 One Stop 협업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수출실적이 없어 수출금융에 애로를 겪었던 내수 및 수출초보기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으며, 더 많은 중소기업이 세계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수출지원 기관 간의 해외마케팅 및 수출금융 협업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졸업 후 취업이 어렵네요?
능력 있는 직원 채용이 되지 않다고요?
희망사다리장학생과
우수 중소기업 매칭으로 도와드립니다!”

11

희망사다리장학생과 우수중소기업 간 맞춤형 구인·구직 서비스 제공

희망사다리장학생과 우수중소기업 간 맞춤형 구인·구직 서비스 제공

요 약

□ 대학생·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mis-match) 해소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

- **[홍보]** 한국장학재단-대학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우수중소기업 채용정보 홍보
 - 대학이 보유한 장학생 POOL과 우수한 중소기업 정보를 연계하여 홍보효과 극대화
- **[채용]** 희망사다리장학생과 우수중소기업 간 인력매칭을 위한 온·오프서비스 제공
 -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보증기금 사이트 내 희망사다리장학생 전용 채용관 구축
 - 중소기업 취업박람회를 연간 7회 개최하여 262개 중소기업 및 1,728명 참여
- **[교육]** 중소기업연수원 플랫폼을 활용한 희망사다리장학생 직무기초교육 제공
 - 희망사다리장학생을 위한 전용 교육 온라인 콘텐츠 제공('14년 2,421명 이수)
 - 중소기업연수원 오프라인 교육을 통해 희망사다리장학생의 역량 강화(연4회)
- **[장기근무 유도]** 중소기업에 취업한 희망사다리장학생이 장기근무시 인센티브 제공
 - 취업 장학생의 중소기업 장기근무 유도하기 위한 기관 간 협업사업 지속 발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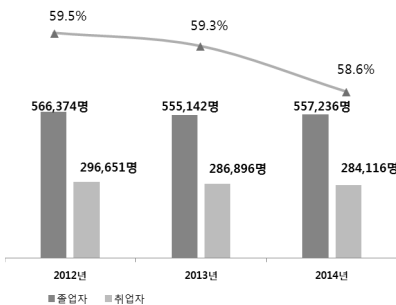
구인·구직 정보 공유, 취업박람회,
교육 지원 등 협업으로 맞춤형 일자리 제공

희망사다리장학생인 대학생 A군은 학년이 올라가면서 취업이 점점 부담으로 다가왔다. 졸업 후 중소기업에 근무를 희망하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정보를 찾으려니 막막했다. 어떤 기업이 좋은 곳인지, 근무조건은 괜찮은지 중소기업을 잘 판단할 수 없어 취업이 망설여지지만 한다.

■ 대학생 취업난과 중소기업 인력난의 원인은 일자리 미스매치 (mis-mat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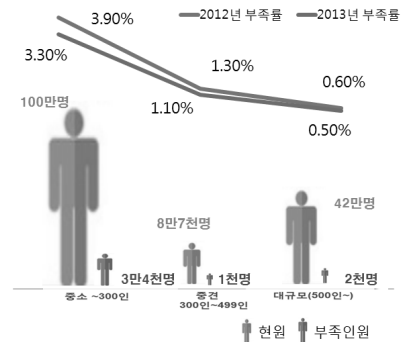
지난해 청년실업자 수는 38만 1천명에 달하며 이 중에서도 대학 졸업자의 취업난은 주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대학생의 최근 3년간 취업률은 60% 미만으로 지속적인 하락추세를 보이며 직장을 구하는 대학생이 많은 반면 중소기업들은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대기업에 취직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라는 취업준비생들의 얘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인력 편중 현상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대학생 취업률



※출처: 교육통계서비스(2014)

▼ 사업체규모별 산업기술인력현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인력 현황(2014)

■ 대학생의 중소기업 취업 활성화를 위한 희망사다리장학제도 운영

한국장학재단은 위와 같은 대학생과 중소기업 간의 인력 미스매치 및 청년실업문제 해소를 위하여 희망사다리장학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희망사다리장학생들은 매학기 대학 등록금 전액과 취업준비 장려금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학비와 생활비 마련에 대한 부담을 덜고 학업 및 취업준비에 전념할 수 있다. 추후에 장학생은 장학금을 받은 기간만큼 중소기업에서 의무근무를 수행하게 된다.

희망사다리장학생은 졸업 후 중소기업에 취업을 해야 하는데, 막상 취업시기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이해 부족과 채용정보의 부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한국장학재단은 업무 파트너인 대학의 취업지원담당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많은 희망사다리장학생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중소기업 자체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고 취업 시기에 중소기업 채용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신용보증기금은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 인증·관리하고 있어 대학생에게 취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에 가장 적합한 기관으로 판단되어 한국장학재단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보증기금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였다.

■ 희망사다리장학생과 우수중소기업의 취업 및 고용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

한국장학재단,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은 대학생과 중소기업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다방면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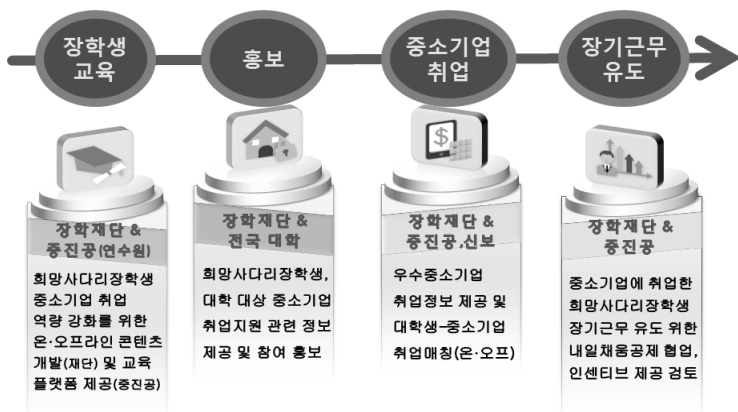
우선 한국장학재단은 희망사다리장학생과 대학에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인증된 우수 중소기업 정보를 제공하여 장학생의 취업 준비시 기업 선택의 폭을 넓혔다. 또한 대학의 취업지원담당자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일반 대학생들까지도 우수 중소기업의 채용정보에 관심을 갖고 취업박람회 등의 행사에도 참여하도록 적극 홍보하였다.

협업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신용보증기금은 취업박람회에 각 기관이 선정한 우수 중소기업(으뜸기업, 밸류스타기업)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양질의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한국장학재단이 희망사다리장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온·오프라인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제공하였다.



■ 중소기업 취업을 위한 교육부터 채용, 장기근무까지 지원 패키지화

한국장학재단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보증기금과 협력하여 희망사다리장학생이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부터 장기근무까지 지원체계의 패키지화를 추진하였다.



1. 중소기업 취업 준비를 위한 희망사다리장학생 교육 플랫폼 구축

한국장학재단은 희망사다리장학생에게 다양한 온·오프라인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장학생이 중소기업에 입사 후 별도의 교육·훈련 없이 바로 실무에 투입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 줄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희망사다리장학생은 중소기업연수원의 온라인 교육센터(<http://kosalb.sbc.or.kr>)에서 중소기업 입사를 위해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이수할 수 있었으며, 매 학기 새로운 교육과정이 제공되었다. 온라인 교육 콘텐츠는 총 40시간의 분량으로 중소기업의 이해, 직장생활 노하우, 실무에서의 의사결정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14년부터는 장학생 대상 오프라인 집합교육인 '스텝업 캠프'를 개최하였다. 연간 총 4회 개최한 캠프에 참여한 희망사다리장학생들은 관심 중소기업에 대한 업무기획, 모의 프로젝트 수행 등에 참여하여 실무 밀착형 학습이 가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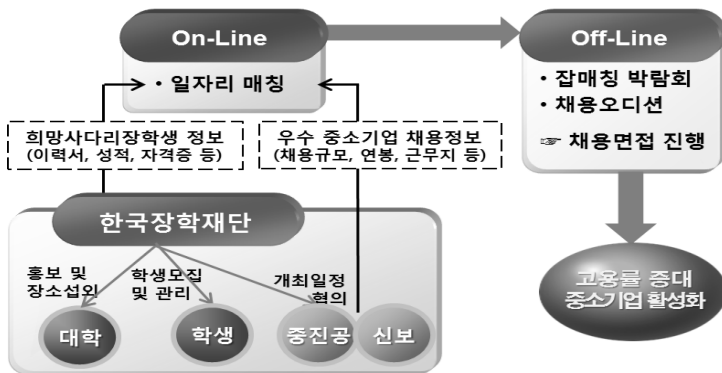
▼ 희망사다리장학생 온·오프라인 교육



2. 희망사다리장학생과 우수중소기업 취업매칭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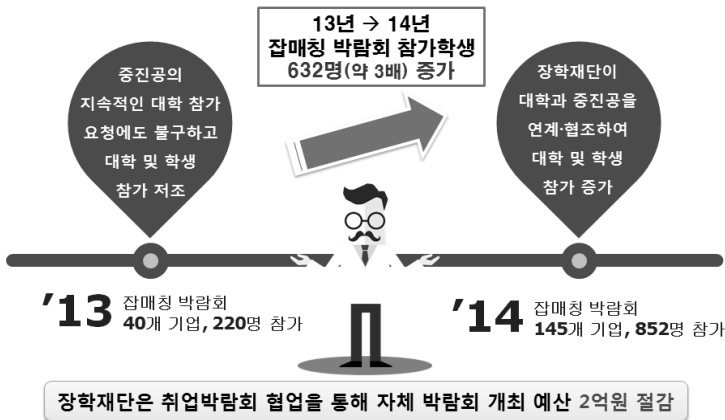
한국장학재단은 우수중소기업 정보가 부족한 희망사다리장학생의 취업을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보증기금의 취업박람회와 연계하여 중소기업과 장학생의 맞춤형 취업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사전 업무 협의 및 역할 분담을 통해 한국장학재단은 대학에 취업박람회 개최정보를 제공하고 장학생의 참여를 위한 사전 홍보활동을 진행하였으며,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신용보증기금은 온라인 사이트에 희망사다리장학생 전용 채용관을 구축하여 참여기업과 장학생 취업을 위한 사전 매칭을 진행함으로써 기업과 장학생의 만족도를 더욱 높일 수 있었다.



특히 취업박람회에 참여한 중소기업은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으뜸기업', 신용보증기금의 '밸류스타기업'들로 학생들의 관심도가 높았다. '14년 총 7회 개최된 박람회에는 중소기업 262개, 구직희망학생 1,728명이 참석하여 기업소개, 채용면접 진행 등 적극적인 매칭활동이 가능하였다.

한국장학재단의 희망사다리장학생 및 대학 홍보활동을 통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으뜸기업 잡매칭 박람회'의 경우 참여 학생과 규모가 전년 대비 약 3배 증가하였다.



3. 중소기업 취업 후에도 안정적인 장기근무 체계 구축

희망사다리장학제도는 장학생이 졸업 후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장학금을 받은 기간만큼 의무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더하여 장학생들이 중소기업에서 장기 재직을 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하였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내일채움공제'* 제도와 연계하여 장학생들이 의무 근무 기간 종료 이후에도 근무를 계속할 경우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 중에 있다.

* (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 적립금을 조성하여 5년 이상 장기 재직한 근로자에게 인센티브로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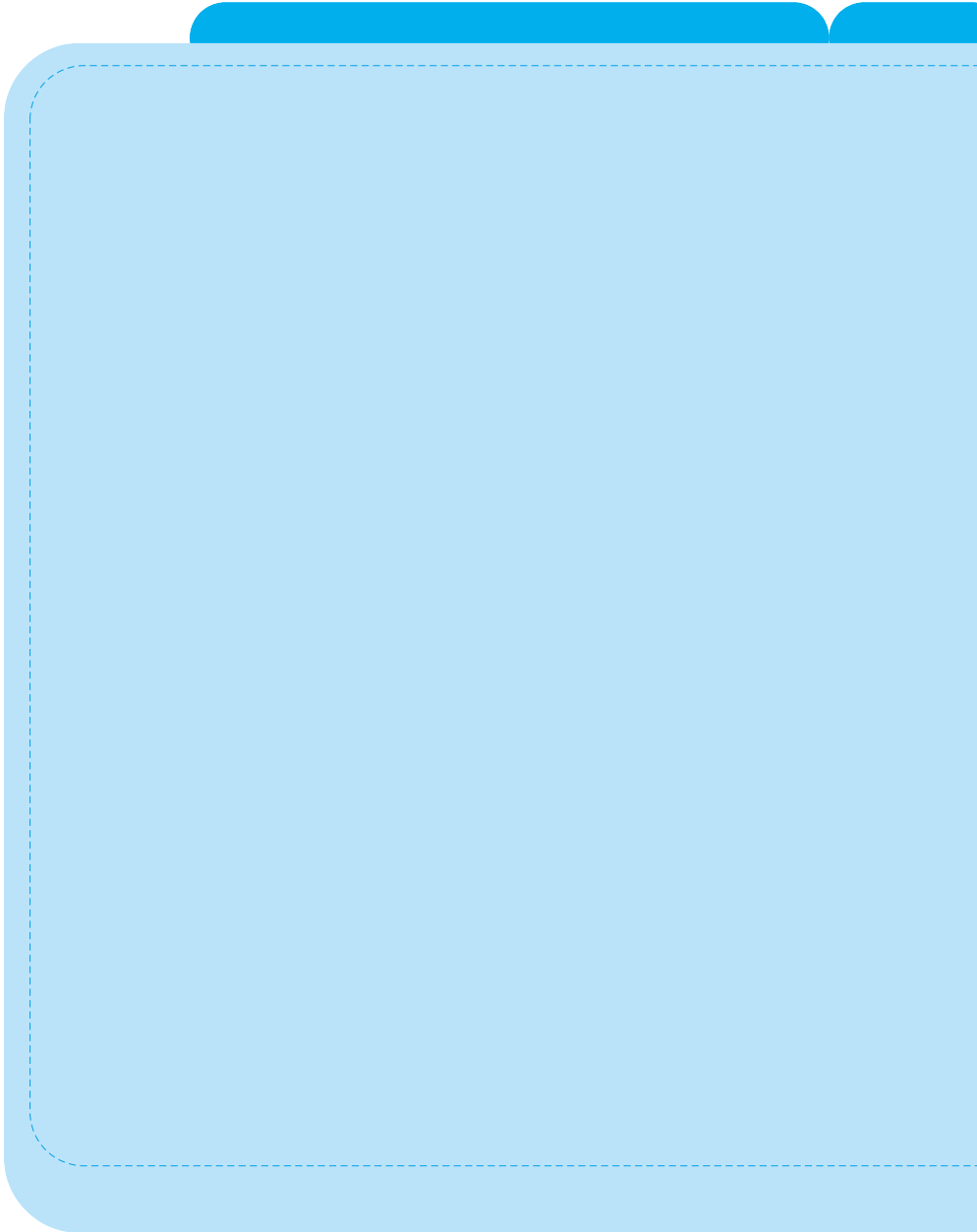
단계	지원수단(사업)	지원체계
대학생	희망사다리장학금	졸업 후 중소기업 취업 → 중소기업 의무근무
근로자	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의무근무 → 중소기업 장기재직

■ 대학생은 학비와 취업 부담 없이, 중소기업은 지속성장 동력 확보

흔히 대학교 등록금 1,000만원 시대라고 말한다. 정부의 반값등록금 정책이 시행되고는 있지만 대학생과 학부모에게는 여전히 등록금에 대한 부담이 크게 작용하며, 어렵사리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에 대한 고민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14년 희망사다리장학사업의 졸업 장학생 1,362명 중 91.2%인 1,242명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성과를 보인 것은 주목할 만한 사례이다.

대학생과 우수중소기업의 맞춤형 인력 매칭 및 지원체계를 통해, 학생은 우수한 중소기업으로 취업하여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중소기업은 안정적인 인력 수급과 우수 인재의 영입을 통해 지속적 동반성장이 가능하리라 기대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2

의료관광 전문인력 고용
활성화를 위한 인력매칭
시스템 구축

의료관광 전문인력 고용 활성화를 위한 인력매칭 시스템 구축

요 약

□ 미래의 새로운 먹거리, 글로벌 헬스케어 급성장 중

-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의 중요성 대두
 - 건강문제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국경을 넘어서는 의료서비스 시장의 확대
 - 세계 각국은 고부가 의료시장을 선점하고 더 많은 해외환자 유치를 위하여 뜨겁게 경쟁
- 2020년 한국을 방문하는 해외환자 수는 1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
 - 이에 따른 생산유발액 1조 3,899억원, 고용효과 1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

□ 의료관광 산업의 성장률 대비 인력 수급은 부족

- 전문인력 부족현상 심화
 - 현장 지식을 보유하고 현지 언어와 문화에 능통한 전문인력 찾기가 어려움
 - 전문 교육과정 수료와 자격증 보유에도 불구하고, 현장 실무 투입 가능 인력은 여전히 부족
- 의료관광 관련 구인기관에 대한 정보의 부족
 - 전문지식 습득을 통한 충분한 준비에도 근무여건에 맞는 고용 기관 찾기가 어려움
 - 구인기관과 구직자 간 고용정보 습득경로의 불일치

□ 인력수급문제, 1:1 인력매칭으로 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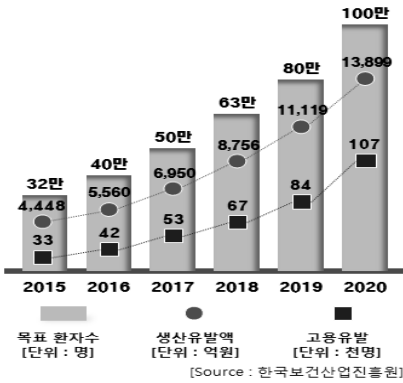
- 검증된 전문인력과 양질의 고용기관을 1:1로 연결해 주는 인력매칭 활용
 -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간 정보공유 및 사업협조체계 구축
 - 의료관광 전문인력 고용 활성화 목적의 인력매칭 시스템 구축
 - 사전 계획된 면접으로 상호간 충분한 면접 시간 보장을 통한 심층면접 가능
- 협업과제 주요 성과
 - 상담건수 전년 대비 15.7% 증가
 - 현장면접 후 실제 채용을 위한 후속 면접 예정인원 전년 대비 185% 증가
 - 인력매칭 시스템 활용을 통한 단순 행정업무 인력 투입 최소화

□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 진흥원과 함께 가능성을 엿보다

-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인력수급 불균형 완화를 위한 새로운 방안 도출
- 관련 공공기관 간 협업관계 확대로 검증된 참가자와 참가기관 확보 노력 필요
- 실용적 접미어로 발전시켜 인력난 해소를 통한 의료관광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기대

미래의 새로운 먹거리, 글로벌 헬스케어 급성장 중!

건강문제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국경을 넘어선 의료서비스 시장의 확대 추세로 글로벌 헬스케어가 차세대 성장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국경을 초월한 의료 서비스를 통하여 고부가 의료시장을 선점하고 더 많은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하여 뜨겁게 경쟁하고 있다. 2020년 한국을 방문하는 해외 환자 수는 1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이에 따른 생산유발액은 1조 3,899억원, 고용효과는 1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Q.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 인력어란?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세부분야 전문성을 지닌 인력”

* 세부분야 전문성 : 현지언어 및 문화, 의료지식 등

1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진료서비스지원, 관광 지원, 의료관광 마케팅, 의료관광 상담, 리스크 관리 및 행정업무 등을 담당

* 국가공인 전문자격증 2013년부터 시행(현재까지 총 합격자 배출인원 : 93명)

2 의료 통역사

국내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자 입국하는 외국인환자와 국내 의료진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담당하는 전문인력

3 국제의료마케팅전문가

외국인 환자를 국내에 유치하기 위해 국내병원의 의료 컨텐츠를 기획하고 홍보하여 외국인 환자들이 국내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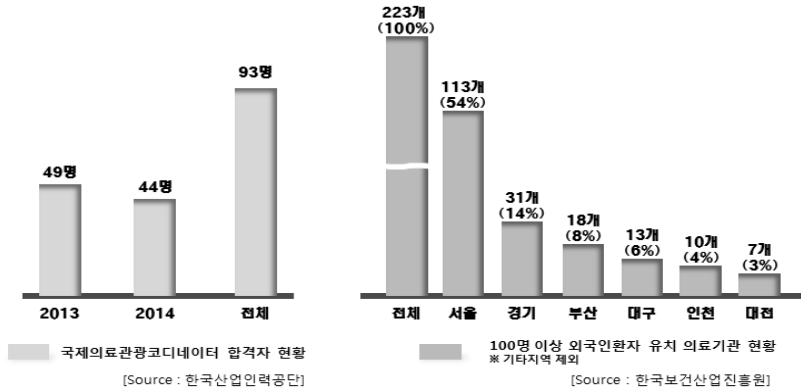
의료관광 산업의 성장을 대비 인력 수급은 부족

성형외과 A는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 아랍, 몽골 등의 아시아권 고객을 주요 타깃으로 하는 성형외과 A는 해외환자 수가 늘어날수록 병원국제의료 마케팅과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등 전문인력 충원의 필요성은 높아졌지만, 중국을 제외한 인도네시아, 태국, 아랍, 몽골 등의 언어를 능숙하게 사용하는 내국인 인력 자체가 상당히 부족하여 적합한 인재를 찾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토로하였다.

의료관광 산업이 급성장함에 따라 전문 인력 수급이 필요하지만, 주요 고객인 외국인 환자를 응대할 만큼 상당한 수준의 외국어 능력과 의료관련 지식 등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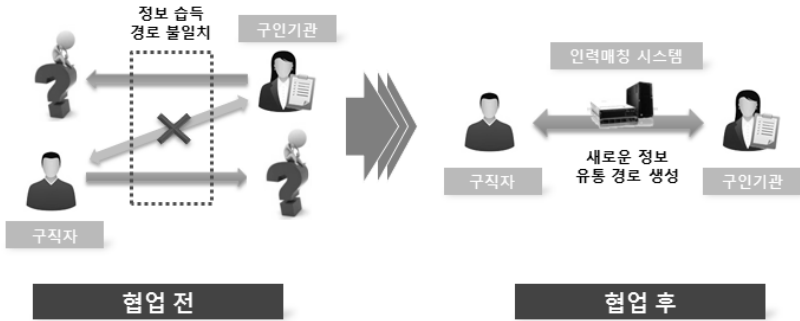
양한 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 채용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의료관광 전문가로 인정하는 국가공인 자격증이 2013년에 도입되어 93명의 합격자를 배출하였으나, 의료관광 산업의 급성장에 따른 전문 인력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의료관광 전문가 교육과정이 있으나, 실무적인 부분보다 이론에 많은 주안점을 두어 실무에 바로 투입 가능한 인력풀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많은 해외환자 유치 업체는 진료코디네이터나 전문통역사를 고용하지만 비용문제로 인해 상주인력을 두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국제 의료 관광 코디네이터는 해외환자의 입·출국 통합관리부터 통·번역, 진료, 코디네이터, 컨설팅 등의 다양한 직무를 동시에 수행하여 근무시간과 장소가 불규칙하고 임금이 낮아 구직자의 충분한 준비에도 불구하고 근무여건이 좋은 고용기관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

■ 인력수급문제, 1:1 인력매칭으로 해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의료관광 산업에서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충분히 있음에도 인력수급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를 구인기관과 구직자 간 고용정보 습득경로의 불일치로 판단하고 이를 풀어가기 위하여 검증된 전문 인력과 양질의 고용기관을 1:1로 연결해 주는 인력매칭을 활용하였다.



진흥원은 검증된 전문인력 고용기관의 인력매칭을 위하여 한국보건복지 인력개발원과 협업하여 구인기관과 구직자 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시도하였다. 따라서 글로벌 헬스케어 교육 수료생 DB와 인력개발원에 기 구축된 구인·구직 등록 시스템을 활용하면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목표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 구인기관과 구직자의 니즈를 반영하여 1:1 인력매칭 지원

진흥원은 인력개발원의 구인·구직 등록시스템을 인력매칭 시스템으로 재 구축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였다.

▶ 메디컬코리아 잡페어 포스터



▶ 구인·구직 등록 홈페이지



▶ 인력매칭 시스템 구인정보



▼ 잡페어 상담 결과지

# 제3회 MEDICAL KOREA 의료관광 채용상담회 상담 결과지	
기 번 별	(예) 1차
당 일 자	11월 27일
연 령 자	11월 27일 - 107호
상 호 명	1차 5차
상담 내용	주요 문의사항
	주요 내용 (참고 사항 등)
기 타 특 권 사항	. 진료 및 생활 편의 편의시설 등 인차 상의 확대 . 연차 의료관광 같이 지원은 물론 상담을 받을 . 계획도 관련 문의 상의 . 경영인 사가자 관련 상의

▼ 잡페어 의료관광 설명회



▼ 잡페어 1:1 면접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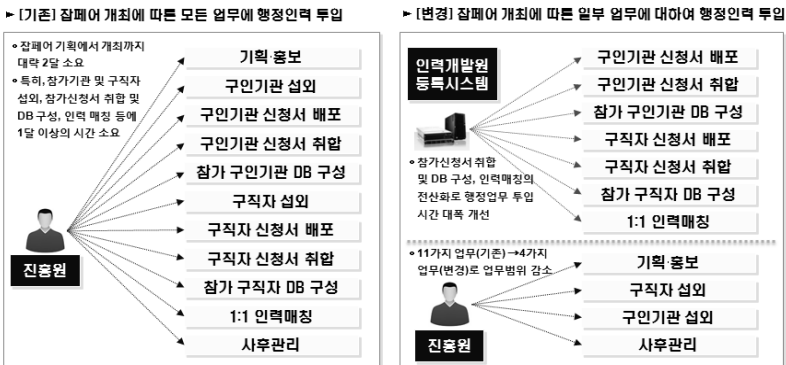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 등록기관으로 글로벌 헬스케어분야 인재채용을 희망하는 17개 기관을 선정하고, 의료관광 관련학과와 통·번역학과 졸업생(예정자),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자격증 소지자,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교육과정 수료자 등을 대상으로 인력매칭 시스템에 등록을 유도하였다. 구인기관과 구직자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인력매칭을 지원하고, 사전에 계획된 면접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관리를 통하여 충분한 시간을 보장함으로써 상호 간에 심층면접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제도

- ▶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는 의료법(제27조의2) 및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의무적으로 등록하여야 함
- ▶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에게 일정한 요건을 갖춰 등록하게 함으로써,
 - 무분별한 외국인 환자 유치행위로 인한 국내 의료시장질서 혼탁화 방지
 - 외국인환자 유치 과다경쟁으로 인한 공공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 방지
 - 미자격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의 난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한국의료서비스의 대외 이미지 실추 방지

■ 협업과제 주요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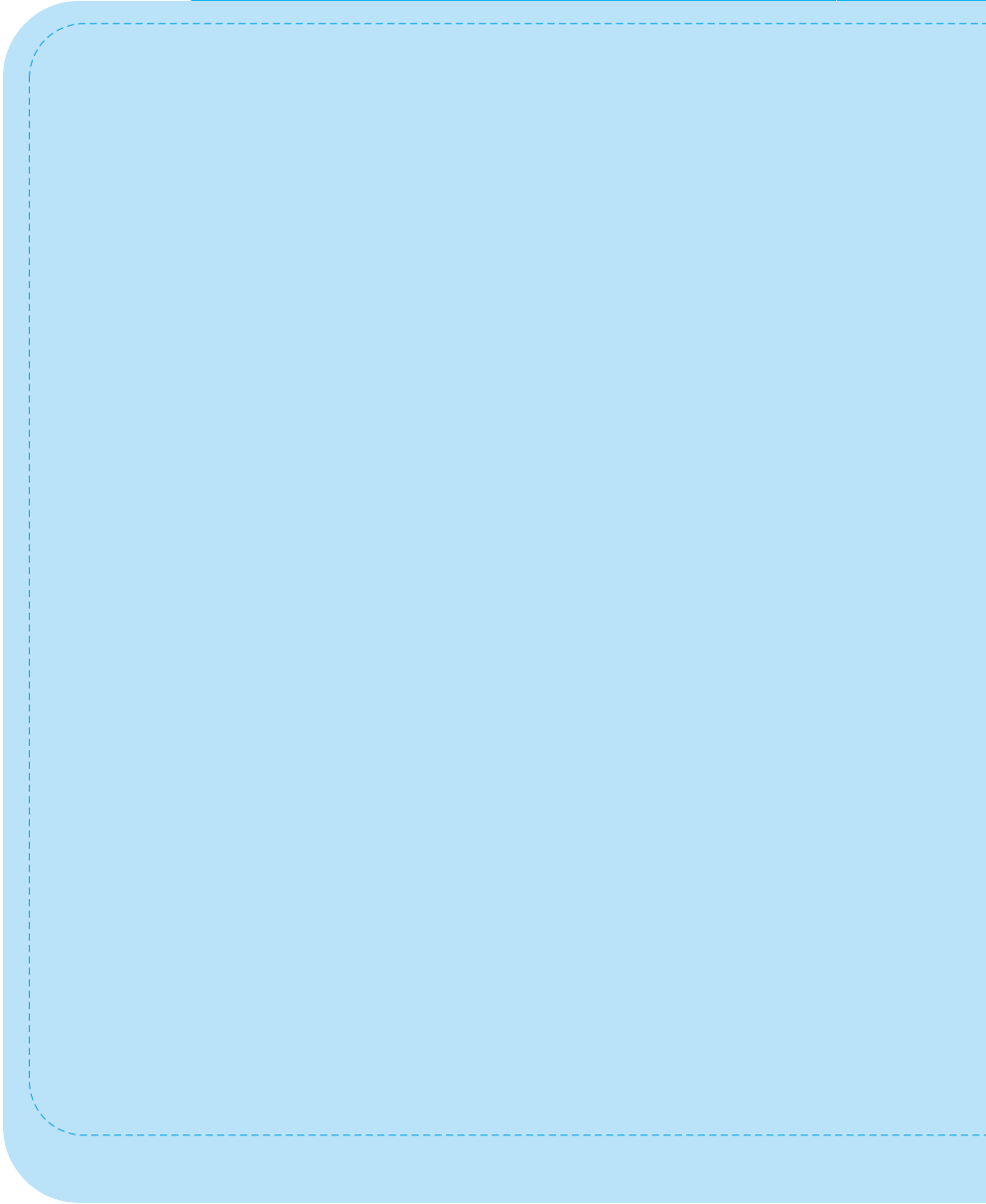
인력개발원에 기 구축된 구인·구직 등록시스템을 활용하여 시스템 구축 비용을 절감하였고, 인력개발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인력 DB를 활용하여 검증된 교육 수료자에 대한 직접적인 홍보가 가능하였다. 구인기관과 구직자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켜 현장면접 후 실제 채용을 위한 후속 면접 예정인원이 전년 대비 185%(14명→40명) 증가하였으며, 상담건수도 15.7%(190회→220회) 증가하였다. 또한, 행정절차의 전산화로 불필요한 행정에 인력투입을 최소화하여 참가기관과 구직자에게 더 많은 관심과 집중적인 관리가 가능하였다.



■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 진흥원과 함께 가능성을 엿보다!

진흥원은 인력매칭 시스템을 활용한 잡페어가 도입단계에 있어 당장 눈에 띄는 성과보다는 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인력 수급 불균형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방안에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향후 인력매칭 시스템 안정화와 효율성을 높여 구인기관과 구직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관련된 공공기관과 협업관계를 확대하여 검증된 참가자와 참가기관의 인력풀을 확보한 실용적인 잡페어로 발전시켜 의료관광 분야 인력난 해소를 통한 의료관광 분야의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3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국악공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국악공연

요 약

□ 전통시장·국악 전문기관과 지자체 협력으로 탄생한 고품격 국악공연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통시장 선정, 협조기관 조율 및 공연실황 TV방영
- [국악방송] 국악인 섭외, 무대설치, 공연중계, 공연실황 방송용 제작
- [지자체] 현수막 게시, 안내방송 등 홍보 및 경찰서·소방서와의 협조체계 구축



< 남원공연 >



< 양양공연 >



< 영동공연 >



< 양평공연 >



< 나주공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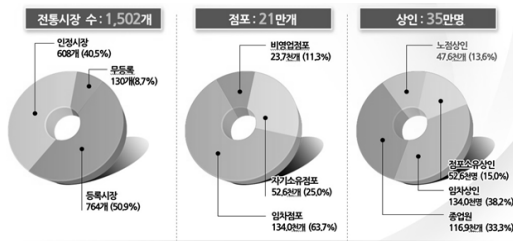
< 장원공연 >

■ 서민경제의 근간, 전통시장 보호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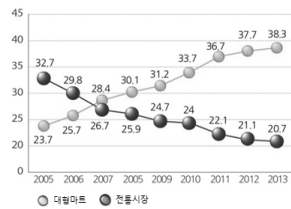
어릴적 부모님과 함께 종종 들렀던 전통시장은 볼거리, 먹거리가 풍성한 활력 넘치는 공간이었다. 걸쭉한 목소리로 물건을 파는 상인들과 여기저기 흥정하는 목소리까지 요란하지만 정감 있는 장소였다. 하지만 현재 전통시장은 위기에 몰렸다. 대형마트와 SSM이 등장하면서 소비자들은 발길을 돌렸고 전통시장의 경영여건은 날로 악화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최근 10년 동안 약 150개의 전통시장이 사라졌다.

2013년 기준으로 국내 전통시장 수는 1,502개로 점포 21만개, 상인 35만 명이 종사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매년 약 2천 억원 내외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전통시장 매출액은 대형마트와 대조적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다.

▼ 국내 전통시장 현황



▼ 대형마트 vs 전통시장 매출액 비교



■ 문화관광 명소로 변모하는 전통시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은 전통시장의 고유한 특성을 발굴하고 개발하여 쇼핑과 관광이 가능한 시장으로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08년에 시작하여 2014년까지 총 94개 전통시장을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육성 지원하였다. 그 결과 부산 부평깡통시장, 광주

대인시장 등 쇼핑과 문화관광이 어우러진 전통시장이 발굴 육성되어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부평광통시장 2013년 10월에 문을 연 전국 최초의 야시장으로 부산을 대표하는 야간 관광명소로 인기

광주대인시장 빈 점포에 청년예술인을 유입시켜 문화가 접목된 시장으로 육성, 데이트 장소로 인기

■ 전통시장을 무대로 정통 국악공연 개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해 4월 국내 유일의 국악 전문채널인 국악 방송과 협력하여 전통시장 국악공연 공동개최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통시장을 문화관광 명소로 육성하고자 하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남원공설시장’, ‘양평물맑은시장’, ‘양양전통시장’, ‘나주목사고을시장’, ‘영동전통시장’, ‘창원우수시장박람회’를 무대로 총 6회에 걸쳐 공연을 개최했다. 전통시장과 국악공연을 접목시킴으로써 문화의 장으로 변모하는 전통시장의 이미지를 전파하고 공연장 중심의 국악공연을 서민적 대표공간인 전통시장에서 개최함으로써 국악 대중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였다.

▶ 남원공설시장(5월)



▶ 양평물맑은시장(6월)



▶ 양양전통시장(7월)



▶ 나주목사고을시장(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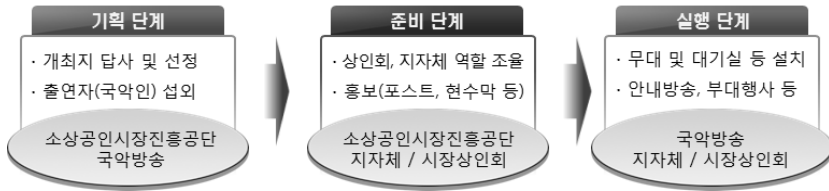
▶ 영동전통시장(9월)



▶ 창원우수시장박람회(1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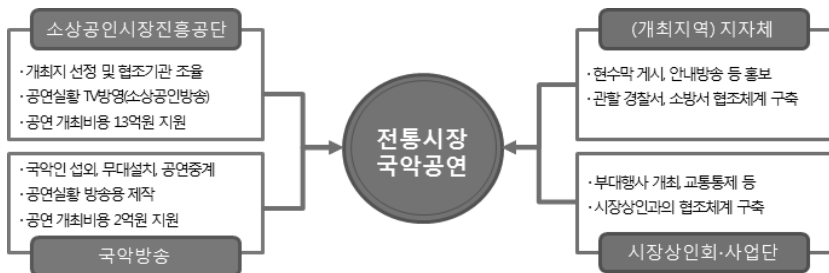


전통시장 전문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국악 전문기관인 국악방송을 중심으로 공연 개최지역 지자체, 시장상인회 등이 협력하여 기관 본연의 전문성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였다. 지역주민과 전통시장 상인이 흥겹게 어우러질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국내 최고 수준의 국악인과 아티스트가 참여하는 수준 높은 공연 개최를 목표로 하였다.



5개 기관 협업으로 공연 완성도 제고

공연 개최에 있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공연 개최 비용의 40%를 분담하고 개최지 선정 및 지자체·시장상인회와 공연 개최에 관한 업무조율을 담당하였으며, 국악방송은 공연 개최 비용의 60%를 분담하고 국악인 섭외, 공연 스텝 구성, 무대설치 등의 공연준비를 전담했다. 또한 해당 지역 지자체와 시장상인회,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은 관객 유치를 위한 홍보와 개최 당일 부대행사 및 교통통제 등의 업무를 지원했다. 5개 기관이 각각의 전문분야에 맞게 공연 준비를 분담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완성도 높은 공연을 제공할 수 있었다.



■ 전통시장 이미지 개선 및 국악 대중화에 기여

6회에 걸친 공연은 언론사를 통해 총 78건 보도되었고, 총 6,300명의 관객이 관람하였으며, 소상공인방송을 통해 총 97회 TV방영되었다. 이에 따라 문화공간으로서의 전통시장 이미지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파할 수 있었으며, 국악 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단위 : 명)

구분	1회(남원)	2회(양평)	3회(양양)	4회(나주)	5회(영동)	6회(창원)	합계
관객 수	1,000	1,300	1,300	1,200	500	1,000	6,300

- “수준높은 공연으로 문화와 관광의 명소로 도약하고자 하는 남원공설시장을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남원시청 마OO과장
-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이런 계기로 전통시장이 활성화되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 공연관객 이OO씨
- “좀 일찍 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연을 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 국악인 김OO 명창
- “전통시장이라는 공간이 이렇게 직접 관객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연장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놀라웠습니다.” – 국악인 김OO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이번 협업을 계기로 전통시장을 문화관광 명소로 변모시키고자 하는 정책목표의 효과적인 구현을 위해 전통시장과 연계 가능한 문화사업 전문기관을 발굴·협력하여 전통시장 이미지 개선을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산업단지! 에너지효율 향상으로
더 깨끗하고
더 친근하게...”

14

산업단지 미활용에너지
공동이용 확대 및
에너지셰어링 확산

산업단지 미활용에너지 공동이용 확대 및 에너지쉐어링 확산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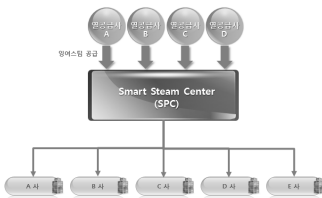
□ 주요내용

- 에관공 사업과 유사영역에 있는 산업공의 생태산업단지(EIP)구축 사업과 연계하여 산업단지 효율향상 제고 및 기업 시장참여 확산 모델 발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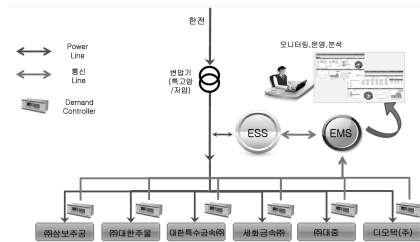
□ 참여기관 : 에너지관리공단(주관), 한국산업단지공단(협조)

□ 협업과제 주요 성과 및 사례

- 여수 국가산업단지 잉여스팀 및 부생가스 활용방안 마련
 - 잉여스팀 및 잉여부생가스 공동이용으로 연간 약 1,000억원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 기대
- 다산 지방산업단지 공동 전기저장장치 설치방안 마련
 - 공동 전기저장장치(ESS) 설치 및 이용으로 연간 약 4억원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 기대
- 반월 국가산업단지 온실가스감축협의회 구성
 -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종합대책 수립 및 통합진단사업 추진(2015년)



• Smart Steam Center: 3기를 활용한 통합 스팀 수요/공급 및 현안 시스템 구축
 • 공급: 보령발전본부 공공 연계 수립
 • 수요: base 열량 및 Steamergy 기준에 따라 참여 수립



■ 산업단지 이미지는?

산업단지는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재화를 생산하는 곳이며 수출의 주역이지만 ‘산업단지’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시커먼 연기와 요란한 기계 소리, 우중충한 작업복을 입은 근로자이다. ‘산업단지’ 하면 칙칙하기만 하고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미지 개선을 통해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산업단지가 될 수는 없는 것일까?

■ 생태산업단지로...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는 2005년부터 생태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생태산업단지란 산업단지가 하나의 유기체가 되어 한 회사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다른 회사의 원료나 에너지로 재활용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오염을 최소화하는 곳이다.

한마디로 어두운 산업단지의 이미지를 좀 더 밝고 맑은 곳으로 탈바꿈하는 사업이다.

■ 에너지관리공단과 손을 잡다.

에너지관리공단은 1980년 설립부터 35년간 에너지 절감과 친환경재생에너지 보급, 이를 통한 온실가스 저감의 중추기관으로서 활동하며 수많은 노하우를 축척해 왔다.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에너지관리공단은 생태산업단지구축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관리공단의 에너지 및 온실가스 저감 노하우를 접목시킨다면 그 성과가 한층 배가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양 기관은 3차에 걸친 실무회의를 통하여 우선 산업단지 에너지사용 현황에 대한 진단을 실시키로 하였다.

각 산업단지별로 버려지고 있는 에너지는 없는지, 에너지 공유를 통하여 에너지비용을 절감할 여지는 없는지 조사하여 향후 실제 사업에 적용될 모델을 도출하는 작업에 착수키로 하였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여수국가산업단지'와 동종업종이 밀집해 있는 '고령 다산지방산업단지', 그리고 경기도 산업단지의 대표주자인 '반월국가산업단지'를 첫 사업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여수국가산업단지 - 버려지는 에너지를 재활용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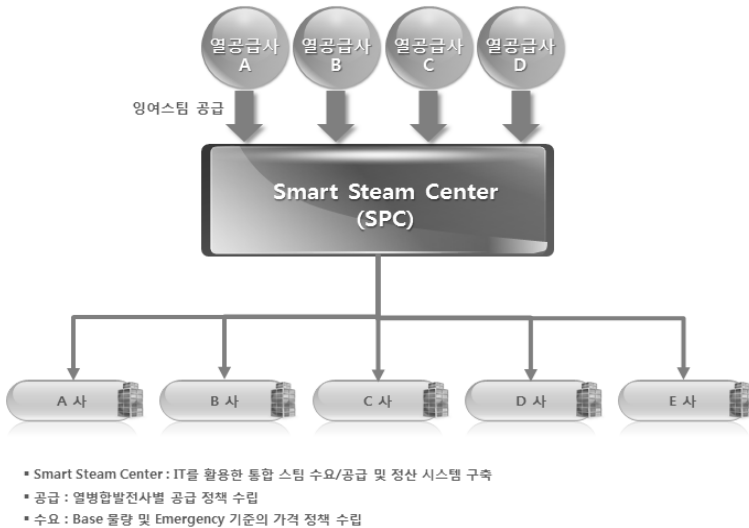
우리나라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여수국가산업단지에서의 에너지 낭비요인을 개선하기 위하여 진단을 실시하였다. 여수국가산업단지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원유로 환산하면 1,700만톤으로 우리나라 전체 산업부문 에너지사용량의 13%를 차지하고 있다.

여수산단에 대한 진단 결과 버려지고 있는 에너지는 어마어마한 양으로 조사되었다. 버려지는 스팀은 무려 1억톤이며 산업공정에서 나오는 부생가스는 무려 2만 5천톤에 달한다. 에너지관리공단과 산업단지공단은 버려지는 막대한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재활용하여 에너지 절감과 생태친화적인 산업단지 구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가를 협의하였다.

버려지는 에너지를 활용하지 못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경제성에 있었다.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부생스팀이나 가스를 재활용하기 위하여 막대한 투자비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각 사업장에서 버려지는 에너지를 수거하여 대규모로 공급한다면 투자비 대비 경제성이 생겨날 수도 있다. 만약 버려지는 스팀과 부생가스의 20% 정도만 경제성 있게 활용한다면 연간 1,000억원의 전기요금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산업단지공단과 에너지관리공단은 버려지는 에너지를 체계적으로 수거하여 재공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뜻을 같이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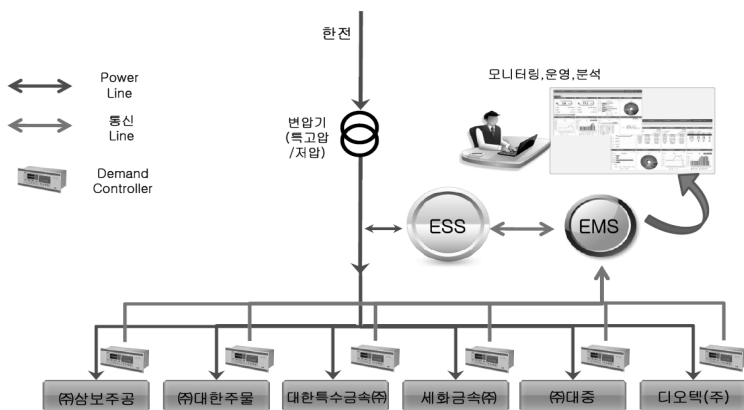


고령 다산지방산업단지 - 공동으로 투자하여 전력피크를 줄이자.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에너지관리공단은 고령 다산지방산업단지를 상대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다산지방산업단지를 선정한 것은 본 산업단지가 주물 및 관련 업종이 밀집되어 있어 공동으로 에너지를 이용하기에 용이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다산지방산업단지의 주업종인 주물업종은 특히 전기사용량이 많다는 점에 착안하여 공동으로 전기사용량을 줄이고 전력피크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예열 및 용해과정에서 전기사용이 순간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것이 피크전력증가의 원인이 되고 전력요금을 상승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에 따라 전력저장장치(ESS)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전력저장장치는 전력사용량이 적은 시간대에 전력을 충전하였다가 전력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주로 오후 2시~4시 사이)에 사용하는 장치이다. 다산산업단지내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6개 업체를 대상으로 공동으로 전력저장장치를 설치하였을 때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약 13MWh의 피크전력을 저감하여 연간 약 4억원의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반월국가산업단지 - 항구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다.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에너지관리공단은 경기도에서도 공동 사업을 진행하였다. 경기도의 대표산업단지인 반월국가산업단지에 온실가스감축협의회를 도청, 시청, 시민단체, 입주업체 등으로 구성하여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논의하였다.

그 결과 2015년에는 경기도 내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감축 종합계획을 수립키로 하였으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통합진단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키로 하였다.

온실가스감축협의회는 산업단지에 구축된 항구적인 에너지 절감을 위한 상설협의체로 향후 이 지방의 에너지절약의 허브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관련 행정지원을 실시하였다.

■ 에너지쉐어링 시대를 열다

이번 협력사업을 통하여 얻은 교훈은 버려지는 에너지도 함께 하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별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경제성이 없는 에너지도 모아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면 막대한 양의 유용한 에너지로 바꾸어 낼 수 있다.

우리는 그 가능성을 여수국가산업단지에서, 다산지방산업단지에서 그리고 반월국가산업단지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2015년은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한 해가 될 것이다. 가장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공유하는 방안을 도출하여 실제 사업에 착수함으로써, ‘에너지쉐어링’의 시대를 열고, 그 사례가 우리나라 모든 산업단지에 전파되어 보다 깨끗하고 지역친화적인 산업단지, 생태산업단지, 에너지저소비형 산업단지로 거듭나는 날까지 협력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협업사업

에너지관리공단(KEMCO)		한국산업단지공단(KICOX)
 <p>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온실가스의 배출을 저감시키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p>		 <p>산업단지의 조성 및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과 기업체의 산업활동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실현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통하여 국가경제발전에 기여</p>

한국시설안전공단

15

민간주거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자금보증 프로그램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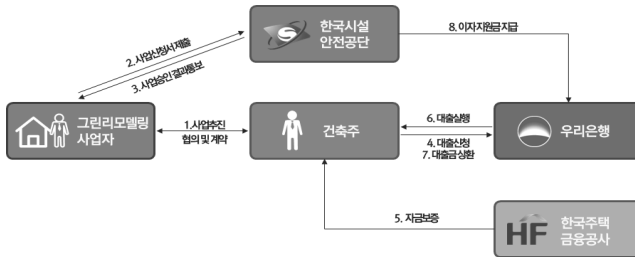
민간주거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자금보증 프로그램 마련

요약

□ 절차간소화를 통한 그린리모델링 이차지원사업 참여기회 확대로
에너지 비용절감 및 건축물 가치향상 기여

- [한국시설안전공단] 그린리모델링 이차지원사업 총괄 추진
- [한국주택금융공사] 그린리모델링 자금보증 상품 개발
- [우리은행] 그린리모델링 대출상품 개발

▽〈민간주거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차지원사업 절차〉



▽〈협업의 효과〉

그린리모델링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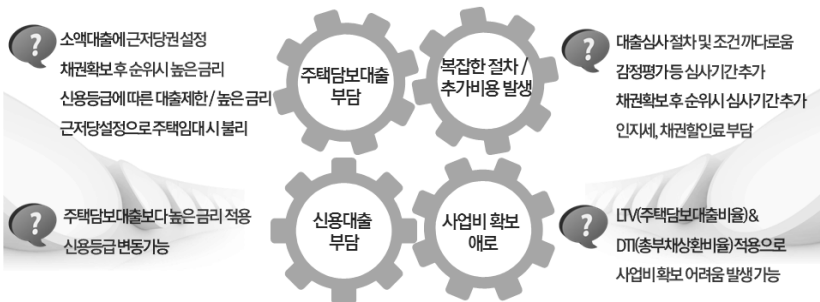
- 이차지원사업 신청절차 간소화 및 참여기회 확대
- 한국시설안전공단 & 한국주택금융공사 방문 불필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30년 된 노후 아파트에서 병환중인 노부모와 거주하고 있다. A씨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 오랫동안 살면서 정도 많이 들었고, 사통팔달의 입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현재 주거환경에 만족하는 편이다. 하지만 불만이 하나 있다.

매년 추운 겨울이 되면 결로가 발생하여 방과 거실 구석마다 거무스름한 곰팡이가 발생하고, 난방을 해도 창틈으로 들어오는 찬바람에 따뜻하기는 커녕 난방비만 날로 늘어만 갔던 것이었다. 마침내 2013년 A씨는 많은 난방비 부담과 열악한 실내 환경 때문에 노부모의 건강이 더욱 악화될까 걱정하여 아파트를 리모델링하기로 결정하고 여기저기 수소문하여 계획을 세웠지만, 결국 만만치 않은 리모델링 비용과 복잡한 주택담보대출 절차, 대출이 가능할지 염려되어 늘 주저할 수밖에 없었다. 겨울만 되면 유독 기침이 심해지는 노부모님 생각에 A씨는 이번 겨울을 앞두고 다시 고민이 많아졌다.

▼ [그림 1] 기존 문제점 및 개선방향



자금보증	소비자 편의증진	절차 간소화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주택담보대출 또는 신용대출 개선: 자금보증으로 대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저당설정 불필요 ✓ 저금리/금리우대 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담보대출* 부담 완화 (담보대출 가능하나 만기가 5년) * 주택담보대출 만기구조 정기회대액 (금융위, 기재부세 연착륙 대응 방안, '13.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주택담보대출시 절차복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저당권설정감정평가, 임대차조사 등 개선: 자금보증으로 절차 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 및 상환능력만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약 70%가 LTV-DTI 최저기준상하→대출애로 개선: 자금보증으로 LTV-DTI 미고려

그러나 2014년부터 A씨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졌다. 바로 한국시설안전공단의 ‘민간주거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차지원사업’을 통하여 초기 공사비 걱정 없이 그린리모델링을 할 수 있고, 주택담보대출 없이도 자금보증만으로 사업비를 마련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올 겨울 A씨는 노후 아파트를 그린리모델링하여 예전보다 난방비를 30% 이상 절감하고, 새 아파트 같이 쾌적한 실내환경에서 노부모와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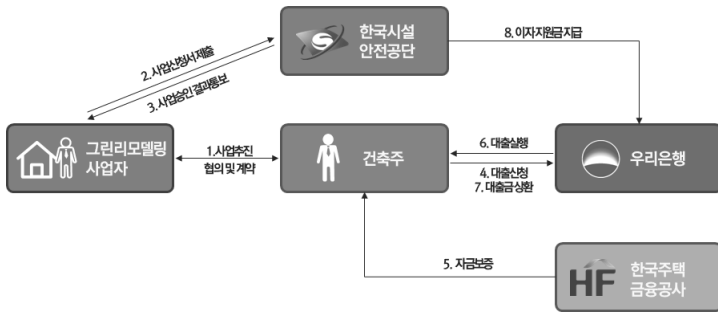
2014년부터 한국시설안전공단은 한국주택금융공사·우리는행과 협약을 맺어 누구나 쉽게 노후 주거건축물을 그린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그림 2] 협업기관 역할 분담



‘민간주거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차지원사업’은 국민들이 초기 사업비에 대한 부담 없이 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은행에서 저리로 대출받게 하고, 절감되는 에너지 비용 등으로 사업비를 분할 상환토록 하는 사업이다. 건축주는 ‘그린리모델링 이차지원사업’을 통하여 5년간 그린리모델링 사업비에 대한 금융대출 이자를 최대 4%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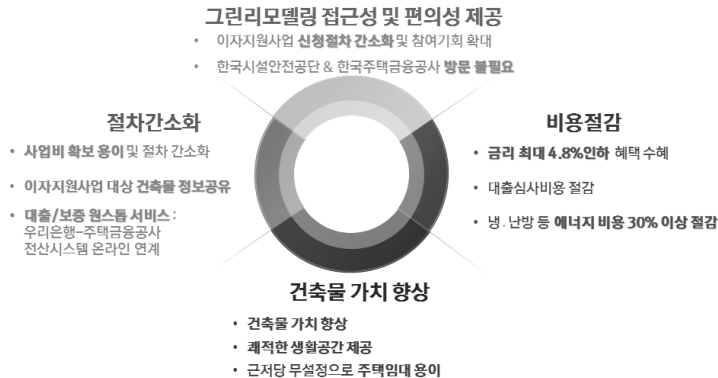
▼ [그림 3] 민간주거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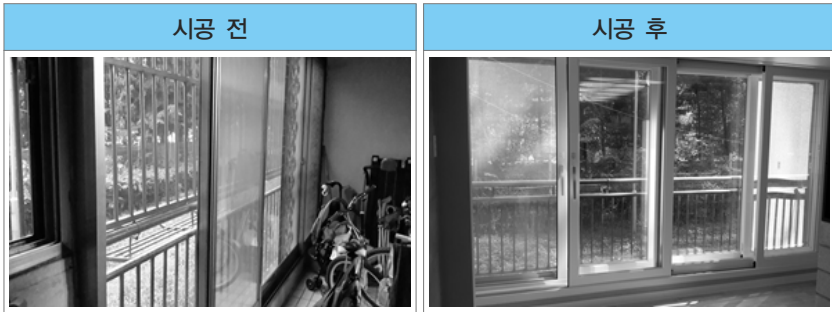
또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그린리모델링 자금 보증서’를 통하여 별도의 담보 제공 없이 편하게 그린리모델링 자금을 쉽게 받을 수 있다. 주택담보 대출시 근저당권설정, 감정 평가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금융공사의 보증을 통해 신용 및 상환능력만 평가하여 절차가 간소화되고, 주택담보대출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여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

이제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을 통해 A씨처럼 어려움이 많았던 일반 인들도 쉽게 자신의 집을 그린리모델링하여 최근 계속되는 에너지 가격 상승 추세 속에서도 냉·난방 등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임은 물론, 노후된 주거환경에서 벗어나 쾌적하고 새로운 주거환경으로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

▼ [그림 4] 협업의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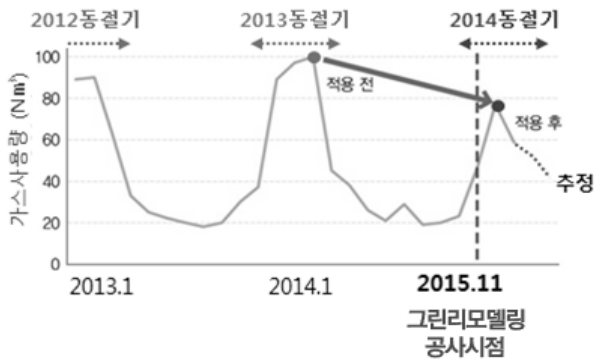


실제로, 준공 후 22년이 경과된 서울 S 아파트(전용면적 84.85㎡)의 그린 리모델링 사례에서는 창호 공사를 통해 기밀 및 단열성능을 개선한 결과, 전년도 대비 전체 동절기 기간(14.12~15.3)의 에너지 사용량이 30.5% 절감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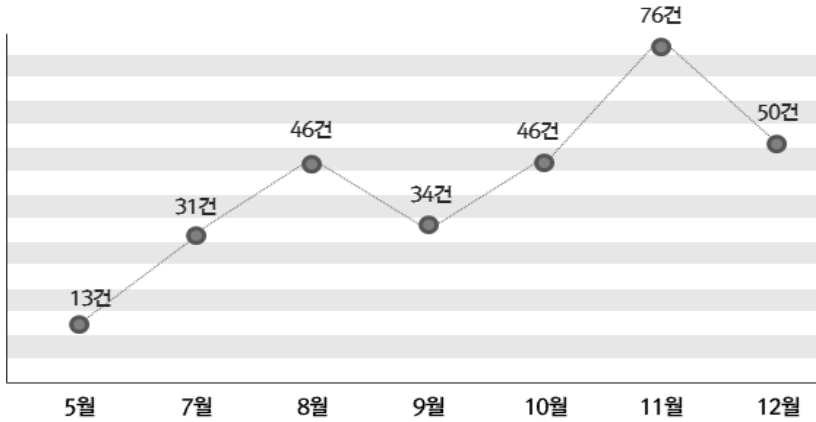
▼ [그림 5] 서울 S 아파트 가스 사용량 변화

가스 사용량 변화



현재 총 296건의 주거부문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중 99%에 달하는 292건이 자금보증 상품 민간 주거부문의 상품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에 힘입어 이자 지원을 통한 주거부문의 그린리모델링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그린리모델링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그림 6]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추진현황



한국시설안전공단은 한국주택금융공사·우리은행과의 협업을 통해 그린리모델링 민간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대출상품과 자금보증 상품을 출시('14년 5월)하는 한편, 콜센터(ARS 1899-1577) 운영 및 공익광고 송출로 그린리모델링사업의 홍보와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그린리모델링의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공익광고 1편 (삶의 가치를 높이다)]



[언론보도]

앞으로도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이자지원사업의 개선을 통한 절차 간소화, 대출 가능한 적용은행 확대 등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들을 지속할 것이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소득연계
맞춤형 학자금 지원으로, 고소득층의
학자금 부정수급을 방지 ”

16

학자금 지원 부정수급
사례방지를 위한 소득·재산
조사시스템 구축

학자금 지원 부정수급 사례방지를 위한 소득·재산 조사시스템 구축

요 약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소득·재산조사를 활용한 고소득층의 학자금 부정수급 방지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소득산정체계 개선지원 및 소득·재산조사 시스템 구축·운영
- [한국장학재단] 소득산정체계 개선 및 자체 시스템 개편, 수요자에게 홍보 및 안내
- [공공] 21개 기관에서 제공한 59종의 소득·재산·인적정보 활용
- [민간] 109개 금융회사에서 제공한 금융재산 및 부채정보 활용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소득연계 맞춤형 학자금 지원으로, 고소득층의 학자금 부정수급을 방지”

■ 주요 내용

한국장학재단(교육부)에서는 학자금 신청자의 정확한 소득·재산 파악이 어려워 고소득층 자녀가 국가 장학금을 부정 수령하는 등의 문제 개선에 한계가 있었다.

매년 사회적 관심이 되고 있는 대학 등록금 사업에 대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정확한 소득·재산 파악*으로 형평에 맞는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과 한국장학재단은 지난 1년간 협업 체계를 구축, 차질 없는 역할 수행으로 학자금지원사업 정보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개통('14.11월)하고, 안정적 시스템 운영으로 '15년 1학기부터 개편된 소득분위 체계를 기준으로 학자금을 지원한다.

* (기존) 건강보험 산정자료를 활용한 소득분위 산정체계로 금융정보 등 미반영한계 → (변경)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금융재산, 부채 등을 포함한 소득·재산 파악으로 합리적인 소득분위 산정체계 마련

▼ 추진배경

학자금지원사업 '15년 예산규모 7조원
(국가장학금 1차, 근로장학금, 사생도형장학금, 전문학자금대출, 일반학자금대출)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활용 | 대학생 가구의 경제상황 및 소득수준 반영 부정확 | 대한민국 신뢰도 하락

주요 외부 지원사항 | 인사원 감사('13.6.20) | 학자금 지원 신청자에 대한 소득분위 산정 부정확 | VIP 지원사업('13.6.25) | 고소득층에게 국가장학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할 것

신문보도 기사 | 서울신문 2013.6 | **고소득층 자녀에 국가장학금이러니...** | 중앙일보 2013.6.20 | **최소소득 권장월급을 눈높이 선별기준 적용 87억금융자금이 저년에도 유출** | 한국경제 2013.6

▼ 학자금지원사업 정보시스템 개요

학자금지원사업 업무처리지원시스템

장학재단 홈페이지 |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 공적 금융 정보

국가장학금 지원 현황 | 신청정보 연계업무 | 공적 금융 자료교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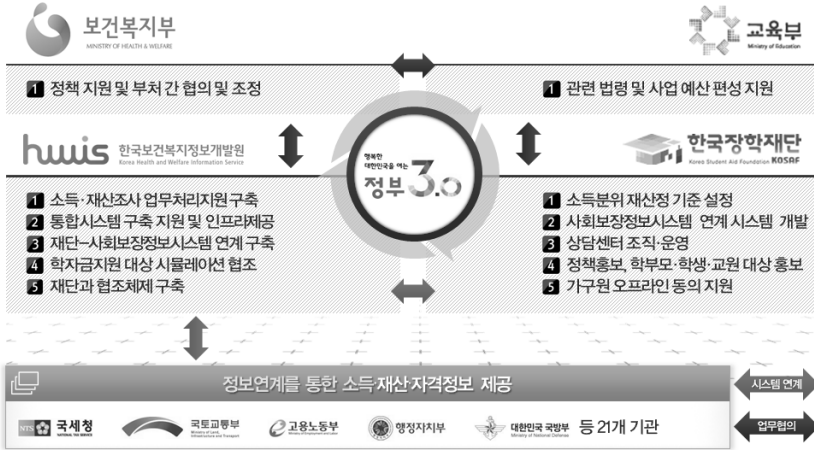
소득분위 별 공적금융 조회 | 소득연계 연계업무 | 소득재산조사 내역조회/연계 | 금융정보 | 인적정보

한국장학재단 | hwis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국립중앙도서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소득분위 산정 정확성 제고

협업체계

협업체계



기관별 역할 및 추진내용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은 한국장학재단의 소득산정체계 개선 지원 및 소득·재산 조사 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 「개발실무협의체」 구성을 통해 각 시스템 및 사업의 이해, 구축 진행현황 및 이슈사항을 공유, 검토함으로써 안정적 시스템 오픈을 도모

한국장학재단은 소득산정체계 개선 및 자체 시스템을 개편하고, 시스템 오픈 전 수요자에게 사전에 충분히 안내(설명회, 홍보, 교육 등)하여 원활한 제도 안착 및 이해관계인의 혼란을 최소화하였다.

또한,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내 유관 부서와 협업, 원활한 소득·재산 자료 활용을 위해 국세청, 보건처, 행정자치부 등 관계 부처와도 적극 협력하였다.

▼ 추진내용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공적자료 및 금융자료 기반의 조사기능을 활용하여 학자금지원사업(국가장학금·대출금) 신청인의 정확한 소득분위 산정 지원



■ 주요성과

“ 국민 중심의 학자금지원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정보연계 강화, 정보의 공유로 국정과제의 안정적 수행* 및 정부 3.0을 실현하였다.

* <국정과제 44>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
<국정과제 29> 교육비 부담 경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소득·재산조사 정보를 활용한 정확한 대상자 선정 지원으로 고소득자의 학자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실제로 필요한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정확하게 지급함으로써 정부재원의 효율적인 집행과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국민 만족도를 제고하였다.

또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인적·자격정보 등을 활용함으로써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각종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감소 및 이의신청절차 개선으로 국민 편의성 증대가 기대된다.

■ 우수사례

서울 사립대학에 재학 중인 김모씨(26)는 작년 건강보험공단 기준자료를 이용한 소득분위 산정을 통해 4,729,215원(5분위)의 장학금을 지급받았다. 금융정보(보험·예금·적금·주식 등)와 부채가 포함되지 않은 산정방식으로 가계소득 대비 많은 금액의 장학금을 수령하게 되었다. 하지만 올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을 통한 소득분위 산정이 이뤄지면서 금융자산과 부채 환산액이 '월 소득인정액'에 더해져 168만원의 장학금을 지급받았다. 작년 대비 169만 5천원이 감소된 금액이며 환산된 소득수준보다 과도하게 지급되는 금액의 절감 효과를 이끌어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국가장학금 1유형 소득산정에는 지난해와 달리 예·적금, 보험, 주식 등 금융자산과 부채를 포함한다. 가계 구성원들이 벌어들이는 '월 순소득'에 '재산 소득 환산액'을 더한 것이 소득분위 산정을 위한 '월 소득인정액'이다. '재산 소득 환산액'은 금융자산·부동산·자동차값 등 자산을 일정 기준식에 대입해 산출한다.

예를 들어 월 가구 소득 300만원, 6억원짜리 주택 보유, 부채 3억원인 가정의 경우 기존 산정방식에선 '월 소득인정액'이 792만원(10분위·상위 1.2%)으로 국가장학금 지급 대상이 아니지만, 새로운 산정방식에선 '월 소득인정액'이 640만원(7분위)으로 낮아져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소득분위 산정시 예금자산과 부채를 산정기준에 넣은 후 더욱 촘촘한 정보망을 통한 정확한 대상자 선정을 통해 복지재정의 누수를 사전방지하며 더불어 새로운 산정기준에 따라 과거 건강보험 정보만으로는 알 수 없던 사업자의 실제 소득, 연금 소득 등이 적용되어 기존보다 정확한 소득분위 적용이 가능하다. 예금자산은 많지만 '순 소득'은 적은 부유층이 부당하게 국가장학금을 지급받거나, 반대로 은행 대출을 끼고 주택을 매입한 '하우스푸어'가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도 해결하였다.

(출처 : 경향신문, 2015. 1. 30)

학자금 지원 부정수급 사례방지를 위한 소득·재산 조사시스템 구축

민생경제 맞춤형복지 국정과제

국정과제 44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 체계 개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확대 및 사후관리체계 구축

- 각 부처 복지사업의 각종 기준을 공적자료 중심으로 유형별로 표준화
- 법정부·지자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 지자체, 각 부처에 관련정보를 제공

'14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 학자금 대출·징하금 지원사업(교육부) 업무처리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한 정확한 대상자 선정 지원

국정과제 29 교육비 부담 경감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지원

- 실제 등록금 대비 소득 수준별 지원(기초~8분위 전액~25%) 및 저소득층 대상 성적요건 완화 검토
- 든든학자금 대상을 소득 8분위 이상 학부생으로 단계적 확대

'14년 교육부 업무보고

-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 등록금 지원을 위해 소득분위를 정확하게 산정하고 고소득자 부정수급 방지

보건복지부 교육부

복지부 교육부

국민중심 맞춤형 복지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 부정수급 사례방지를 위한 소득·재산 조사시스템 구축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요

복지사업 보장기관

- 복지부
- 교육부
- 국토부
- 보훈처

2개 부처청 및 관련 기관 (300종)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신청 → 조사(협업) → 결정 → 급여 → 사후 관리

가구 정보, 소득·재산 정보, 금융재산 부채, 복지사업 정보, 중복부정정보

45개 기관 610종 공적정보 및 109개 금융사 금융재산정보

복지부, 국세청, 국토부, 행자부, 건강보험공단, 국방부, 금융기관

복지수급자

급여지급('14년)

- 월간 1.3조원
- 연간 15.6조원

학자금 지원 부정수급 사법방지용 위한 소득·재산 조사시스템 구축

협업효과 사례(언론보도)

“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선정 공정성 강화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소득 재산조사 활용

49개 공적자료
금융재산부채 활용

정확한 소득분위
선정

국가장학금
공정성 강화

파이낸셜뉴스 2015.01

국가장학금 공정성 강화...월소득 243만원
이하 480만원 지원

교육부는 2014학년도 '대학교육재정 증진 A사업'을 지원한 국가장학금을 올해는 지원하지 못한다. A사업 가지는 소득 재산이 많으나 소득 기준으로는 소득 분리가 어려우므로 선정된 국가장학금 11만5000명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올해 처음으로 국민소득특별조사에서 기존 소득 분리가 어려우던 저소득 11만 명, 연금소득 400만 명, 금융재산 3억 4000만 원이 이상 소득인형에 99만 원소 득분위 9분위(이하)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올해부터 대학 국가장학금 1 선정 기준에 금융재산 등 실질적인 소득 수준이 추가되면서 일부 고소득자의 부정수급 사례가 줄고 수혜자 선정에 공정성이 강화됐다.

교육부는 한국장학재단과 함께 201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 학자금 지원을 위한 기준금액 및 소득분위 선정결과를 1월 발표했다.

올해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기존 상시소득, 부동산, 자동차 및 연금소득, 금융재산, 부채 등 소득재산을 조사의 가구의 실질적 경제 수준 파악이 가능해졌다.

경향신문 2015.01

올해부터 적용되는 2015학년도 대학 교육재정 증진 A사업 지원 대상은 소득, 자산, 금융재산이 적게 선정됐다. 기존 수혜자를 제외한도 월 소득이 243만 원 이하, 자산 총액이 4800만 원 이하인 대학생만 지원한다. 월 소득이 243만 원 이상, 자산 총액이 4800만 원 이상인 대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민서 기자 | 2015.01.13

hwis



2014 공공기관 협업 우수사례집

17

안전한 전통시장 만들기

안전한 전통시장 만들기

요약

□ 전통시장 안전관리 취약

- 전통시장 안전사각지대
 - 제도적 안전점검 부재
 - 시설붕괴, 화재 지속 발생



- 상인 안전의식 부족 및 기술력 부족으로 열악한 상태로 존치

□ 전통시장 안전사각지대에서 안전지대로



- 제도개선을 통한 전통시장 안전점검 제도화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2014. 7. 14)으로 소규모취약시설에 포함
 - 설계도서 보존 의무화, 자체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개정 추진

□ 상인 스스로 지키는 안전한 전통시장

- 안전교육 확대
 - 상인대학 교육 과정에 안전교육 포함
 - 지방자치단체 전통시장 업무 담당자 교육
- 상인 및 담당 공무원 기술력 배양
 - 전통시장 안전관리 매뉴얼 제작·배포
 - ※ 상인교육 및 업무 담당 공무원 전통시장 유지관리 지침서로 활용

□ 인터넷망을 통한 전통시장 정보공유

-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 시스템(<http://www.s-fms.or.kr>)
 - 안전점검 결과 및 이력관리 정보
 - 기술자료 및 통계현황 등
- 전통시장 정보 시스템(<http://www.sijangtong.or.kr>)
 - 점포 수, 상가의 규모, 상인의 수, 위치, 상인회 정보 등
 - 기술자료 및 통계현황

□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 포스터 배포 및 캠페인 실시
- 전국 우수 전통시장 박람회 안전관 공동 운영

2011년 2월16일 삼척 중앙시장의 아케이드가 폭설로 붕괴되면서 전통시장의 안전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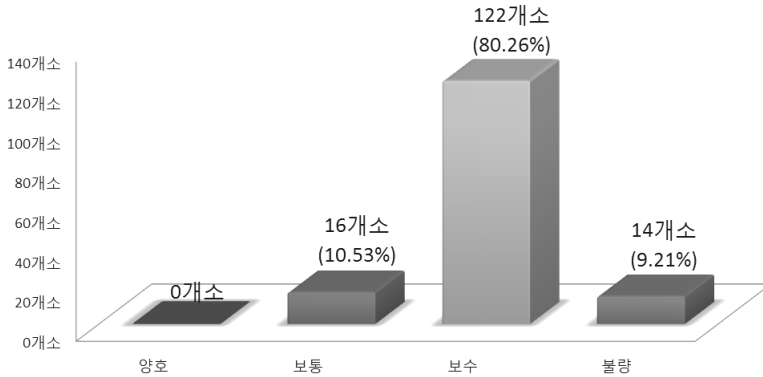
우후죽순처럼 확장되고 있는 대형마트에 밀려 폐업으로 빈점포가 증가하고 하루가 다르게 줄어드는 매출로 생활고까지 악화되는 등 하루하루가 불안한 상인들에게 매년 반복되는 안전사고는 치명적인 결함이 아닐 수 없다.

상인들이 이와같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생업에만 몰두하다 보니 시설은 점차 노후되어 가고 항상 그 자리를 지키는 소화기는 공간만 차지하는 애플 단지로 전락하여 작동 불능의 상태가 되어도 신경조차 쓰지 않는다. 매년 실시하는 전기, 가스, 소방 안전점검에 관심조차 없고 지적사항이 전달되어도 경제적 여력이 부족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만 바라고 있을 뿐 자체적으로 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정부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많은 돈을 투자한 시설현대화사업은 관리권이 상인회로 이관되어 있으나 유지관리 문제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 시설 및 소방설비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14년 안전점검 결과 시설부분은 89.47%가 보수 또는 불량 시설에 해당하고 소방부문의 경우는 소화기 불량 및 미설치 73%, 자동화산소화기 불량 및 미설치 93.3%로서 언제든지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열악한 상태로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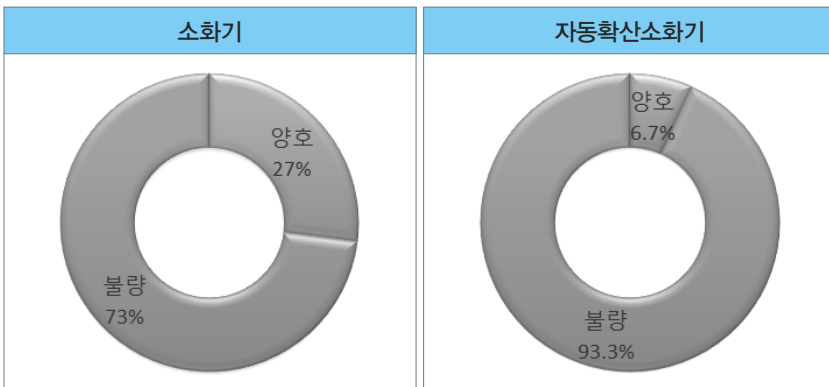
▼ 시설 안전점검 결과

점검결과	계	양호	보통	보수	불량
개소	152	-	16	122	14
백분율	100%	0.00%	10.53%	80.26%	9.21%



▼ 소방 안전점검 결과

점검결과	계	소화기		자동 확산소화기	
		양호	불량	양호	불량
개소	501	27%	73%	6.7%	93.3%



이와 같이 상황이 매우 심각함에도 제도적 안전점검이 시행되지 않는 안전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있어 매년 안전사고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 소화기는 비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초동단계의 화재 진압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며, 아케이드 설치시 상점의 출입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임의 변경 또는 제거하는 사례까지 있어 상인들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태이다.

■ 우리 시장 안전한가요?

2014. 2.17일 경주에서 발생한 마우나리조트 강당 붕괴사고로 초대형 참사가 발생하면서 삼척중앙시장 아케이드 붕괴의 선례가 있는 전통시장으로서는 또 다시 악몽이 재현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마우나리조트 강당 붕괴



삼척중앙시장 아케이드 붕괴



생업 종사에 여념이 없는 처지에 안전에 대한 투자는 언감생심에 불과하고 노후된 시설 및 소방설비에 투자할 여력이 없다. 바쁜 일상을 제쳐 두고라도 누구하나 안전점검을 수행할 능력조차 없어 발만 동동 구르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우리 시장이 안전하냐고 문의 해 봐도 답이 없는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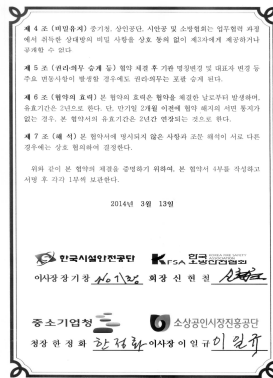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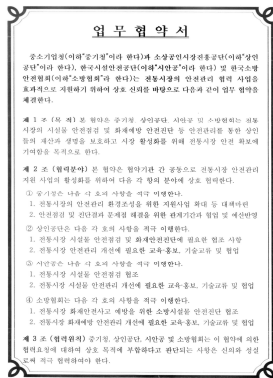
시간을 내서 ‘정보의 바다’라 일컫는 인터넷을 찾아봐도 전통시장 안전점검과 관련한 자료는 찾을 길이 없으니 답답한 하루가 매일 반복되고 있다.

■ 3개 공공기관 전통시장 안전확보를 위해 뚝뚝 뭉치다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삼척 중앙시장 붕괴사고 원인조사를 계기로 전통시장이 안전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주기적 안전점검을 지원할 수 있도록 소규모 취약시설의 범위에 포함하는 작업을 추진하는 한편, 전통시장의 안전사고 유형 분석을

실시했다. 소방분야의 안전점검, 시장 정보 및 현황 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계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소방안전협회와 함께 안전한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한 안전협력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 전통시장 안전관리 업무 협약서



■ 전통시장 안전협력 업무분장

3개 업무협력기관은 안전한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하여 안전점검 확대, 정보공유, 제도개선, 안전교육 및 홍보, 매뉴얼 배포 등 선결 과제를 선정하고 각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업무분장을 실시하였다.

▼ 전통시장 안전협력 업무분장



3개 협력기관 합동안전점검 실시하다

2014년 경주 마우나리조트 강당의 붕괴를 계기로 한국시설안전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동해안 폭설지역 45개 전통시장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소방부분이 포함된 전통기관 안전협력사업을 추진했다. 전통시장 안전 협력기관은 각 기관이 2014년 계획된 안전점검 대상 시설을 검토하여 상호 안전점검이 계획되어 있는 4개 시설을 선정하고 합동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전체 49개소에 대한 합동점검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합동점검은 개별법에 의해 각각 실시되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점검 기술 및 점검 노하우를 공유하여 상호 안전점검기술을 보완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다.



안전의식 개선은 교육과 홍보로

3개 협력기관은 상인들의 안전의식 개선을 위해 포스터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캠페인을 실시하는 한편 상인대학 교육프로그램에 안전 항목을 신설하였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매년 개최하고 있는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에도 최초로 전통시장 안전관을 설치하여 박람회를 찾은 많은 시민과 시장 관계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미디어 매체를 통한 안전점검 요령을 홍보하고 상인들이 많이 구독하고 있는 상인지에 안전지식을 소개하는 등 상인들의 안전의식 개선과 함께 기술력 향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상인들의 안전의식이 일부 개선되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상인대상 교육 실시



▶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안전관 설치



▶ 홍보물



■ 안전사각지대에서 안전지대로

협력기관은 3회의 간담회를 통해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들을 도출하고 전통시장이 소규모 취약시설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적 안전점검의 지원(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2014. 7. 14)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이 매뉴얼은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상인 교육시 안전 교재로 활용 중에 있으며, 경상남도에서는 3,000부를 추가 제작하여 기초자치단체 업무 담당자의 업무 매뉴얼로 배포되어 활용중이다.

■ 인터넷망을 통한 전통시장 정보공유 가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전통시장통통’시스템에는 전국 전통시장의 점포 수, 상가의 규모, 상인의 수, 위치, 상인회 정보 등이 잘 정리되어 있어 소방 및 시설 안전점검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정보공유를 위해 구축한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 시스템(S-FMS SYSTEM)’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 시스템’은 정보의 공유를 위해 인터넷 망을 통하여 전통시장 시설에 대한 정보와 함께 안전점검 결과 및 이력관리를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 안전협력기관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중소기업청,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및 ‘전통시장통통’에는 상기 사항 이외에도 안전관리 매뉴얼, 기술자료, 교육교재 등을 언제든지 받아 볼 수 있도록 게시되어 있다.



■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나

지금까지 안전점검의 법적 대상에서 제외되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전통시장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한국시설안전공단의 무상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의 개정이 추진 중에 있어 설계도서의 보존, 관리주체 자체 안전점검 연 2회 실시 등 전통시장 안전관리가 강화될 예정이다.

또한 안전협력 3개 기관은 상인들 스스로 안전한 전통시장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협업추진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2014년 성과를 바탕으로 안전점검 및 합동안전점검 확대(49개소 ⇒ 84개소),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상인대학의 운영, 상인들의 능력 배양을 위해 안전관리 매뉴얼 추가 배포, 안전관리 교육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관할 지방자치단체 전통시장 담당자의 능력배양을 위해 중소기업청과 협의하여 안전관리 교육 16회(16개 광역시·도 300~500명)가 추진 중에 있으며, 지속적인 제도개선 과제의 발굴을 위한 간담회도 분기별로 실시된다.

상인들의 안전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물 및 포스터 배포 등 홍보 횟수가 전년보다 확대될 전망이며, 미디어 매체를 통한 전통시장의 안전사고 예방 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 우수사례

□ 사례 1

협업기관 간 간담회를 통해 발굴한 무상 안전점검 지원, 설계도서 보존 의무화, 자체 안전점검 실시 등이 가능하게 되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2014. 7.14)으로 전통시장이 소규모 취약시설에 포함되어 한국시설안전공단을 통해 매년 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계도서가 손·망실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설계도서 보존을 의무화하고 상인 스스로가 연 2회 안전점검을 자체 실시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가 강화 되는 방안으로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의 개정 작업이 추진중에 있다.

□ 사례 2

전통시장 어디를 어떻게 점검해야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지 감이 잡히지 않아 답답했던 상인 김모씨는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어졌다.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소방안전협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전문가들이 모여 자연재해, 소방, 가스, 전기, 심폐소생술, 시설물안전에 대한 안전점검 요령, 체크리스트 등이 수록된 '전통시장 안전관리 매뉴얼'을 전국 1,500여개 전통시장에 10,000부 배포하였고 이 매뉴얼은 비전문가도 스스로 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기 때문이다.

□ 사례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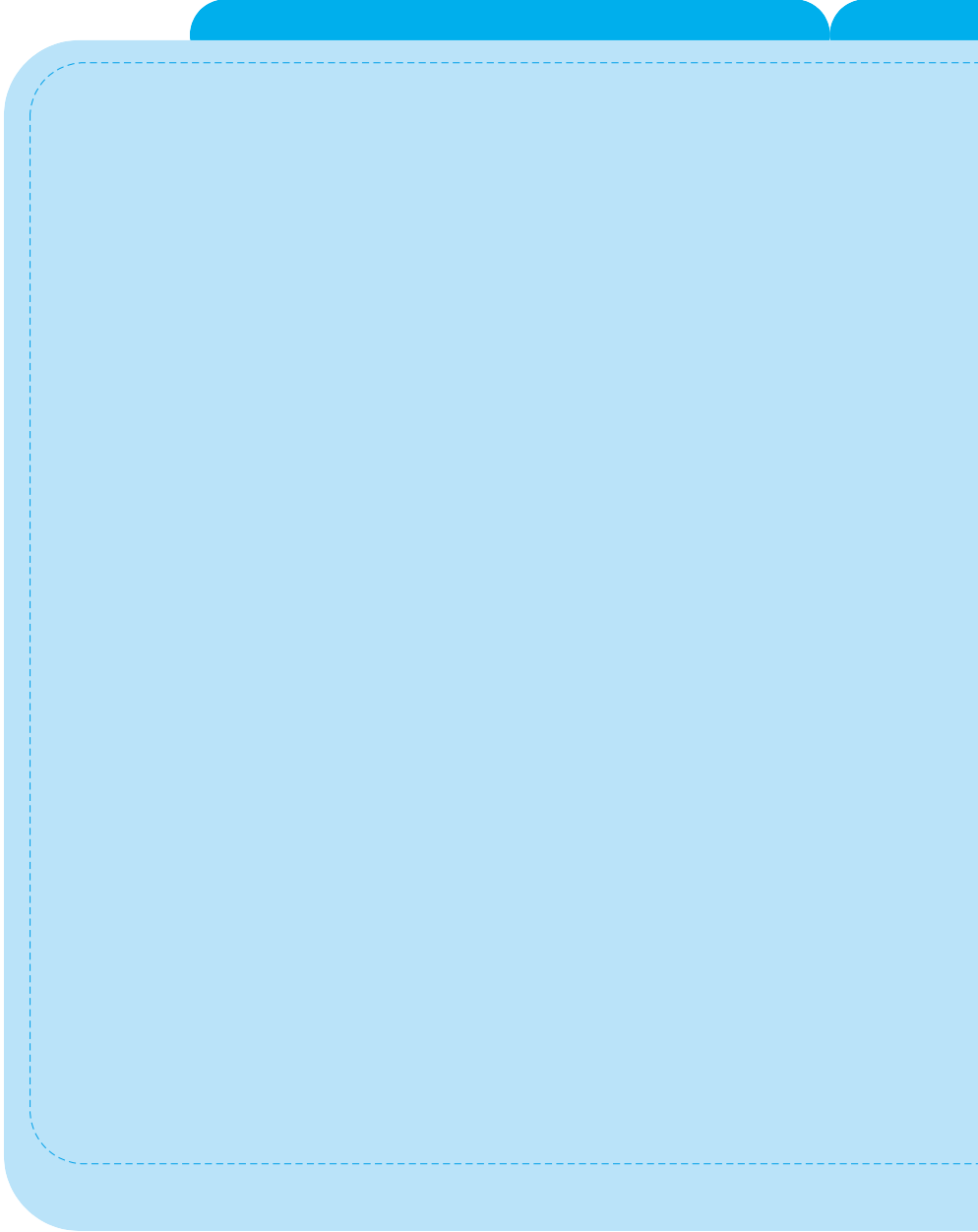
강재 기둥 옆에 화덕을 설치하여 운영 중이던 경기도 상인 모씨는 합동점검에 참여한 기관 모두 이구동성으로 시정조치를 시행할 것을 주문하자 즉시 방열판을 설치하였다.

상인 모씨는 전기, 가스, 소방 개별 점검시에 지적되지 않았던 것이 합동점검을 통해 문제점이 발견되어 다행으로 생각하고 여러기관이 각각 점검하지 않고 한꺼번에 점검을 해주니 장사하는 데에도 도움이 돼서 고맙다며 인사를 건넸다.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18

승강기 안전부품
인증업무 협업 강화

승강기 안전부품 인증업무 협업 강화

■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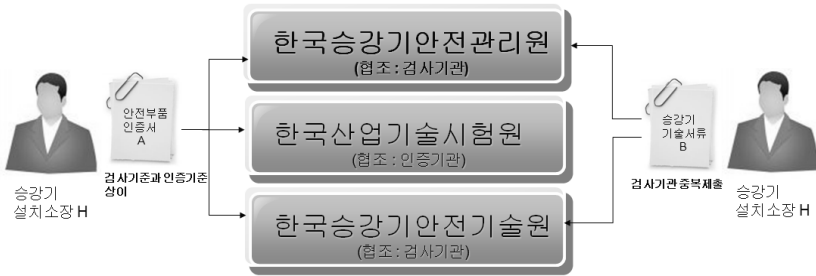
1. 승강기 검사기준과 안전부품 인증기준이 달라 업무혼선

아파트 승강기 설치소장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기존에 하던 것처럼 기술서류를 승강기 검사기관에 제출해 검증절차를 받던 중 이미 인증을 받은 부품이 개정된 검사기준과 다르다는 이유로 검사판정이 보류되었기 때문이다. A씨는 하루가 급하지만 검사판정을 무작정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2. 번거로운 승강기 완성검사 신청절차로 민원불만 가중

또한 승강기 검사기준이 개정되면서 2013년 9월 15일 이후 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설치되는 승강기의 경우 완성검사를 받기 전에 승강기 설계관련 기술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검사신청이 있을 때마다 검사기관을 방문해 일일이 기술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다, 동일한 승강기 모델이더라도 검사기관이 다르면 기술서류를 또다시 제출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이만저만 아니었다.

▼ 협업 전 업무흐선 및 불편사항



■ 그래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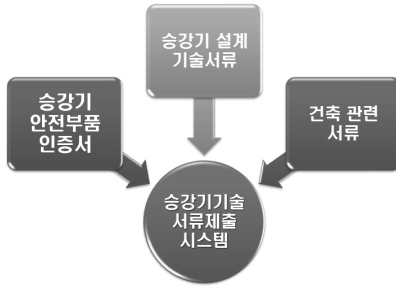
1. 승강기 검사 및 인증기준 연계(부합) 추진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은 검사 및 인증기관과 사전에 승강기검사 및 인증기준 정보를 공유해 안전인증부품 관련 14개 중 시급한 ‘비상정지장치’에 대한 인증기준은 검사기준과 동일하게 적용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향후 승안원은 해당 기관과 업무협력을 통해 안전인증부품 13개에 대해서도 검사기준과 인증기준이 부합되도록 제도를 손질해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2. 승강기 완성검사시 기술서류 검증절차 일원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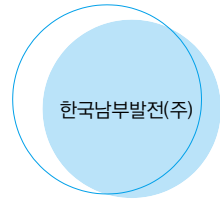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은 기존에 검사기관이 다를 경우 겪어야 했던 행정적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승강기기술서류시스템’(www.ketf.kesi.or.kr)을 구축했다. 앞으로 승강기 완성검사 신청자는 검사기관이 다르더라도 기술서류를 각각 제출할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한 번만 제출하면 된다. 이로 인해 고객은 완성검사 신청이 한층 편리해졌고, 사회적 비용도 절감되는 등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를 가져왔다.

- ▶ 협업 후 검사기준과 인증기준 연계 및 기술서류 일원화



- ▶ 승강기기술서류시스템 정보공유 사이트 (<http://ketf.kesi.or.kr>)





2014 공공기관 협업 우수사례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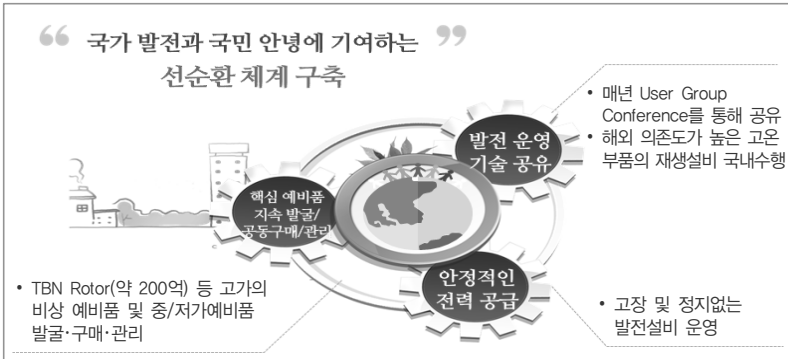
19

**가스터빈 정비예비품
공동운영을 통한 원가 절감**

가스터빈 정비예비품 공동운동을 통한 원가 절감

요 약

□ 가스터빈 정비 예비품 공동운동을 통한 원가 절감



- 참여기관 : 한국남부발전, 중부발전, 대륜발전 등
- 공동예비품 구매 및 공유 : 약 240억원 비용 절감
 - 고장시 조달기간 장기소요 및 고가인 예비품 공동구매
 - 예비품 최소보유, 긴급상황 발생시 보유자재 상호융통
- 기술분야의 상호 교류 및 협력 : 설비신뢰도 확보
 - 연소튜닝, 설비개선, 최신설비 정보교환 등 기술협력 강화

<p>안정적 전력공급 및 원가절감으로..</p> <p>국민 경제에 기여</p>	<p>발전사업자간 자원공유를 통해..</p> <p>발전원가 절감</p>	<p>사업자간 협업으로..</p> <p>생산성 향상</p>
---	---	----------------------------------

최근 대용량 고효율 화력발전소 및 복합발전소의 지속적인 증가와 대용량 원자력발전기의 신규 진입으로 우리나라 전력계통은 향후 2026년까지 20~30%의 높은 예비율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는 기존 발전설비의 이용률 하락으로 이어져 전력판매 매출감소 등 경영여건의 악화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국내 발전사들의 동일 기종 고가의 중요 부품 중복운영은 이러한 경영여건에서 심각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전기요금 상승의 요인으로 국민생활 안정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 생산성 향상 정책에 부응한 공공기관 협업 모델로, 발전설비 핵심 예비품을 공동 운영함으로써 재고비용을 줄이고, 비상시 신속복구로 사회적 비용 절감 및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추진하였다.

예비품이란 발전소 고장 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자재창고에 일정 규모로 보유하고 있는 예비자재를 말한다. 예비품 중에서 잦은 교체가 필요하고 사용빈도가 높은 고가 자재의 경우 각사에서 항상 보유하고 있으며, 고장요소가 적고 사용빈도가 낮은 자재의 경우 비용부담으로 인해 별도의 예비품을 보유하지 않고, 볼트나 너트 등의 소모성 자재는 국내에서 신속히 조달가능하기 때문에 창고에 보유하지 않는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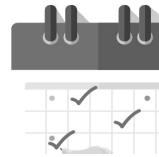
구분	남부발전					중부발전			지역난방		대륜
	부산 복합	신인천 복합	영월 복합	한림 복합	안동 복합	인천 복합	세종 복합	보령 복합	파주 복합	화성 복합	양주 복합
용량 (MW)	175	175	183	35	277	50	183	180	183	183	183
제조사	GE	GE	MHI	GE	Siemens	Siemens	MHI	ABB	MHI	MHI	MHI
기종	7FA	7FA	M501F	6B	SGT-H	V84.3	M501F	GT24	M501F	M501F	M501F
효율 (%)	52.22	52.39	51.07		54.97	52.71	51.07	54	51.07	51.07	51.07
준공	2004	1997	2010	1997	2013	2005	2014	2002	2011	2007	2014

가스터빈을 운영하는 다수의 발전회사들이 유사한 예비품을 보유하고 있고 특히 압축기, 연소기, 터빈용 중요부품 등의 예비품을 발전사별로 다수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사용빈도 대비 재고자산 장기 보관으로 사회적 비용

이 발생되고 있으며 대부분 자재 등이 외자재로 조달 및 복구에 상당기간 소요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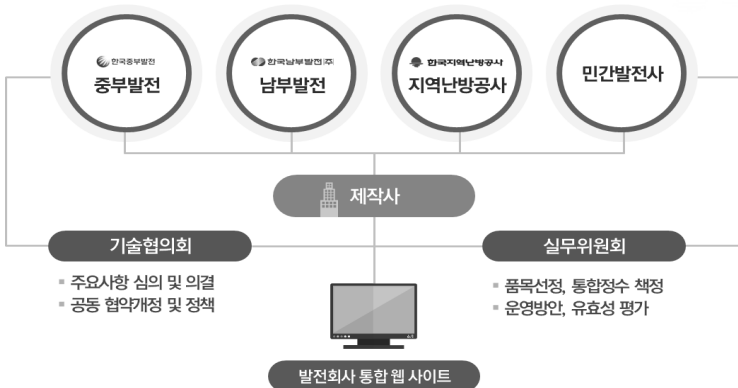
“ 기획재정부 협업 과제 선정 이후, 한국남부발전(주) 주관하에
자원 공동 활용을 위한 협업 과제 수행 ”

- '14.5 기재부 주관 정부 3.0 공공기관 협업과제 선정
- '14.6 실무자회의 [남부발전 본사]
 - 각사 확보 예비품 목록 공유, 기술협력 체계 구축 방안 협의
 - 공동운영 범위, 호환성 가능여부, 필요시 상호협조 등
 - 예비품 공동운영 업무처리 절차, 구매방법, 회계처리 등
- '14.11 예비품 공동운영 및 기술교류 협약체결 [남부발전 본사]
- 15.03 압축기 고정익등 91개 품목 약 120억원 공동구매 품의



기재부 주관 정부 3.0 공공기관 협업과제로 선정된 이후 남부발전 주관하에 가스터빈(M501F) 동일기종 설비를 운영 중인 타 발전회사와 공동구매 및 운영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였다.

④ 기술협의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을 통해 공조 체계 마련



추진경과로는 1차 실무회의 때 각사 확보 예비품 목록을 공유하였으며, 기술협력 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2차 실무회의에서는 공동운영 범위를

지정, 호환성 가능 여부를 논의하였으며, 3차 실무회의에서 예비품 공동운영 업무처리 절차, 구매방법, 회계 처리 등의 방안을 마련하였다. '14년 6월부터 주기적인 회의를 통해 각사 예비품 확보 및 기술협력 체계 구축방안을 협의하였다. 이에 따라 '14년 11월 예비품 공동운영 및 기술교류 협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압축기 고정익 등 91품목 약 120억원의 공동구매 품의를 결정하였다.








남부발전을 중심으로 중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대륜발전이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예비품 공동운영 및 가스터빈 운영기술 교류를 주요 역무로 추진하게 되었다. 또한, 공동운영 대상품목은 현재 각사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압축기로 선정되었다.

▼ 대상품목 선정 : 압축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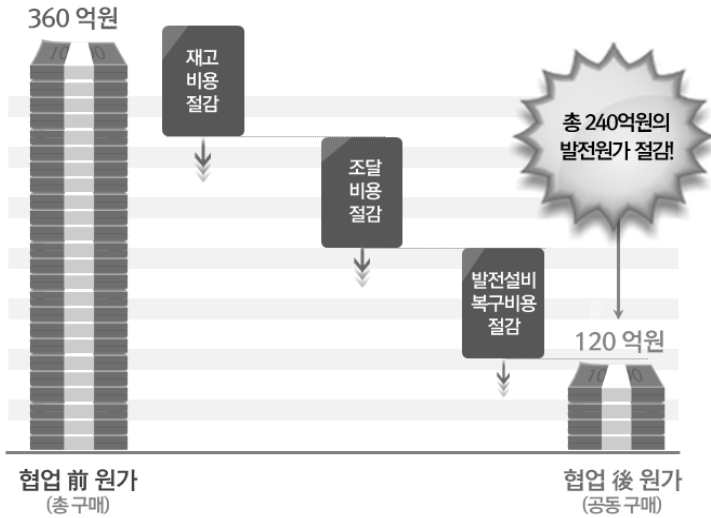
구 분		영월복합 (남부발전)	세종열병합 (중부발전)	양주열병합 (대륜발전)	화성열병합 (한국지역난방)	
					파주열병합	
로터	Disk	×	×	×	1Set(공동사용)	
압축기	Blade	×	×	×	×	×
	Diaphragm	×	×	×	×	×
연소기	Combustor	1Set	1Set	1Set	1Set	1Set
터빈	Blade	1Set	1Set	1Set	1Set	1,2단
	Diaphragm	1Set	1Set	1Set	1Set	3,4단
	RingSeg.	1Set	1Set	1Set	1Set	1Set

남부발전은 주관기관으로서 선정된 대상역무를 <첫째> 공동운영 항목 발굴, <둘째> 구매 및 정보교류, <셋째> 공동 자재관리, <넷째> 추가발굴 및 성과분석 이상 네가지 실천역무로 설정하여 성공적·주체적으로 수행하였다. 첫째, 공동운영 항목 발굴 역무에는 발전소 간 가스터빈 비상 예비품 구매 실적 확인, 국산화 및 연구개발 실적 확인, 역수입 자재내역 확인, 건설 잉여 자재 및 발전회사 예비품 확인 등이 포함된다. 둘째, 구매 및 정보 교류 역무에는 비상, 고가 및 장시간 소요 자재 구매, 호환 가능 자재 목록화/호환 문의, 기술교류로 정비능력 향상이 포함된다. 셋째, 공동 자재관리 역무에는 발전회사 간 적정 예비품 정수 책정, 공동구매 품목 및 예산 출자액 결정이 포함된다. 마지막 추가발굴 및 성과분석 역무에는 성과분석 및 구매 내역 보고, 발전 4사 상설위원회(분기 1회) 등이 있다.

“ 참여사 및 제작사는 핵심 역무를 수행을 통해 한국남부발전(주)와의 협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함 ”

	기관명	핵심 업무
참 여 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대원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운영 대상품목 선정 및 정수 책정 ▪ 공동구매 ▪ 공동 예비품 보관창고 이관 ▪ 사용시 예비품 구매, 재고 보충 외 다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작사 권장 예비품 선정 보유 ▪ 발전사별 자재 호환 가능검토 ▪ 제작비용 합리적 인하방안 마련 ▪ 돌발사고 시 기술지원 및 자재수급 지원

참여사 및 제작사 또한 핵심 업무 수행을 통해 남부발전의 협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이러한 협업의 결과로 고가 저빈도 핵심 예비품 공동운영과 조달 시간 단축을 통해 가스터빈 관련 91개 품목 360억원의 총구매비용 중 240억원의 획기적인 발전원가의 절감을 달성할 것이다.



또한 협업을 통해 기여할 수 있는 두 가지 정성적인 측면으로는 <첫째> 발전사업자 간 자원공유를 통해 공동 예비품을 활용하여 돌발사고시 자체 용품을 통해 신속복구하고, 자원공유 및 예비품 적정보유로 발전원가를 절감하며, 협력을 통한 독점 공급사에 대한 가격 경쟁력 강화를 들 수 있고, <둘째> 사업자 간 인적·기술 교류를 통해 정비능력 향상, 유사고장 공유로 고장정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운영기술 자립 및 핵심기술 확보로 제작사에 의존하는 한계를 극복하며, 협업을 통한 신정부 정책 적극 부응으로 국민경제에 기여함을 들 수 있다.



협회의 향후 계획으로 아래와 같은 세 가지 발전 방안을 마련하였다. 첫째, 매년 User Group Conference를 통해 설비운영 기술을 공유하고 해외 의존도가 높은 고온 부품의 재생설비를 국내에서 수행하는 등 발전운영 기술 공유에 이바지 한다. 둘째, 고장 및 정지 없는 발전 설비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달성한다. 셋째, TBN Rotor(약 200억원) 등 고가의 비상 예비품 및 중·저가 예비품 등 핵심 예비품을 지속 발굴·구매·관리하여 궁극적으로 국가 발전과 국민 안녕에 기여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

2014 공공기관 협업 우수사례집

인 쇄 : 2015년 4월 27일

발 행 : 2015년 4월 30일

발행처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등 록 : 1993년 7월 15일 제21-466호

ISBN : 978-89-8191-715-9

인 쇄 : 경성문화사 (02) 786-2999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